

일반 농촌마을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충남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례

제1장 대전시 서구 증촌마을

1. 증촌마을 경제의 일반현황	1
2. 증촌마을의 경제현황	17
3. 증촌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26
4.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의 인구 변화	30
5.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의 가족 구조 변화	32
6.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 주민의 취업 구조 변화	33
7.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 농업 구조	35

제2장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1. 마을경제의 일반현황	38
2. 마을의 경제현황	53
3. 송국2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60
4.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송국2리(송현리)마을의 인구 변화	63
5.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송국2리 마을의 가족 구조 변화	66
6.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송국2리 마을의 주민의 취업 구조 변화	67
7.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송국2리 마을 농업 구조	68

제3장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1. 야화2리 경제의 일반현황	71
------------------------	----

제4장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1. 대양2리 경제의 일반현황	102
------------------------	-----

제5장 부여군 초촌면 추양1리

1. 추양1리 일반현황	127
2. 추양1리의 경제현황	148
3. 추양1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165

제6장 부여군 초촌면 신암1리

1. 신암1리 일반현황	173
2. 신암1리의 경제현황	195
3. 신암1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217

제7장 사례의 종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일반농촌지역 마을의 종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224
2. 20년 史 대상 사례마을의 종합 검토 및 정책 시사점	229

표 차례

제1장

<표 1-1> 증촌마을 주민의 성별과 연령대(2017년 8월 기준)	2
<표 1-2> 증촌마을의 가구 형태 (2017년 8월 기준)	3
<표 1-3> 증촌마을 경제 활동 유형(가구별, 세대주 기준)	8
<표 1-4> 증촌마을 가구당 연간 총수입(가계수입)	9
<표 1-5> 증촌마을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	9
<표 1-6> 증촌마을 가구당 연간 연금/정부지원금	10
<표 1-7> 증촌마을의 가구당 연간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	11
<표 1-8>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	12
<표 1-9> 5년 전 대비 소득 증가 소득원	12
<표 1-10> 5년 전 대비 소득 감소 소득원	12
<표 1-11> 향후 5년 변화 예상 소득	13
<표 1-12> 향후 5년 예상 소득 증가 소득원	13
<표 1-13> 향후 5년 예상 소득 감소 소득원	13
<표 1-14> 농어업의 의향 경제활동	13
<표 1-15> 가구 총지출(작년 소비지출 규모)	14
<표 1-16> 소비활동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	15
<표 1-17> 5년 前과 현재의 소비지출 규모	15
<표 1-18> 주요작목	16
<표 1-19> 농업활동의 과거(5년 전)과의 면적비교	18
<표 1-20>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18

<표 1-21> 농어업 후계자 유무	19
<표 1-22> 은퇴 시 농지 계획	19
<표 1-23>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	20
<표 1-24> 농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23
<표 1-25> 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	23

제2장

<표 2-1> 증촌마을의 세대수와 인구 변화(1985년, 1994년, 2017년)	30
<표 2-2> 증촌마을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	31
<표 2-3> 증촌마을의 가족 유형 변화	32
<표 2-4> 증촌마을 주민(세대주)구조 변화	33
<표 2-5> 증촌마을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명, %)	34
<표 2-6> 증촌마을과 전국, 충남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비율	35
<표 2-7> 증촌마을 농경지 면적 변화(단위: 평)	35
<표 2-8> 증촌마을 농경지 면적 전국, 충남과 비교(단위: ha)	36

제 1 장

대전시 서구 증촌마을

1. 증촌마을 경제의 일반현황

1.1 증촌마을의 경제적 특성

1.1.1. 증촌마을 주민 현황

■ 증촌마을 인구 현황

2017년 8월 현재 증촌마을의 실제 거주 인구는 78명이며, 그 가운데 여성 45명(57.7%), 남성 33명(42.3%)으로 여성 비율이 15.4% 높다. 특히 고령 독거노인 16명 가운데 여성이 10명으로 고령 독거노인의 남녀 차가 심하다.

60대 이상 고령인구는 65명으로 전체 인구의 83.3%를 차지하여 증촌마을은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증촌마을에 거주하는 20대 이하의 3명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다. 이처럼 20대 이하의 연령층 비율(3.8%)이 매우 낮은 이유는 마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두 진학이나 취직 관계로 외지(도시)로 나가기 때문이다.

〈표 1-1〉 증촌마을 주민의 성별과 연령대(2017년 8월 기준)

구분		빈도수	비율(%)
성별	여성	45	57.7
	남성	33	42.3
	합계	78	100.0
연령	20대 이하	3	3.8
	30대	3	3.8
	40대	2	2.6
	50대	5	6.4
	60대	33	42.3
	70대 이상	32	41.0
	합계	78	100.0

주) 2017년 8월 증촌마을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증촌마을 전체 가구 현황과 가구 특성

2017년 8월 현재 증촌마을의 가구 수(세대수)는 총 49호이나 7호는 아무도 살지 않은 빈집으로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는 42호이다. 빈집이 생겨나는 이유는 고령세대의 자연사(自然死) 이후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빈집을 임대 또는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이다.

가구당 구성원(가족수)을 살펴보면 2인 가족이 19호로 전체 가구의 45.2%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1인 가족(독신)이 16호로 38.1%를 차지하고 있다. 3인 이상 가족은 7호로 16.7%에 불과하다. 독신가구 16호 가운데 80세 이상이 12호로 75%를 차지한다.

증촌마을의 가구 구성 특징은 고령 독신세대가 많다는 점과 70대 이상 세대주가 24가구로 57.1%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 세대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촌마을은 다른 일반 농촌마을과 달리 외국에서 이주 결혼해 온 다문화 가정(1세대¹⁾)에 불과하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집성촌이라는 특수적 환경도 이유 가운데 하나 일 것이다.

1) 10년 전 베트남에서 이주해 옴

〈표 1-2〉 증촌마을의 가구 형태 (2017년 8월 기준)

구분		빈도수	비율
가구 수	1인 가구	16	38.1
	2인 가구	19	45.2
	3인 가구	5	11.9
	4인 가구	1	2.4
	5인 가구	1	2.4
	6인 가구	0	-
	7인 가구	0	-
	합 계	42	100.0

1.1.2. 증촌마을의 경제활동 특성

■ 경종농업 중심의 경제 활동

증촌마을 총 42가구 가운데 조금이라도 (약 300평 이상) 경작을 하거나 축산을 하는 가구는 29가구²⁾(64.3%)이다. 농사는 대부분 논농사(벼)와 밭농사(콩, 고추, 깨)처럼 경종농업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논과 밭 등 농경지가 1ha 이상이 되는 농가는 축산 농가를 제외한 27가구 가운데 8가구(전체 농가의 29.6%)에 불과하다. 8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1ha 미만의 소규모로 경작하고 있다.³⁾

1ha 이상의 8개 농가의 농경지 평균 면적은 약 1.2ha이며, 1ha 미만의 19개 농가 가운데 축산 2농가를 제외한 17농가의 농경지 평균 면적은 약 0.39ha에 불과하다.

2) 29가구 가운데 2가구는 축산업임

3) 증촌마을의 농업 조건을 고려할 때, 농경지 1ha 이상 경작하고 한우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전업농가라 정함

■ 소규모 축산을 통한 경제 활동

한우를 10두 이상 사육하는 축산 농가 2가구가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 자가 소비 형태의 소규모로 염소와 닭을 사육하고 있다.

■ 증촌마을의 경제 공동체 활동 여부

현재 증촌마을 내 경제적 공동체 활동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농경지가 그리 넓지 않아 개별경영으로 충분하였기에 경제 공동체의 필요성이 약했다고 볼 수 있다.

1.2. 마을자산 및 경제 인프라

1.2.1. 증촌마을의 주요 자산

■ 자연과 생태

증촌마을은 마을 뒤로 산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농경지(논)가 펼쳐 있다. 또한 마을 입구에 비교적 수질이 좋은 하천이 흘러 마을의 자연생태 환경은 대체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주변에 특별한 오염원이 없어 마을 내 소하천 또는 농수로의 수질도 양호한 편이다.

〈그림1-1〉 증촌마을의 자연과 생태



■ 마을경관

증촌마을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마을 숲(산), 집락, 구릉지 밭, 평지 논, 하천 등 다양하며 적절히 조화를 이뤄 마을 경관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마을 안길을 비롯하여 마을 내 청소 상태도 우수하고 주택들도 비교적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 단, 마을에는 3호의 빈집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다.

〈그림 1-2〉 증촌마을 전경



1.2.2. 증촌마을의 경제 인프라

■ 경제 인프라 현황과 활용 실태

증촌마을 내 공동 창고, 공공 소득시설, 숙박시설 등 경제 인프라는 거의 없다. 개별농가가 운영하는 육묘장과 한우 축사가 전부이다.

〈그림 1-3〉 증촌마을의 경제 인프라

육묘장	한우 축사

■ 증촌마을의 공유자원의 현황과 활용 실태

증촌마을의 특별한 공유자원은 없다.

1.2.3. 증촌마을의 상업 및 공공시설

■ 증촌마을의 상업시설 현황과 특성, 활용 실태

현재 마을 내 상업시설은 없다. 2년 전까지 마을 내에 작은 가게(골목가게, 구멍가게)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점된 상태이다. 폐점된 이유는 이용객이 줄고,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농협마트나 일반 도소매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촌마을 주민의 일용품(생필품) 구입은 약 4km 거리에 기성동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으며, 약 12km 떨어진 곳에 대전시 서구 도마동 전통시장이 있어 그 곳을 주로 이용한다.

■ 증촌마을의 공공시설 현황과 활용도

마을 내 공공시설은 노인정(마을회관 겸)이 유일하다. 약 30년 전에 건립된 노인정은 2층 건물이나 현재는 1층만 사용하고 있다. 외관적으로는 조금 낡아 보이지만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함은 없어 보인다.

노인정 총면적은 약 25평으로 현재 사용하는 1층에는 방 3개, 부엌이 있으며, 일상적으로 마을 주민의 교류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평일 약 10여명이 상시 이용).

〈그림 1-4〉 증촌마을의 공공시설



증촌마을의 마을 행사로는 어버이날(양력 5월8일) ‘경로잔치’, 음력 7월 15일에 ‘백중잔치’, 연말에 ‘마을 총회’ 3가지가 있으며, 오래 전부터 이 3가지 행사는 계승되어 왔다. 마을 행사시에는 마을의 거의 모든 주민이 모여 교류의 시

간을 보낸다고 한다.

1.3. 증촌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1.3.1. 증촌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증촌마을의 경제 활동의 근간은 농업이나, 1ha 이상 농사를 짓는 전업농은 전체 가구의 26.2%에 불과하다. 소규모의 농경지에 농사를 짓는 영세농은 전체 가구의 38.1%이며, 고령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은퇴농(무직)도 21.4%이른다.

농업이외의 경제활동은 매우 미미하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6가구는 증촌마을이 아닌 타 지역(마을)에서 일용직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증촌마을 주민의 경제 활동은 농업이외에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1-3〉 증촌마을 경제 활동 유형(가구별, 세대주 기준)

구분	빈도 수	비율
농업(전업)	11	26.2
농업(겸업+자가소비)	16	38.1
비농업	6	14.3
무직	9	21.4
합계	42	100.0

1.3.2. 증촌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

■ 증촌마을의 가구총소득 및 세부항목

20가구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구당 총 수입이 1천~2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가

구가 9가구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천만 원 이하로 응답한 가구가 총 14가구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구당 소득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1-4〉 증촌마을 가구당 연간 총수입(가계수입)

구분	빈도 수	비율
0~500만원	3	15.0
500만원~1천만원	2	10.0
1천만원~2천만원	9	45.0
2천만원~3천만원	0	0.0
3천만원~4천만원	5	25.0
4천만원~5천만원	1	5.0
5천만원~1억원	0	0.0
합계	20	100.0

가구당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농업 소득과 관련 없는 응답자 6가구를 제외하고, 연간 농업소득이 1천만 원이 이하의 가구가 8가구로 전체 응답가구의 57.1%를 차지한다. 농업소득이 3천만 원이 넘는 가구는 1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증촌마을 농가의 농업소득 또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지 인터뷰 조사에서도 벼농사 2,000평 이상의 6농가와 한우 15두 정도를 사육하는 1농가를 제외하고는 농산물의 판매 수입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 증촌마을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

구분	빈도 수	증촌마을 비율	충남 평균비율	전국 평균비율
0~500만원	3	21.4	47.3	52.9
500만원~1천만원	5	35.7	19.1	14.8
1천만원~3천만원	6	42.9	20.3	18.5
3천만원~5천만원	0	0.0	5.6	6.1
5천만원 이상	0	0.0	7.7	7.8
합계	14	100.0	100.0	100.0

설문조사 결과 연간 농업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은 증촌마을이 57.1%, 충남 평균 66.4%, 전국 평균 67.7%로 나타나 증촌마을이 수치적으로는 낮게 나타났지만, 표본수가 매우 작아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증촌마을의 경우 연간 3천만 원 이상 농업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충남 평균 13.3%, 전국 평균 13.9%에 비교해 보면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 비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살펴보면, 500만 원 미만은 응답한 전체 14가구 가운데 13가구 92.9%에 이른다. 또한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에서도 응답한 전 가구에서 1천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증촌마을의 경우 농업 이외 특별한 소득원을 찾아 볼 수 없다.

〈표 1-6〉 증촌마을 가구당 연간 연금/정부지원금

구분	빈도 수	비율
0~500만원	13	92.9
500만원~1천만원	1	7.1
1천만원~2천만원	0	-
2천만원~3천만원	0	-
3천만원~4천만원	0	-
4천만원~5천만원	0	-
5천만원~1억원	0	-
합계	14	100.0

〈표 1-7〉 증촌마을의 가구당 연간 이전소득 및 기타 소득

구분	빈도 수	비율
0~500만원	12	92.3
500만원~1천만원	1	7.7
1천만원~2천만원	0	-
2천만원~3천만원	0	-
3천만원~4천만원	0	-
4천만원~5천만원	0	-
5천만원~1억원	0	-
합계	13	100.0

■ 가구소득구조의 과거 대비 변화, 향후 전망

가구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년 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가구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응답(4가구)보다 증가하였다는 응답(6가구) 약간 많았다.

증가된 이유로 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응답자가 많아, 연금과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농촌지역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감소한 이유로서는 농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이다. 이처럼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냈다. 농업소득의 감소는 소규모 가족농이 농업을 포기하는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표 1-8〉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

구분	빈도 수	비율
크게 감소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1	5.0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3	15.0
큰 변화가 없다	10	50.0
소폭 증가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5	25.0
크게 증가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1	5.0
잘 모르겠다	0	-
합계	20	100.0

〈표 1-9〉 5년 전 대비 소득 증가 소득원

구분	빈도 수	비율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0	-
임금 소득	1	5.0
비농어업 사업소득(자영업, 기타 사업체 등)	0	-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5	25.0
없음	14	70.0
합계	20	100.0

〈표 1-10〉 5년 전 대비 소득 감소 소득원

구분	빈도 수	비율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6	30.0
임금 소득	0	-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0	-
없음	14	70.0
합계	20	100.0

증촌마을 가구당 향후 5년 간 예상 소득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으며 전체 응답가구의 60%는 감소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그 이유로 농업소득이 감소될 것이라는 응답자가 제일 많았다. 향후 5년 간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소득원을 질문한 결과 모든 응답가구에

서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향후에도 증촌마을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나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1〉 향후 5년 변화 예상 소득

구분	빈도 수	비율
크게 감소할 것	5	25.0
소폭 감소할 것	7	35.0
큰 변화가 없을 것	8	40.0
소폭 증가할 것	0	-
합계	20	100.0

〈표 1-12〉 향후 5년 예상 소득 증가 소득원

구분	빈도 수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0
임금 소득	0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0
없음	20
합계	20

〈표 1-13〉 향후 5년 예상 소득 감소 소득원

구분	빈도 수	비율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9	45.0
임금 소득	3	15.0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0	-
없음	8	40.0
합계	20	100.0

〈표 1-14〉 농어업외 의향 경제활동

구분	빈도 수
없음	18
생산/기능/노무업	2
판매/영업/서비스업	0
합계	20

1.3.3. 증촌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

■ 증촌마을 가구별 총소비 및 세부항목

주민 설문조사 결과 가구별 연간 총 지출액이 1천만 원이하라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유효 응답수(20가구)의 75%인 15가구에 이른다. 연간 가구 총지출(소비지출)이 2천만 원이 넘는 가구는 전혀 없었다.

농업 경영에 들어간 경영비는 모든 응답자가 1천만 원이하라고 응답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증촌마을의 농업 규모는 비교적 소규모, 영세농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5〉 가구 총지출(작년 소비지출 규모)

구분	빈도 수	비율
1천만원 이하	15	75.0
1천만원~2천만원	5	25.0
2천만원~3천만원	0	-
3천만원~4천만원	0	-
4천만원~5천만원	0	-
5천만원 이상	0	-
합계	20	100.0

소비활동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주거비용이라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1순위로 70.0%). 다음으로는 의료비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취학 자녀가 없는 가구가 대다수이기에 교육비 지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소비활동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1	5	14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14	6	0
의료비(진료, 약품구입 등)	5	9	2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0	0	2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0	0	0
교통/통신비	0	0	1
부채상환	0	0	0
합계	20	20	19

소비지출을 조사한 결과 응답가구의 40.0%는 5년 전과 비교해서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소비가 증가했다는 비율(40.0%)이 감소했다는 비율(20.0%)보다 두 배나 많았다. 대체적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17〉 5년 前과 현재의 소비지출 규모

구분	빈도 수	비율
크게 감소하였다	0	-
소폭 감소하였다	4	20.0
큰 변화가 없다	8	40.0
소폭 증가하였다	7	35.0
크게 증가하였다	1	5.0
잘 모르겠다	0	-
합계	20	100.0

2. 증촌마을의 경제현황

2.1. 농업활동의 실태

2.1.1. 마을의 농업특성

■ 주요 생산 작목의 현황과 특성

증촌마을의 주요 농산물은 쌀, 콩, 고추, 들깨(참깨) 등 일반 농촌마을과 특이한 점은 없다.

〈표 1-18〉 주요작목

주요작목	총 경작면적 및 수확량	생산 및 가공 방식	유통 및 판매방식
쌀	약 18ha(논), 110,000kg * 200평=400kg ⁴⁾	개별농가단위 생산	지역농협 정부수매
콩, 고추, 깨	약 2.57ha(밭)	개별농가단위 생산	자가소비
아로니아	약 400평	개별농가단위 생산	지역농협
한우	25두	개별농가단위 생산	지역축협
염소	3두	개별농가단위 생산	자가소비

4) 증촌마을의 경우 일반적으로 1마지기(약 200평)에서 벼를 400kg 생산하다고 한다.

■ 작목별 경작방식 및 생산조직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은 없으며 대부분이 개별농가 단위로 경작하고 있으며 작목반 등 공동 생산, 유통 조직은 없다.

■ 농가별 농업생산활동 현황

논 농업의 경우 1농가 평균 경작 면적이 0.7ha로 소규모이며, 1ha 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5개 농가에 불과하다. 밭농업의 경우도 1농가 평균 경작 면적이 0.18ha(약 500평)로 매우 영세하다.

■ 과거 5년 동안 농경지 면적 변화

논, 밭 등 농경지의 면적은 과거 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효응답자 14명 가운데 농경지 면적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자는 13명으로 나타났다.

■ 증촌마을 휴경지는 거의 없음

증촌마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두는 휴경지는 거의 없다. 그 이유는 농경지가 방치되기 전에 지역주민들 간 상호 조정(임대, 매도, 매입)하여 휴경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농경지 면적 변화를 알아 본 결과 응답한 14가구 가운데 13가구가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여, 5년 전과 농경지의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19〉 농업활동의 과거(5년 전)과의 면적비교

구분	빈도 수
크게 감소하였다	0
소폭 감소하였다	1
큰 변화가 없다	13
소폭 증가하였다	0
크게 증가하였다	0
잘 모르겠다	0
합 계	14

2.1.2. 마을농업의 대응 실태

■ 농업의 변화에 따른 농가의 대응 현황

증촌마을 농가의 경우 향후 농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만두고 싶다는 가구수가 전체 응답가구의 57.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응답자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확대/발전시키고 싶다는 농가는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증촌마을 농가들은 향후 더 이상 농업을 확대하거나 발전시키 나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과를 뒷받침 하듯이 농업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한 가구도 없었다.

〈표 1-20〉 향후 농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구분	빈도 수	비율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0	-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6	42.9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3	21.4
모두 그만두고 싶다	5	35.7
잘 모르겠다	0	-
합 계	14	100.0

〈표 1-21〉 농어업 후계자 유무

	있다	없다	합 계
후계자 유무	0	14	14

고령농가가 농업을 그만 둔 후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가구의 57.1%는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향후 얼마 동안은 농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식에게 물려주겠다고 응답한 가구는 1가구(7.1%)로 농업을 자식에게 넘겨줄 의향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표 1-22〉 은퇴 시 농지 계획

구분	빈도 수	비율
자식에게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게 하겠다	0	-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1	7.1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	4	28.6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1	7.1
구체적 계획이 없다	8	57.1
현재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0	-
합계	14	100.0

농업과 관련된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를 물어본 결과 ‘하고 싶지 않다(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의 64.3%로 대부분의 농가는 별다른 경제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고령농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가구의 28.6%는 직거래 또는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는데, 고령농가, 소규모 가족농 중심의 마을에서는 마을 내 또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지역)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기반)를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농가에게 직거래를 위한 온라인판매 권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1-23〉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

구분	빈도 수	비율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1	7.1
직거래 및 직판장 운영	4	28.6
농어가 민박 및 음식점 운영	0	-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0	-
없다(하고 싶지 않다)	9	64.3
합계	14	100.0

2.2. 영농방식의 시도와 변화

2.2.1. 영농방식의 변화

■ 영농방식과 형태의 변화

증촌마을의 경우 경작지 면적의 변화와 토지이용 변화가 과거나 지금이나 거의 없다. 따라서 영농방식 또한 과거나 지금이나 개별농가 단위로 경작하고 있다. 벼농사의 경우 고령농의 증가에 따라 고령농가로부터 임대 또는 매입하여 규모화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즉 마을 내 일부 농가에서 벼농사를 대규모로 경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2.2.2. 농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 작목별 주요 판로 및 유통방식의 실태와 변화

증촌마을의 경우 대량으로 생산되는 작목이 없어 소량으로 지역농협(기성농협)에서 대부분 수매한다. 벼농사 경우 정부 수매와 지역농협에서 수매하고 있으며 지역농협, 정부 수매외의 판로 및 유통 방식은 없다.

■ 마을/지역단위 유통·판매조직의 형성

유통, 판매 조직 없다.

2.2.3. 마을농업의 최근 시도

최근 증촌마을의 농업에 새로운 변화는 찾기 어려우나, 그 동안 마을에서 재배하지 않았던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가가 등장하였다.

2.3. 비농업활동의 특성 및 변화

2.3.1. 증촌마을의 산업 현황

■ 증촌마을은 1차 산업 중심

벼농사 중심의 1차 산업 추구, 소규모 밭에서는 고추, 콩, 깨 등 채소류 재배
증촌마을의 경우 1차 산업 외 2차, 3차 산업 없음. 전형적인 농업 중심의 집락 형성되어 있다.

2.3.2. 증촌마을 비농업 경제활동의 특성

■ 증촌마을의 경우 농업 외 다른 경제 활동은 전혀 없음

■ 최근 귀촌자가 유입되고 있으나 마을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은 전혀 행해지고 있지 않음

최근 2~3년 사이에 증촌마을로 유입된 귀촌가구는 마을 내가 아닌 마을 밖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

2.3.3. 증촌마을의 다면적 경제 활동

■ 증촌마을의 다면적 경제 활동은 전혀 없음

6차산업, 사회적기업 등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다면적 경제 활동은 전혀 없다.

〈표 1-24〉 농가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직거래, 직판장, 로컬푸드 등)	농어촌 관광(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	기타
수행하지 않는다	14	10	14	14
개별적 수행	0	4	0	0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	0	0	0	0
합계	14	14	14	14

〈표 1-25〉다면적 경제활동 참여 및 운영 의사

구분	빈도 수
매우 그렇다(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0
그렇다	2
보통이다	1
아니다	0
전혀 아니다(참여할 생각이 없다)	7
잘 모르겠다	0
합계	10

2.4. 공동체-기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

2.4.1. 증촌마을의 경제 공동체(조직) 실태와 변화

현재 증촌마을 내에는 경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4.2.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 확장

특별히 없다.

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 마을 행정지원사업의 내역 및 성과

2007년, 2009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지원 사업으로 마을 입구 주차장, 버스 정류장, 마을 안내판 등을 설치하였다.

3. 증촌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3.1. 증촌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 소규모 영세농 중심의 경제 활동

증촌마을의 주(主)경제 활동은 농업이라 할 수 있으나, 경작 면적이 크지 않고 자가소비 형태의 소규모 영세농(가족농)이 중심이다. 일부 전업농이 존재하나 그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 농가 경영주의 연령대에 따라 농업 경영 형태 변화

증촌마을의 농가 경영형태를 구분해 보면, 대체적으로 6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중장년 층 농가에서는 벼농사 중심의 전업농이 많고 70대 고령농가에서는 점점 농업 규모를 줄어 나가면서(임대 또는 매도) 자가소비 형태의 소규모 영농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80대 이상 초고령 농가에서는 완전히 농업을 그만두는 은퇴농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일반 농촌마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벼농사 중심의 전업농(60대 이하) → 소규모 가족농, 자가소비형(70대) → 은퇴농(80대 이후)

■ 벼농사의 경우 농지의 집적화, 규모화 진행

한편, 벼농사 전업농가의 경우는 경작 면적을 늘려나가는 추세이다. 고령화

에 의해 경작 면적을 줄이는 농가나 은퇴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 또는 매입을 통해 농지를 집적화, 규모화 하고 있다.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로 인해 많이 노동력이 필요치 않고 어느 정도 규모화하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 고령농가가 많아 새로운 작물로의 전환 어려움

증촌마을의 경우 고령농가 비율이 높아 현재의 농가들은 새로운 작물로의 전환에 의지와 관심이 없다. 고령농가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은여생을 보내려는 생각이 강하다.

3.2. 증촌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 고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의 상황과 큰 변화는 없을 듯

증촌마을의 경우 앞으로 더 이상의 인구 유출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농가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점이 향후 증촌마을의 경제 활동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소이다.

단,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자녀들이 들어 올 계획이 있고 최근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증촌마을 내 새로운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추구하기 위한 기반이 매우 취약하나,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 직매장 운영은 충분히 가능

증촌마을은 대도시인 대전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장태산

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이 있어 도시민들을 마을로 유인할 수 있는 기회요소는 많다. 증촌마을의 실정에 맞게 작은 규모의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컬푸드 매장)를 조성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농지의 집적화와 규모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타 지역 농촌마을과 유사하게 증촌마을도 벼농사의 경우 농지의 집적화, 규모화가 향후 일정 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아직 소규모로 자가소비형태로 경작하는 고령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고령농가가 향후 은퇴할 시 그 농지를 임대,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3. 정부 정책의 방향

■ 은퇴농가를 대비한 농업, 농촌 개발 정책 필요

일반 농촌마을의 농업 경영 형태는 전업농 → 소규모 영농, 자가소비형 영농 → 은퇴농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은퇴농가를 대체할 새로운 영농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 즉 귀농인을 유입하여 최소한의 마을 영농을 지속적으로 순환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마을 단위에서 농지를 집적하고 규모화 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는 한국형 마을영농(일본의 집락영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 공간 계획, 정주환경 개선 중심의 농촌 개발에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마을 생태환경 보전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

벼농사 중심의 농촌마을은 향후 소수의 전업농에 의해 농업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고령농가, 귀농인, 귀촌인, 귀향인들이 모여 사는 거주 공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즉 농촌마을 거주민이 농업활동보다는 비농업활동 분야에서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이러한 비농업인들에게 농촌,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다면적 기능)을 유지, 보전해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

농촌마을에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마을이 소멸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으며, 소멸되어서도 안 된다. 농촌마을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양한 각도에서 명확히 제시하고, 비농업인들에게 농촌, 농업이 가지고 있는 제 기능들이 앞으로도 유지, 보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일자리)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4.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의 인구 변화

4.1.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의 인구 변화

4.1.1. 최근 10년 간 세대수와 인구 변화

최근 10년간 증촌마을에서는 고령에 의한 자연사로 11명이 자연감소 하였지만, 다른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는 없었다. 즉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 세대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도 외지(도시) 거주하는 자녀들과 동거하고자 의향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최근 10년 간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은 귀촌 한 3가구 6명이다. 3가구 모두 부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마을 외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즉 귀농이 아닌 귀촌가구이다. 집성촌의 특성 상 외부인에게 가급적 토지나 대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증촌마을로 유입된 귀촌인구가 비교적 적다. 대전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귀촌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으나, 증촌마을의 경우에는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촌마을의 경우 최근 10년 간 마을 인구 변화는 11명이 줄고 6명이 늘어나 결국 5명이 줄어든 셈이다. 향후에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지인이 유입되기 보다는 도시로 떠나 있는 자녀세대들이 돌아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2-26〉 증촌마을의 세대수와 인구 변화(1985년, 1994년, 2017년)

연도	1985	1994	2017
세대수(가구수)	58	50	42 ⁵⁾
인구	224	162	78
세대당 평균 가족수	3.86	3.24	1.86

■ 약 30년 간 증촌마을의 인구수 급감

1985년 224명이었던 증촌마을의 인구는 2017년에는 78명으로 30년 간 약 1/3로 급감하였다. 특이한 점은 같은 기간 동안 세대수는 58세대에서 42세대로 2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수는 급감하였지만, 가구수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이다.

증촌마을의 인구 감소는 세대당 평균 가족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세대당 가족수가 3.86명에서 2017년에는 1.86명으로 급감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 또한 이런 현상은 고령 단신세대와 고령 부부세대의 비율이 급증한 것과 관계가 있다.

〈표 2-27〉 증촌마을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

구분	1985		1994		2017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0~20대	102	45.5	58	35.8	3	3.8
30대	29	12.9	13	8.0	3	3.8
40대	15	6.7	20	12.3	2	2.6
50대	30	13.4	15	9.3	5	6.4
60대	29	12.9	25	15.4	33	42.3
70대	20	8.9	31	19.1	32	41.0
합계	224	100.0	162	100.0	78	100.0

5) 총 세대수는 49호이나 빈집 상태인 7호는 제외

■ 증촌마을의 연령대 인구 변화 양상

증촌마을의 과거 30년 간 연령대 인구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30대 미만의 젊은층 인구는 급감하였고 반대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30대 미만 인구비율: 58.4%(1985) → 43.8%(1994) → 7.6%(2017)

60대 이상 인구비율: 21.8%(1985) → 34.5%(1994) → 83.3%(2017)

2017년 현재 증촌마을의 30대 미만 인구비율이 7.6%에 불과하다는 점은 향후 마을의 존속 여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1.2. 최근 10년 간 전입 현황

최근 10년 간 증촌마을에 전입해 온 가구는 총 3가구이며, 인구는 6명이다.

3가구 모두 부부가 거주하며, 마을 내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주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형태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귀촌 형태이다.

5.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의 가족 구조 변화

5.1. 가족 유형 변화

증촌마을의 가족 유형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독신 세대 비율이 급증했다는 점과 3대가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급감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독신세대의 경우 1985년에 8.6%에서 2017년에는 38.1%로 증가하였고, 3대 가족 비율은 1985년 31.0%에서 2017년에는 2.4%로 급감했다. 독신세대 비율의 증가는 고령화에 따른 독신 노인층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진학이나 취업 관계로 자녀들이 외지로 모두 나갔기에 부부로만 가족을 구성하는 비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1985년 12.1%에서 2017년 40.0%로 증가하였다.

〈표 2-28〉 증촌마을의 가족 유형 변화

가족 유형		1985년		1994년		2017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핵가족	독신	5	8.6	8	16.0	16	38.1
	부부	7	12.1	13	26.0	17	40.0
	부부+자녀	20	34.5	12	24.0	5	11.9
	편부부+자녀	4	6.9	3	6.0	1	2.4
	미혼 형제자매	1	1.7	-	-	-	-
직계가족	소계	37	63.8	36	72.0	39	92.9
	(편)부모+부부+자녀	17	29.3	10	20.0	1	2.4
	(편)부모+(편)부부+자녀	1	1.7	3	6.0	-	-
	(편)부부+손자녀	-	-	-	-	-	-
	소계	18	31.0	13	26.0	1	2.4
기타		3	5.2	1	2.0	2	4.8
합계		58	100.0	50	100.0	42	100.0

6. 20년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 주민의 취업 구조 변화

6.1. 취업 구조 변화

증촌마을의 취업 구조는 매우 단조롭다. 마을 내에서는 농업 외에 다른 일자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전형적 농촌마을이다.

전업농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겸업농 가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전업농의 경우 1985년에 91.3%였던 것이 2017년에는 33.3%까지 줄어들었다.

향후에도 증촌마을은 은퇴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고령화로 인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확률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2-29〉 증촌마을 주민(세대주)구조 변화

가족 유형		1985년		1994년		2017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취업 구조	농업 전업	105	91.3	52	55.3	11	33.3
	농업, 비농업 겸업	7	6.1	18	19.1	16	48.5
	비농업	3	2.6	24	25.5	6	18.2
합계		115	100.0	94	100.0	33	100.0

주) 무직인 세대주는 제외

7. 20년사 관점에서의 증촌마을 농업 구조

7.1.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

증촌마을은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17년 현재 50대 이하의 청장년층 연대의 농가 경영주가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향후 고령농가의 급증이 예상된다.

농업 경영주의 평균 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의 농업 경영주에 계속 거주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연령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영주의 평균 연령을 낮춰줄 수 있는 후계자나 외부로 부터의 젊은 농업인이 유인되지 않는 이상 증촌마을 농업 경영주의 연령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증촌마을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 변화: 53.6세(1985년) → 63.2세(1994년) → 73.1세(2017년)

〈표 2-30〉 증촌마을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명, %)

농업 경영주의 연령	1985년		1994년		2017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30세 미만	-	-	-	-	-	-
30대	10	20.8	-	-	-	-
40대	7	14.6	9	23.7	-	-
50대	13	27.1	7	18.4	-	-
60대	15	31.3	10	26.8	10	37.0
70대 이상	3	6.3	12	31.6	17	63.0
계	48	100.0	38	100.0	27	100.0
평균 연령	53.6		63.2		73.1	

주) 2017년 평균 연령 계산은 60대 10명, 70대 12명, 80대 5명을 각 연령대의 중간치로 계산한 것임

〈표 2-31〉 증촌마을과 전국, 충남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비율

연령	증촌마을 (2017년)	전국 (2016)	충남 (2016)
40세 미만	-	1.1%	0.9%
40대	-	6.4%	5.4%
50대	-	21.4%	20.3%
60대	37.0%	31.7%	31.6%
70대 이상	63.0%	39.4%	41.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

7.2. 마을 농경지 면적의 변화

증촌마을 내 농경지는 1985년부터 1994년까지는 약 25,000평 정도가 줄어들었으나, 그 후에는 농경지 면적에 큰 변화가 없다. 2017년 농경지 면적이 1994년에 비해 8,000평 이상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지인이 소유한 농경지를 제외한 면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증촌마을 역시 다른 일반 농촌마을처럼 은퇴농가가 증가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주변 이웃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 많아 호당 경작 면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32〉 증촌마을 농경지 면적 변화(단위: 평)

구 분	1985년	1991년	1994년	2017년
마을 내 농경지 면적	87,697	71,476	62,091	54,358
농가 호수	48	38	38	27
호당 경작 면적	1,344	1,313	1,160	2,013

주) 2017년 면적은 마을 주민이 아닌 외지인이 소유한 면적은 제외. 논 46,585평, 밭 7,773평임

6) 2017년 8월 증촌마을 이장(통장) 인터뷰에 의하면 외지인이 마을 농경지를 소유한 면적은 전체의 약 10%라 하였다.

증촌마을의 경우 호당 경작 면적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 평균, 충남 평균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증촌마을의 농업 구조는 소규모 가족농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표 2-33〉 증촌마을 농경지 면적 전국, 충남과 비교(단위: ha)

구분	증촌마을 (2017년)	전국 (2016년)	충남 (2016년)
호당 경작 면적	0.67	1.54	1.6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임

제2장

부여군 초촌면 송국2리

1. 마을경제의 일반현황

1.1 송국2리 마을의 경제적 특성

1.1.1. 송국2리 마을의 주민 현황

■ 송국2리 마을의 인구 현황

2017년 9월 현재 송국2리 마을의 실제 거주 인구는 총 39명이며, 그 가운데 여성 18명(46.1%), 남성 21명(53.9%)으로 남성 비율이 7.5% 높다. 일반 농촌마을의 경우 보통 여성인구비율이 남성보다 높지만, 송국2리의 경우는 남성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이하다. 60대 이상 고령인구는 21명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 마을이라 할 수 있다.

반면 40대 이하의 비교적 젊은 층 인구는 5명(12.9%)이 거주하고 있다.

〈표 2-1〉 송국2리 마을 주민의 성별과 연령대(2017년 9월 기준)

구분		빈도수	비율(%)
성별	여성	18	46.1
	남성	21	53.9
	합계	39	100.0
연령	20대 이하	-	-
	30대	4	10.3
	40대	1	2.6
	50대	13	33.3
	60대	10	25.6
	70대 이상	11	28.2
	합계	39	100.0

주) 2017년 8월~9월, 송국2리 마을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송국2리 마을 전체 가구 현황과 가구 특성

2017년 9월 현재 송국2리 마을의 실제 거주 가구 수(세대수)는 총 18호이다.

가구당 구성원(가족 수)을 살펴보면 2인 가족이 7호로 전체 가구의 38.9%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는 1인 가족(독신)이 5호로 27.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3인 가족 22.1%, 4인 가족 11.1% 순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족은 없다.

독신가구 5호는 모두 80세 이상 고령자(독거노인)로 나타났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국2리 마을은 다른 일반 농촌마을과 달리 외국에서 이주해 와서 결혼한 다문화 가정은 1가구로 적은 편이다.

〈표 2-2〉 송국2리 마을의 가구 형태 (2017년 8월 기준)

구분		빈도수	비율(%)
가구 수	1인 가구	5	27.8
	2인 가구	7	38.9
	3인 가구	4	22.2
	4인 가구	2	11.1
	5인 가구	-	-
	6인 가구	-	-
	7인 가구	-	-
	합 계	18	100.0%

1.1.2. 송국2리 마을의 경제활동 특성

■ 벼농사와 양송이 재배 중심의 경제활동

송국2리 마을 총 18가구 가운데 약 5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는 9가구(50.0%)이다. 농업 형태를 살펴보면 9가구 가운데 8가구 88.9%가 전업농이며, 1가구만이 자가소비 형태의 소농이다. 송국2리 마을도 다른 농촌마을과 유사하게 비교적 젊은 농업 경영주가 있는 농가에서 고령 은퇴농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농지를 확대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한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특이한 점은 송국2리에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9농가 가운데 양송이 재배는 3농가로 1/3을 차지한다.

■ 시설원예와 왕대추 농업

벼농사와 양송이버섯 재배 외에 수박, 딸기를 재배하는 시설원예와 왕대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다. 벼농사의 소득 한계를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송국2리 마을의 경제 공동체 활동

현재 송국2리 마을 내 경제적 공동체 활동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과거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농경지가 그리 넓지 않아 개별경영으로 충분하였기에 경제 공동체의 필요성이 약했다고 볼 수 있다.

1.2. 마을자산 및 경제 인프라

1.2.1. 송국2리 마을의 주요 자산

■ 자연과 생태

송국2리 마을은 마을 뒤로 나지막한 언덕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농경지(논)가 펼쳐 있다. 마을의 자연 생태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역사문화자원: 송국리 선사취락지

마을 내에 청동기시대 집터인 선사취락지가 있다. 1974년에 유적이 알려지면서 석관무덤과 그 안의 부장품으로 비파형동검, 간돌칼 같은 남쪽지방에서는 처음 알려진 유물들이 드러났고, 반달칼, 돌도끼, 못창끝 등이 나와 이듬해부터 발굴에 들어갔다. 유적의 발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7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집터 33기, 석관 무덤 1기, 옹관 무덤 4기 등이 발견되었다.

■ 마을경관

송국2리 마을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는 마을 숲(언덕), 집락, 평지 논, 밭으로 전형적 농촌마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을 경관에 특이한 점은 없다.

〈그림 2-1〉



마을 안길을 따라 들어오면 낮은 담장과 벽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또한 빈 집들을 철거한 후 방치되어 있는 곳에 생활쓰레기들이 널려 있는 등 마을 내 경관을 해치는 요소들이 보인다.

〈그림 2-2〉



■ 무형자산

송국2리 마을 내 특별한 무형자산은 없다.

1.2.2. 송국2리 마을의 경제 인프라

■ 경제 인프라 현황과 활용 실태

송국2리 마을 내에 경제 인프라로서는 1997년 정부지원으로 설치된 농기계

보관창고가 유일하다. 그 외 공동 소득시설, 숙박시설 등 경제 인프라는 없다.

개별농가가 설치한 양송이 재배사 17동(약 850평), 시설하우스(수박, 딸기 재배) 16동 (약 2,000평)이 전부이다.

〈그림 2-3〉



■ 송국2리 마을의 공유자원의 현황과 활용 실태

송국2리 마을의 특별한 공유자원은 없다.

1.2.3. 송국2리 마을의 상업 및 공공시설

■ 송국2리 마을의 상업시설 현황과 특성, 활용 실태

현재 마을 내 상업시설은 없으며 과거에도 없었다고 한다. 송국2리 마을 주민들의 일용품(생필품) 구입은 약 2km 떨어진 초촌면에 위치한 동부여 농협 생필품 판매장을 이용한다. 또는 약 15km 떨어진 부여읍내의 재래시장, 슈퍼, 편의점 등을 주로 이용한다.

■ 송국2리 마을의 공공시설 현황과 활용도

마을 내 공공시설은 마을회관(노인정)이 유일하다. 마을회관은 1998년에 건축되어 약 20년이 지났으나, 지난 2015년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리모델링되어 주민들의 사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 마을회관의 면적은 약 99㎡이다.

마을회관은 주로 마을 주민들이 교류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자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회, 부인회 등 마을 주민조직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회관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4〉



1.3. 송국2리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1.3.1. 송국2리 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송국2리 마을 경제 활동의 근간은 농업으로 벼농사, 양송이 재배, 왕대추 재배 등 전업으로 농사를 짓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4% 이다. 농가만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 9농가 가운데 전업 농가가 8가구로 대부분 전업으로 농업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송국2리 농업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일반 농촌마을의 영농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송국2리 마을처럼 비교적 젊은층 농업경영주가 있는 농가에서 은퇴농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영농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경향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는 전업농은 점점 사라지고 고령농가들이 자가소비 형태의 매우 작은 농지를 경작하는 패턴이다. 송국2리처럼 영농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마을의 경우, 농지가 넓고 젊은층 농가가 일부 존재하는 마을이거나 벼농사 중심의 마을에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작은 농지를 경작하는 마을은 마을의 농지가 적고 경작 조건이 불리하거나 마을 내 젊은층 농가가 존재하는 않는 마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벼농사보다는 밭작물이나 시설채소 위주로 농사를 짓는 마을에서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표 2-3〉 송국2리 마을 경제 활동 유형(가구별, 세대주 기준)

구분	빈도 수	비율
농업(전업)	8	44.4
농업(겸업+자가소비)	1	5.6
비농업	2	11.1
무직	7	38.4
합계	18	100.0

1.3.2.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

■ 송국2리 마을의 가구 총소득 및 세부항목

송국2리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⁷⁾한 결과 가구당 연간 총 수입이 5백만원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7가구로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천만 원이하로 응답한 가구가 총 12가구로 60%를 차지할 정도로 가구당 소득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2-4〉 송국2리 마을 가구당 연간 총수입(가계수입)

구분	빈도 수	비율
0~500만원	7	35.0
500만원~1천만원	3	15.0
1천만원~2천만원	2	10.0
2천만원~3천만원	2	10.0
3천만원~4천만원	2	10.0
4천만원~5천만원	4	20.0
5천만원~1억원	0	0.0
합계	20	100.0

농가의 대다수가 전업농인 송국2리 마을의 경우 농업소득은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농가 가운데 3가구인 42.9%가 연간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이상으로 충남 평균 33.6%, 전국 평균 32.4%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송국2리 마을의 경우 벼농사 외에 최근 들어 양송이 재배와 왕대추 재배를 전업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농업소득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2017년 9월 현재 송국2리의 실제거주 가구수는 18가구임. 설문조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다만, 연간 농업소득이 1천만 원이 안 되는 농가도 57.2%가 된다.

〈표 2-5〉 송국2리 마을 농가당 연간 농업소득

구분	빈도 수	송국2리 비율	충남 비율	전국 비율
0~500만원	1	14.3	47.3	52.9
500만원~1천만원	3	42.9	19.1	14.8
1천만원~3천만원	2	28.6	20.3	18.5
3천만원~5천만원	1	14.3	5.6	6.1
5천만원 이상	0	-	7.7	7.8
합계	7	100.0%	100.0	100.0

연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살펴보면 응답한 12가구 모두가 500만 원 미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전소득을 포함하여 기타 소득에 있어서도 모든 가구에서 연간 5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송국2리 주민들의 소득원은 매우 단순하며 금액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연금/정부지원금

구분	빈도 수
0~500만원	12
500만원~1천만원	0
1천만원~2천만원	0
2천만원~3천만원	0
3천만원~4천만원	0
4천만원~5천만원	0
5천만원~1억원	0
합계	12

〈표 2-7〉 이전소득 및 기타

구분	빈도 수
해당항목없음	9
0~500만원	11
500만원~1천만원	0
1천만원~2천만원	0
2천만원~3천만원	0
3천만원~4천만원	0
4천만원~5천만원	0
5천만원~1억원	0
합계	20

■ 가구소득구조의 과거 대비 변화, 향후 전망

가구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5년 전과 거의 동일하다고 응답한 가구가 전체 55%를 차지하고 있어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가구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6가구로 증가하였다는 응답 2가구에 비해 3배가 많았다. 송국2리 마을의 경우 가구 소득은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대체로 변화가 없거나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 소득이 감소한 이유로서는 농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다수이다. 이처럼 농업소득의 감소가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소득의 감소는 소규모 가족농이 농업을 포기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향후 5년간의 가구 소득 변화에 대한 질문에 80%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20%는 오히려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농촌마을 내에 별다른 일자리나 새로운 소득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농업소득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

구분	빈도 수	비율
크게 감소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1	5.0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5	25.0
큰 변화가 없다	11	55.0
소폭 증가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2	10.0
크게 증가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0	-
잘 모르겠다	1	5.0
합계	20	100.0

〈표 2-9〉 5년 전 대비 소득 증가 소득원

구분	빈도 수	비율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0	-
임금 소득	2	10.0
비농어업 사업소득(자영업, 기타 사업체 등)	0	-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1	5.0
없음	17	85.0
합계	20	100.0

〈표 2-10〉 5년 전 대비 소득 감소 소득원

구분	빈도 수	비율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8	40.0
임금 소득	0	-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0	-
없음	12	60.0
합계	20	100.0

〈표 2-11〉 향후 5년 변화 예상 소득

구분	빈도 수	비율
크게 감소할 것	0	-
소폭 감소할 것	4	20.0
큰 변화가 없을 것	16	80.0
소폭 증가할 것	0	-
합계	20	100.0

1.3.3.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

■ 송국2리 마을의 가구 총 소비 및 세부항목

송국2리 마을의 가구당 총 지출을 살펴보면 연간 1천만 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4천만 원이 넘는다고 응답한 가구는 없었다.

농업에 들어간 경영비는 응답한 7개 농가에서 모두 1천만 원이하가 들어갔다고 응답하였다. 농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2〉 가구 총지출(작년 소비지출 규모)

구분	빈도 수	비율
1천만원 이하	10	50.0
1천만원~2천만원	3	15.0
2천만원~3천만원	5	25.0
3천만원~4천만원	2	10.0
4천만원 이상	0	-
합계	20	100.0

〈표 2-13〉 농어업 경영비(작년 소비지출 규모)

구분	빈도 수
1천만원 이하	7
1천만원~2천만원	0
2천만원~3천만원	0
3천만원 이상	0
합계	7

송국2리 마을 주민들의 소비 활동 가운데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 의류, 이발 등 생활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의료비

로 나타나 농촌마을 주민들의 소비 형태는 주로 생활비와 의료비로 나타났다.

5년 전과의 소비 지출 규모는 응답가구의 대부분이 거의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2-14〉 소비활동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15	3	2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0	8	8
의료비(진료, 약품구입등)	4	8	5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0	0	2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1	1	2
교통/통신비	0	0	1
부채상환	0	0	0
합계	20	20	20

〈표 2-15〉 5년 前과 현재의 소비지출 규모

구분	빈도 수
크게 감소하였다	0
소폭 감소하였다	2
큰 변화가 없다	15
소폭 증가하였다	3
크게 증가하였다	0
잘 모르겠다	0
합계	20

2. 마을의 경제현황

2.1. 농업활동의 실태

2.1.1 송국2리 마을의 농업특성

■ 주요 생산 작목의 현황과 특성

송국2리 마을의 주요 생산 농산물은 벼, 양송이, 수박, 딸기가 주(主)를 이룬다. 특히 최근 들어 양송이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귀농하는 가구가 재배하는 경향이 강하다. 양송이는 인근 부여군 석성면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많이 재배하고 있으며 적은 농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기에 귀농자에게 주목 받는 작물 가운데 하나이다.

〈표 2-16〉 송국2리 주요 작물과 경작 면적

주요작목	총 경작면적 및 수확량	생산 및 가공 방식	유통 및 판매방식
벼	약 30,000평(10ha)	개별농가 단위 생산	지역농협
양송이	약 850평 (50평 × 17동)	개별농가 단위 생산	
수박, 딸기	약 3,200평 (200평 × 16동)	개별농가 단위 생산	지역농협
왕대추	약 1,200평 (200평 × 6동)	개별농가 단위 생산	
고추, 깨	약 500평	개별농가 단위 생산	자가소비, 일부 출하

■ 작목별 경작방식 및 생산조직

송국2리 마을의 경우 모든 작물의 경작은 개별농가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별한 경작 방식이나 생산 조직을 찾아 볼 수 없다.

■ 과거 5년간의 농업 변화

송국2리 마을의 농가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농업활동 변화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7농가 모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단, 현지 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변화는 양송이 재배 농가와 면적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2-17〉 농업활동의 과거(5년 전)과의 면적비교

구분	빈도 수
크게 감소하였다	0
소폭 감소하였다	0
큰 변화가 없다	7
소폭 증가하였다	0
크게 증가하였다	0
잘 모르겠다	0
합 계	7

2.1.2. 마을농업의 대응 실태

■ 농업의 변화에 따른 농가의 대응 현황

송국2리 마을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농업 규모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5.7%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고 응답하여, 앞으로도 송국2리 마을의 농업 활동에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농업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농가의 14.3%(1가구)에 불과하여 송국2리 마을도 다른 일반 농촌마을처럼 농업 후계자 문제가 매우 심각한 편이다.

〈표 2-18〉 향후 농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구분	빈도 수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0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6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1
모두 그만두고 싶다	0
잘 모르겠다	0
합 계	7

〈표 2-19〉 농업 후계자 유무

후계자 유무	있다	없다	합 계
	1	6	7

현재의 농업 경영주가 은퇴 후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자식에게 상속하거나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다. 농업후계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표 2-20〉 은퇴 시 농지 계획

구분	빈도 수	비율
자식에게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게 하겠다	1	14.3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2	28.6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	0	-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0	-
구체적 계획이 없다	4	57.1
현재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0	-
합계	7	100.0

한편, 설문조사 응답자의 71.4%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된다면 농산물 직거래 또는 직판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의사 나타났다. 이 점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로 팔아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최근 주목 받고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운영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은 소규모 로컬푸드 매장 또는 면단위의 로컬푸드 매장 설치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표 2-21〉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

구분	빈도 수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0
직거래 및 직판장 운영	5
농어가 민박 및 음식점 운영	0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0
없다(하고 싶지 않다)	2
합계	7

2.2. 영농방식의 시도와 변화

2.2.1. 영농방식의 변화

■ 영농방식과 형태의 변화

최근 약 10년 간 영농방식의 변화는 찾아 볼 수 없다.

2.2.2. 농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 작목별 주요 판로 및 유통방식의 실태와 변화

송국2리 마을에서 생산된 작목들은 대부분 지역농협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으며, 특별히 유통 방식의 변화가 있거나 변화를 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

■ 마을/지역단위 유통·판매조직의 형성

송국2리 마을 자체적으로 구축된 유통, 판매조직은 없으며, 대부분이 지역단위 농협(동부여 농협)을 통해 유통된다.

2.2.3. 마을농업의 최근 시도

송국2리 마을 전체의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최근 몇 년 간 양송이 재배

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왕대추 재배는 새롭게 시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3. 비농업활동의 특성 및 변화

2.3.1. 마을의 산업 현황

송국2리 마을 내 특별한 산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다른 산업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2.4. 공동체-기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

2.4.1. 마을의 공동체-기반 경제조직의 실태와 변화

송국2리 마을 내 경제 공동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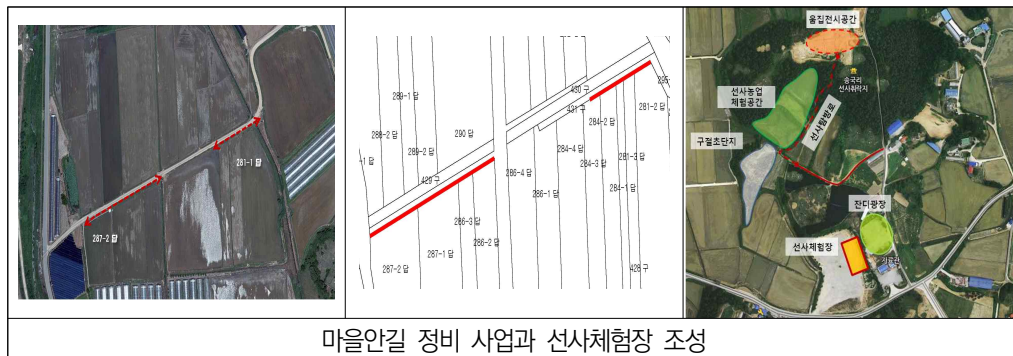
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 부여군 소부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2011년~2015년)

총 사업비: 5,730백만 원

송국2리 마을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정비사업(용배수로 정비, 도로 폭 확장), 마을회관 리모델링, 선사체험장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이 있다.

〈그림 2-5〉



■ 행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소부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송국2리의 경우는 현재 사업에 대한 효과를 찾아 볼 수 없다. 대부분이 생활환경, 정주환경 정비 측면의 하드웨어적 사업이었기에 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사업성과는 매우 미비하다.

3. 송국2리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3.1. 송국2리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 전업농 중심으로 경제활동 유지

송국2리 마을은 주로 벼농사, 양송이 재배를 하는 전업농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업이외에 다른 경제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농업 외에 다른 경제 활동 기반은 매우 약하며, 현재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경제 활동을 모색한다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단, 고무적인 현상은 벼농사 중심에서 양송이, 왕대추, 수박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벼농사만으로는 농업 소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 은퇴농이 늘어나는 동시에 전업농도 증가하는 추세

최근 송국2리 마을처럼 고령농가가 많은 농촌마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은퇴농가가 늘어남과 동시에 전업농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특히 벼농사 중심의 마을에서 농지를 집적화, 규모화 하는 추세가 강하다.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의 농작업이 기계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노동력 투입으로 많은 면적의 경작이 가능해 졌다. 또한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 양송이 재배를 위한 귀농 증가

최근 송국2리 마을로 귀농해 온 3가구 가운데 2가구는 전업으로 양송이를 재배하고 있다. 양송이는 송국2리와 가까운 부여군 석성면이 주산지이나, 점점 주변 마을로 재배 농가와 면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송이 재배는 적은 면적에 가능하고 재배 기술도 어렵지 않아 귀농인들에게 인기 있는 작목이다.

3.2. 송국2리 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 벼농사의 규모화, 전업화 지속

현재 벼농사의 재배기술, 재배조건, 기계화 등을 고려하면 송국2리 전체 논은 2~3개 농가가 경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머지않아 벼농사의 경우 소규모 영세농은 사라지고 대규모 전업농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소화, 고령화 되어 있는 일반 농촌 마을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농경지(특히 논) 공간 재편, 농업노동력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한 ‘마을영농(일본의 집락영농)’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 본다.

■ 귀농자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작목 재배 시도 가능성

향후 송국2리로 들어오는 귀농(귀촌)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도 귀농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송국2리의 경우 집과 경작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은퇴 고령농가의 대부분이 외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집과 토지를 물려주려는 경향이 강해, 빈집과 농지를 외부인(귀농예정자)이 매입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귀농(귀촌)자를 위한 효율적인 주택과 농지 제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필요

송국2리는 농업이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은퇴농들에게 고정된 수입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매우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그렇다고 해서 송국2리 마을 내에 소득시설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면소재지나 부여읍내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4. 20년사 연구 관점에서의 송국2리(송현리) 마을의 인구 변화

4.1. 송국리의 유래

부여군 소촌면 송국리는 백제 이전부터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통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인류가 의식주를 해결하던 장소였음이 밝혀진 지역이다. 조선말 하국리, 하평리, 신송리 일부와 노성군 소사면 덕상동 일부를 병합하여 신송과 하국의 이름을 따 송국리라 하였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취락지로 가장 유명한 선사취락지가 송국리에 위치한다.

4.2. 최근 30년 간 세대수와 인구 변화

2017년 8월 현재 송국2리 마을의 실거주 가구는 18가구로 조사되었다.

송국2리 마을의 과거 30년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1985년 140명에서 2017년에는 39명으로 30년 간 무렵 101명 72.1%나 줄었다. 가구수도 1985년 34가구에서 2017년 18가구로 거의 절반이 줄었으며, 세대당 평균 가족수 또한 4.12명(1985년)에서 2.17명(2017)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표 2-22〉 송국2리 마을의 세대수와 인구 변화(1985년, 1988년, 2012년, 2017년)

연도	1985	1988	2012	2017
세대수(가구수)	34	33	23	18
인구	140	113	59	39
세대당 평균 가족수	4.12	3.24	2.57	2.17

주) 2012년 자료는 부여군 소촌면 내부 자료

■ 송국2리 마을의 연령대 인구 변화 양상

송국2리 마을의 과거 30년 간 연령대 인구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30대 미만의 젊은층 인구는 급감하였고 반대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30대 미만 인구비율: 59.3%(1985) → 52.2%(1988) → 10.2%(2017)

60대 이상 인구비율: 15.0%(1985) → 19.5%(1988) → 53.8%(2017)

2017년 현재 송국2리 마을의 30대 미만 인구비율이 10.2%에 불과하다는 점은 향후 마을의 존속 여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23〉 송국2리 마을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1985년, 1988년, 2017년)

구분	1985년		1988년		2017년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0~20대	70	50.0	49	43.4	-	-
30대	13	9.3	10	8.8	4	10.2
40대	14	10.0	12	10.6	1	2.6
50대	22	15.7	20	17.7	13	33.3
60대	14	10.0	14	12.4	10	25.6
70대	7	5.0	8	7.1	11	28.2
합계	140	100.0	113	100.0	39	100.0

4.3. 최근 10년 간 전입 현황

최근 10년 간 송국2리 마을에 전입해 온 가구는 총 3가구이며, 인구는 8명이다. 절대적 숫자는 작지만 현재 송국2리의 총 세대수의 16.7%, 총 인구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송국2리 마을의 존속 여부는 귀촌(귀농)인구의 유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국2리 마을로 전입한 3가구 가운데 2가구는 양송이버섯을 전업으로 하고 있으며, 1가구는 작은 면적에 자가소비형 농업을 하고 있다. 인근 지역인 부여군 석성면이 양송이버섯 재배로 유명한 곳으로 점차 송국2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송이버섯은 작은 농지에 고수익을 올리는 작목으로 귀농인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5. 송국2리 마을의 가족 구조 변화

5.1. 핵가족화 급증

송국2리 마을의 가족 구조 변화의 가장 큰 변화는 30여 년 전 핵가족 비율이 66~67%였던 것이 현재는 100%가 핵가족이다. 반면 직계가족 유형은 전혀 없다.

독신 가구 비율은 1985년 5.9%에서 2017년에는 27.8%로 약 4.5배나 증가했다. 단 송국2리의 경우 부부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현재 33.3%로 일반 농촌마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표 2-24〉 송국2리 마을의 가족 유형 변화(1985년, 1988년, 2017년)

가족 유형		1985		1988		2017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핵가족	독신	2	5.9	3	9.1	5	27.8
	부부	6	17.6	10	30.3	7	38.9
	부부+자녀	12	35.3	7	21.2	6	33.3
	편부부+자녀	3	8.8	2	6.1	-	-
	미혼 형제자매	-	-	-	-	-	-
	소계	23	67.6	22	66.7	18	100.0
직계가족	(편)부모+부부+자녀	9	26.5	7	21.2	-	-
	(편)부모+(편)부부+자녀	-	-	1	3.0	-	-
	(편)부부+손자녀	1	2.9	3	9.1	-	-
	소계	10	29.4	11	33.3	-	-
기타		1	2.9	-	-	-	-
합계		34	100.0	33	100.0	18	100.0

6. 송국2리 마을 주민의 취업 구조 변화

6.1. 송국2리 마을의 취업 구조 변화

송국2리 마을가구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전업농 비율은 1985년 85.3%에서 2017년에는 44.4%로 줄어들었다. 전업농이 겸업농으로 전환된 것이라 아니라, 농업을 그만둔 비농업 비율이 1985년 2.9%에서 2017년에는 50.0%(무직 7가구 포함)로 늘어났다. 고령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을 그만두는 은퇴농이 늘어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표 2-25〉 송국2리 마을의 농업/비농업 가구수 비교(1985년, 1988년, 2017년)

가족 유형		1985년		1988년		2017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취업 구조	농업 전업	29	85.3	27	81.8	8	44.4
	농업, 비농업 겸업	4	11.8	5	15.2	1	5.6
	비농업	1	2.9	1	3.0	9	50.0
합계		34	100.0	33	100.0	18	100.0

7. 송국2리 마을 농업 구조

7.1.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를 1988년과 2017년을 비교해 보면, 40대 미만의 청년층 경영주가 1988년에는 약 40%였으나 2017년에는 한 명도 없다. 한편 60대 이상 고령 경영주 비율은 1988년 26.7%에서 2017년 66.7%로 고령 경영주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표 2-26〉 송국2리 마을 농업 경영주의 연령 분포(명, %)

구분	1988년		2017년	
	명	비율	명	비율
30세 미만	1	3.3	-	-
30대	3	10.0	-	-
40대	8	26.7	-	-
50대	10	33.3	3	33.3
60대	8	26.7	6	66.7
계	30	100.0	9	100.0

송국2리 마을의 농업가구가 매우 적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60대 이상 고령 농가비율을 보면 송국2리가 66.6%로 전국 평균 71.1%, 충남 평균 73.4%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송국2리 마을과 전국, 충남의 농업 경영주 연령별 비율

구분	송국2리 마을 (2017년)	전국 (2016)	충남 (2016)
40세 미만	-	1.1	0.9
40대	-	6.4	5.4
50대	33.3	21.4	20.3
60대	33.3	31.7	31.6
70대 이상	33.3	39.4	41.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

7.2. 마을 농경지 면적의 변화

최근 호당 경작 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 은퇴농의 증가로 인해 은퇴농이 경작하던 농지를 다른 사람에 임차 또는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은퇴농 농지를 임대, 매입하여 규모화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표 2-28〉 송국2리 마을의 농경지 면적 변화(단위: 평)

구분	1985년	1988년	2017년
마을 내 농경지 면적	81,849	75,431	65,000
농가 호수	33	32	9
호당 경작 면적	2,480	2,357	7,222

주) 2017년 데이터는 이장 구두 조사 결과임. 또한 마을 내 농경지 소유 면적과 호당 경작 면적에는 차이가 있음(즉 임대 또는 임차하는 면적 차이)

송국2리 마을의 농가당 평균 농경지 면적이 전국 평균이나 충남 평균보다 높은 이유는 은퇴농가의 농지를 마을 내 다른 농가가 임대 또는 매입하여 농지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을 내 한 농가는 벼농사 20,000평, 밭농사 2,000평, 시설채소 800평 총 22,800평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송국2리 마을처럼 일반 농촌마을에서는 고령농가에서 은퇴 후 농지를 마을 주민 또는 외부인에게 임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러한 은퇴농의 농지를 임대 또는 매입하여 농업을 규모화해 나가는 경향이 뚜렷하다. 특히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의 영향으로 한 농가(1~2명)가 대규모 면적을 경작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로 경작하지 않으면 수지를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이다.⁸⁾

〈표 2-29〉 송국2리 마을의 농가당 평균 농경지 면적 전국, 충남과 비교(단위: ha)

	송국2리 마을 (2017년)	전국 (2016년)	충남 (2016년)
호당 경작 면적	2.39	1.54	1.68

주) 전국, 충남 데이터는 충청남도(2017), 충청남도 3농정책 3단계 추진계획 보고서 참고

8) 서천지역 벼를 경작하는 농가 인터뷰에 의하면 보통 한 농가(노동력 2~3명)에서 벼농사의 경우 30,000평에서 50,000평까지는 경작할 수 있다고 한다.

제3장

논산시 채운면 야화2리

1.1. 마을경제의 일반현황

1.1.1. 야화2리의 경제적 특성

■ 인구 현황

2017년 현재 야화2리의 전체인구(실거주 인구)는 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여성은 46명으로 54.1%, 남성은 39명으로 45.9%를 차지했다. 일반 농촌마을과 같이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민등록상에 등록은 됐지만 마을에 상주하지 않는 4가구가 있다. 이들 가구주는 주로 외지사람들로 마을의 빈집을 구입해 주소만 마을에 두고 외지에서 장사나 건축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가끔씩 마을에 왔다가 잠깐 머물다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도 이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들 또한 마을주민과의 교류 의향이나 의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마을사람들도 이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표 3-1〉 야화2리의 성별 및 연령 현황(실거주자 기준)

구분		빈도수(%)
성별	여성	46(54.1)
	남성	39(45.9)
	합계	85(100.0)

주: 1985년과 2003년 자료는 박대식·박경철(2003)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p.44 참고했고
2017년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시대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1985년 야화리의 전체 인구는 232인이었다. 그 가운데 30세 미만이 122인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6%를 차지했다. 1960대 이후 전형적인 베이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30대(11.2%), 40대(10.3%), 50대(11.7%), 60대(10.0%)는 10% 안팎의 비율을 보였고, 70세 이상은 10명으로 4.3%에 불과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형 인구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8년이 지난 2003년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전체 112명의 인구 가운데 30세 미만은 27인 24.1%로 1985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28인으로 18.8%를 차지해 1985년에 비해 비율 상으로 배가 늘었고 70세 이상은 28인 25%로 비율 상으로 무려 6배가 증가했다.

2017년 현재 야화2리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를 보면, 30세 미만 12인으로 전체의 14.1%, 30대와 40대는 없고, 50대는 16인으로 18.8%, 60대는 20인으로 23.5%, 70세 이상은 37명으로 43%를 차지한다. 7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3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 야화2리의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의 변화(실거주자 기준)

구분		빈도수(%)		
		1985	2003	2017
연령	30세 미만	122(52.6)	27(24.1)	12(14.1)
	30대	26(11.2)	8(7.1)	0(0.0)
	40대	24(10.3)	13(11.6)	0(0.0)
	50대	27(11.7)	15(13.4)	16(18.8)
	60대	23(10.0)	21(18.8)	20(23.5)
	70세 이상	10(4.3)	28(25.0)	37(43.6)
	합계	232(100.0)	112(100.0)	85(100.0)

주: 1985년과 2003년 자료는 박대식·박경철(2003)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p.54 참고했고
2017년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 행정리 전체 가구 현황 및 가구 특성

야화2리의 전체가구 수는 39가구(실거주자는 36가구)로 조사되었다. 그 가운데 1인가구는 9가구, 2인가구가 20가구, 3인가구가 6가구, 4인가구가 2가구, 6인가구가 2가구, 7인가구가 1가구로 조사됐다.

가족 구성형태를 보면, 2인가구 20가구 중에 19가구는 부부이고 1가구만 자매로 구성되었다. 3인가구의 경우 모두 6가구로 그 구성 형태는 모+부부가 1가구, 부부+남동생이 1가구, 부+부부가 1가구, 부부+손자가 1가구, 부부+자녀가 2가구로 가족 구성 형태가 제각각 달랐다. 4인 가구는 2가구로 그 구성 형태는 부모+부부가 1가구, 부+부부+자녀가 1가구로 조사됐다. 5인가구는 없었으며 6인가구는 2가구로 그 구성 형태를 보면, 부부+아들+손자가 1가구, 모+부부+자녀가 1가구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7인가구는 1가구로 부부+아들부부+손자(3)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 3-3〉 야화2리의 가구형태 변화(실거주자 기준)

구분		빈도수(%)			구성 형태(2017년)
		1991	2003	2017	
가구 수	1인 가구	1(2.0)	13(28.3)	9(23.1)	독거
	2인 가구	11(21.6)	18(39.1)	20(51.3)	부부 1가구 자매 1가구
	3~4인 가구	15(29.4)	7(15.2)	7(17.9)	모+부부 1가구 부부+남동생 1가구 부+부부 1가구 부부+손자 1가구 부부+자녀 2가구 부모+부부 1가구 부+부부+자녀 1가구
	5인 이상	24(47.1)	8(17.4)	3(7.7)	부부+아들+손자 1가구 모+부부+자녀 1가구 부부+아들부부+손자 1가구
	합 계	51(100.0)	46(100.0)	39(100.0)	
	평 균	4.5명	2.4명	2.2명	

야화2리의 가구 형태 변화를 보면, 1991년 전체 51가구 중 1인 가구는 1가구로 2%에 불과했으나 12년 뒤인 2003년에는 전체 46가구 중 13가구로 28.3%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다 2017년에는 전체 39가구 가운데 9가구로 23.1%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이 마을로 귀농·귀촌한 가구로 인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인 가구의 경우, 1991년 전체 51가구 가운데 11가구로 21.6%를 차지했으나 12년 후인 2003년에는 전체 46가구 가운데 18가구로 39.1%를 차지했다. 그 후 2017년에는 전체 39가구 가운데 20가구로 51.3%를 차지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가구와 2가구 비중을 합하면 전체의 69.2%로 대부분이 1~2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3~4인 가구의 인구 구성 형태를 보면, 1991년에는 전체의 51가구 중 15가구로 29.4%를 차지했고, 2003년에는 전체 46가구 중 7가구로 15.2%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아 2017년에도 전체 39가구 가운데 7가구로 17.9%를 차지했다.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2017년 조사 결과 가족 구성 형태는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구형 형태를 보면, 모+부부 1가구, 부부+남동생 1가구, 부+부부 1가구, 부부+손자 1가구, 부부+자녀 2가구, 부모+부부 1가구, 부+부부+자녀 1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인 가구 이상을 보면, 1991년에는 전체 51가구 중 24가구 47.1%를 차지했다. 약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5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2003년에는 전체 46가구 중 8가구로 17.4%를 차지했고, 2017년에는 전체 39가구 중 3가구로 7.7%에 불과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91년부터 야화2리의 인구 구성 변화는 1~2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고 3~4인 가구는 다소 감소했고, 5인 이상 가구는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을인구 감소의 원인 중 하나는 가구당 평균 인구 감소에 기인한다. 1991년 가구당 평균인구는 4.5명이었으나 이후 2003년에는 2.4명, 그리

고 2017년에는 2.2명으로 1991년의 가구당 평균인구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그나마 야화2리는 평야지대이고 교통 및 주거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편리해 감소폭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과거(10년 전) 대비 현재 가구 수 및 인구의 증감의 폭은 크지 않다. 외부로 유출되거나 자연사한 경우에 유출된 인구, 자연사한 인구와 동일하게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야화2리의 농가는 전체 39가구에서 15가구로 38.4%가 농사를 짓고 있다. 과거 농가가 21가구에서 은퇴농가 5가구를 포함하여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화2리에 귀농한 가구는 1가구로 부부와 자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촌가구는 13가구로 귀농보다 귀촌가구가 더 많다.

야화2리는 앞선 산업화 도입으로 농가의 비율이 낮다. 마을주민 중 1인이 서울에서 미장기술을 배워 마을에 전파하였고, 과거에는 미장 기술자가 60% 이상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미장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 마을의 특성

야화2리의 마을유래는 다음과 같다. 들에 핀 꽃이라 하여 들꽃미 야화라 하였다. 은진군 화산면의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석현리를 병합하여 야화리라 하고 논산군 채운면에 편입 1996년 3월 1일 논산시 채운면에 속하게 되었다(1996년 3월 1일 논산군이 시로 승격 되었다). 자연부락은 돌고개, 들꽃미 · 야화 · 하리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야화1.2.3리로 되어 있으며 인구는 144세대에 42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야화는 채운의 교육의 요람이다. 1936년 6월 10일 채운보통학교가 개교하였고, 1951년 9월 1일 채운국민학교로 교명이 바뀌고 1996년 3월 1일 채운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이 마을에서 석기시대의 돌칼이 나왔다.(논산시지, 2005; 논산시청 홈페이지).

야화2리는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두레가 있었지만 이후 산업화로 인한 인

구의 외부유출과 기계화로 인해 두레의 전통은 사라졌다. 현재 마을 주민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은 1년에 1~2번 마을 총회를 제외하면 이렇다할 활동이 없다. 물론 마을 내 애경사 시 마을주민이 함께 하기는 하지만 두레, 대보름 행사와 같은 전통적인 공동체 활동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1.1.2. 마을자산 및 경제인프라

■ 자연과 생태

야화리 마을은 원래 현재 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잦은 침수로 인해 피해를 많이 받아 조선 중엽부터 마을주민들은 서서히 이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 평야지역이지만 지금은 마을은 약간 고지대이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농경지는 여전히 비가 많이 올 때면 잦은 침수로 인해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미곡수탈을 위해 이곳으로 들어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시설의 보완작업을 시작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이 현재의 채운천 제방을 쌓는 작업이었다. 현재 마을 남쪽으로 길게 난 채운천 제방은 일제가 주민들을 동원해 쌓은 것이다. 그 후로 야화리는 홍수 피해를 크게 입지는 않아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마을에 대형양수펌프시설도 만들어져 비가 많이 와도 물을 자동으로 논산천으로 뚫어낼 수 있어 큰 비로 인한 침수 걱정은 사라지게 됐다.

■ 역사 문화 자원

역사문화자원으로 채운 마을 서남쪽에 원목다리가 있다.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193-2에 위치하며, 충남유형문화재 제10호(논산시, 2005a)인 이 다리는 고려 말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전에는 호남쪽에서 과거 등을 보

기 위해 이 지역을 지날 때 보통 배를 타고 건넜는데 이 다리가 만들어지면서 편안하게 이 지역을 지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다리건설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문에 이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아 야화2리 마을은 고려말 무렵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마을 경관

인접한 교통 인프라와 조용한 마을환경으로 외부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마을 1km 이내에 호남선 철도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마을입구가 주요도로와 떨어져 상대적으로 조용한 마을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 내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면 바로 유입인구로 그 자리가 채워지고 있다.

〈그림 3-1〉 마을 인근에 위치한 철도



■ 마을의 경제인프라 현황

논산시의 지원으로 농산물 보관창고가 2003년에 지어졌으며, 약 60여 평으로 농기계 및 곡물 등을 보관하고 있다.

야화2리 마을입구에는 과일선별장이 있다. 영농조합법인 형태인 이 과일선별장은 3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는 야화2리 인근에 위치한 연산면 주민이다. 현재 마을주민 중에 2가구만 이곳으로 과일을 출하할 뿐 대부분은 인근 지역의 과수농가가 이곳에 과일을 출하하기 때문에 마을주민의 소득 향상과는 크게 상관은 없다. 과수농가가 많은 않는 이 마을에 선별장이 들어온 이유는 야화2리가 이 지역의 중심지로서 교통 연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그림 3-2〉 마을 내 시설



■ 마을 공공시설의 현황과 활용도

야화2리에 위치한 공공시설은 없으나 채운면 내에 위치하거나 인근마을인 야화1리에 주민자치센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작은도서관이 위치한다.

채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4개 프로그램(노래교실, 풍물교실, 국선도교실, 웰빙댄스)을 주 2회 2시간씩 운영하며, 면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각각2개소가 있다. 면사무소 내에 채운보건지소 및 인근마을 채운우기보건진료소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채운면 야화1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약 2천 권 정도의 장서보유하며 채운면 주민이라면 누구나 열람 및 대출 가능하다(조은정·문정환, 2011).

1.1.3.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 마을 주민의 주요 경제활동

야화2리의 가구 구성에 따른 농업 유형은 위의 [표]와 같다. 먼저 1인 가구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5가구였고 나머지는 농업에 종사했다. 그 중에서 쌀농업은 2가구이고 밭농업도 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쌀농업만 하는 가구는 1가구이고, 밭농업만을 하는 가구도 1가구였으며, 쌀농업과 밭농업을 같이 하는 가구도 1가구였다. 또한 축산업을 하는 가구도 1가구였다. 이 가구는 채운면이 아닌 은진면에서 농장을 두고 소 30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3-4〉 가구별 농업 유형(중복 응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	5	0	7	0	3	0	1	0	0	0	1	0	0	0
쌀농업	2	0	9	0	1	0	1	0	0	0	1	0	1	0
밭농업 (노지)	0	2	0	8	0	1	0	0	0	0	0	0	0	0
시설원예농업	0	0	0	0	0	0	0	1	0	0	0	1	0	1
축산업	0	1	0	0	0	0	0	0	0	0	0	0	0	0
임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7	3	16	8	4	1	2	1	0	0	2	1	1	1

2인 가구의 농업 유형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7가구였고 나머지 17가구는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쌀농업은 9가구, 밭농업은 8가구였다. 밭농업의 경우 주로 콩, 들깨, 고추, 잡곡, 채소 등을 재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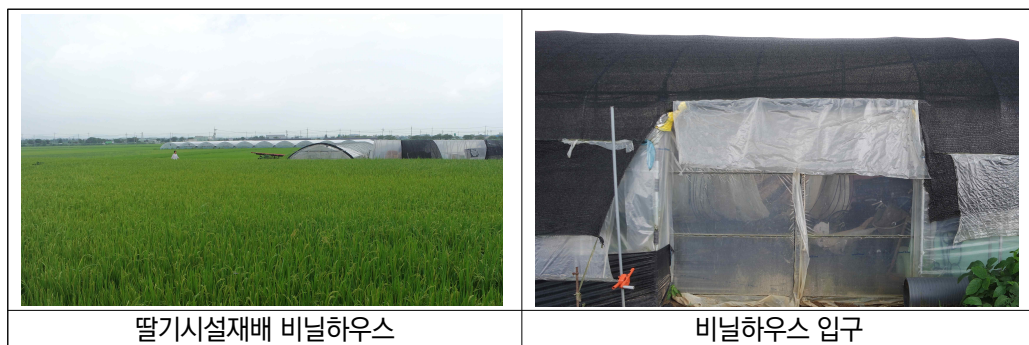
3인 가구의 농업 유형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7가구였고 나머지 2가구는 각각 쌀농업과 밭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가구는 1,000평의 쌀농사를 짓고, 나머지 1가구는 콩농사를 800평 짓고 있다. 이 가구는 콩농사를 짓는 겸업으로 남편은 건설업을, 부인은 요양보호원에서 일하고 있다.

4인 가구의 농업 유형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1가구,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1가구로 나타났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쌀농업과 시설원예 농업으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쌀농업의 규모는 30만평으로 매우 큰 면적의 경작을 하고 있으며 딸기재배도 1,400평으로 큰 규모의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인 가구는 없고 6인 가구의 농업 유형을 보면, 1가구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1가구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쌀농업과 딸기시설재배를 하고 있으며 면적은 각각 500평, 1,200평이었다.

마지막으로 7인 가구는 1가구로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 주로 쌀농업과 딸기시설재배를 하고 있으며 벼농사는 2,400평을 짓고, 딸기시설재배는 2,400평을 짓고 있다. 보통 하나의 딸기하우스 면적이 200평인 점을 감안하면 12동의 딸기하우스를 짓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마을 내 농업시설



〈표 3-5〉 가구별 경제활동 유형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가구	4	6	2	1	0	0	1
자영업	0	2	0	0	0	0	0
사무/경영/관리	0	1		1	0	0	0
생산/기능/노무직	1(건설)	2	2	0	0	0	0
판매/영업/서비스	0	3	1	1	1	0	0
주부/학생	0	0	0	2	1	2	0
퇴직/무직	3	3	0	0	0	0	0
합계	8	17	5	5	2	2	1

야화2리 주민의 경제활동 유형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는 모두 8가구이고 그 가운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4가구로 나타났다. 4가구 중 3가구는 주로 벼, 들깨, 콩을 재배하고 나머지 1가구는 약 30두의 소를 사육하는 하고 있다. 소사육장은 마을 내에 있지 않고 인근 은진면에서 하고 있다. 독신이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이 평야지역이다 보니 벼 재배 면적이 2,000~5,000평이 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반면 밭농사 규모는 100평 정도로 적었다. 비농가 중 4가구는 고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 2가구는 자녀의 보조로 생활을 하고 있고 1가구는 남편의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하며 나머지 한가구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현재 요양원에 입원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1가구는 건설업과 농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는 모두 17가구로 자매인 1가구만을 제외하면 모두 부부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가구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다. 주로 벼농사를 위주로 하고 기타 콩, 들깨, 고추, 채소, 잡곡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경작 규모는 논인 경우 1,000평에서 5,000평까지 다양했고, 밭의 경우는 100평에서 800평까지 비교적 적었다. 겸업농가는 모두 5가구이고 그 중 2가구는 부인이 요양보호사로 인근 채운면 등의 요양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고 1가구는 부인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 1가구는 부인이 농사일을 하고 남편은 노점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나머지 1가구는 부부가 농사도 지으면서 남편은 건설기능공을 하고 부인은 요양보호사로 인근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농가는 모두 7가구로 그 경제활동을 보면, 농공단지 근무, 조경업, 요양원 근무(익산 소재), 환풍기공업사 운영(가야곡농공단지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뚜렷한 경제활동이 없는 경우는 자녀와 정부의 보조 등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인 가구는 모두 5가구로 조사됐다. 그 중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1가구뿐이고 나머지 1가구는 농사를 지으면서 남편은 건축일, 부인은 요양보

호 일을 하고 있다. 비농가는 모두 3가구로 그 중 1가구는 남편은 건설기능공으로 일하고 부인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다른 1가구는 부부가 아버지를 모시면서 건설업과 사무원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1농가는 부부가 하우스기술자로서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우스 설치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4인 가구는 2가구인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1가구는 벼와 딸기농사를 전업으로 하고 있다. 벼는 30만평, 딸기는 1,400평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야화2리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딸기농사가 잘 안되는 지역이었으나 최근들어 대형 배수펌프장이 생기면서 침수 걱정이 없어지자 이 마을에도 딸기 등 시설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다른 1가구는 비농가로 남편은 건설업을 하고 부인은 요양보호사로 요양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5인 가구도 또한 2가구로 각각 농업과 비농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1가구의 가족 구성은 부부+아들+손자3으로 주로 벼농사와 딸기를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지규모는 논이 400평, 딸기시설하우스가 1,200평이었다. 보통 딸기하우스 한 동이 200평인 점을 감안하면 모두 6동의 시설하우스에서 딸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비농업을 하고 있는 다른 1가구의 경우 모+부부+자녀3으로 구성됐으며 남편은 건설업을 하고 아내는 논산읍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7인 가구는 1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구성은 부모+부부+자녀3으로 전형적인 3대가 함께 사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거주한다 보다는 같은 울타리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가장의 부모와 가장의 가족이 분리해서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은 모두 농업을 전업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주로 벼농사와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벼농사의 규모는 2,400평 정도이고 딸기도 마찬가지로 2,400평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딸기농사도 크게 짓고 있다.

■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

야화2리 마을 주민의 가구 평균 총수입과 농업소득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먼저 가구 총수입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된 전체 20가구 중 500만원~1천만원이 6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천만원~2천만원가 4가구, 0~500만원기 3가구 순이었다. 전체 20가구 중 13가구가 총수입이 2천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천만원~3천만원이 1가구, 3천만원~4천만원은 2가구가 있었고 5천만원~1억원도 4가구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인 소득 분포를 보면 중간 부문은 약하고 최저와 최고가 많이 분포된 모래시계 형태로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에 농업소득 분포를 보면, 비농가인 5가구를 제외하면 전체 15가구 가운데 500만원~1천만원이 8가구, 0~500만원이 3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천만원이상은 4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5천만원~1억원도 1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포는 1천만원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야화2리는 평야지이기 때문에 농사짓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1인당 경작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을 주민도 농업보다는 겸업소득 혹은 비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6〉 가구 총수입 및 농업소득

가구 총수입		농업소득	
구분	빈도 수	구분	빈도 수
		해당 항목 없음	5
0 ~ 500만원	3	0 ~ 500만원	3
500만원 ~ 1천만원	6	500만원 ~ 1천만원	8
1천만원 ~ 2천만원	4	1천만원 ~ 2천만원	2
2천만원 ~ 3천만원	1	2천만원 ~ 3천만원	1
3천만원 ~ 4천만원	2	3천만원 ~ 4천만원	0
4천만원 ~ 5천만원	0	4천만원 ~ 5천만원	0
5천만원 ~ 1억원	4	5천만원 ~ 1억원	1
합계	20	합계	20

야화2리 마을 주민의 연금/정부지원금과 이전소득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 <표 1-0>와 같다. 먼저 연금/정부지원금 분포 현황을 보면, 해당 항목 없음이 8가구, 0~500만원이 11가구로 전체 20가구 가운데 500만원 이하가 19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마을 내 정부의 연금과 지원금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소득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 없음인 14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가구 모두가 500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이전소득마저 낮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6〉 연금/정부지원금 및 이전소득 등

연금/정부지원금		이전소득 등	
구분	빈도 수	구분	빈도 수
해당 항목 없음	8	해당 항목 없음	14
0~500만원	11	0~500만원	6
500만원~1천만원	0	500만원~1천만원	0
1천만원~2천만원	0	1천만원~2천만원	0
2천만원~3천만원	1	2천만원~3천만원	0
3천만원~4천만원	0	3천만원~4천만원	0
4천만원~5천만원	0	4천만원~5천만원	0
5천만원~1억원	0	5천만원~1억원	0
합계	20	합계	20

■ 가구소득구조의 과거 대비 변화, 향후 전망

야화2리 마을 주민의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그 결과를 보면, ‘큰 변화가 없다’가 9가구로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하고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4가구, ‘크게 감소하였다’(연 천만원 이상)가 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폭 증가하였다’(연 500만원 내외)도 6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했듯이 마을 내 소득이 증가한 원인은 농업활동보다는 겸업소득 혹은 비농업활동을 통한 소득 증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7〉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

구분	빈도 수
크게 감소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1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4
큰 변화가 없다	9
소폭 증가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6
크게 증가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0
잘 모르겠다	0
합계	20

앞선 조사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다음 <표 1-0>에 제시되고 있다. 즉, 농가의 소득 증가 원인 가운데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7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금 소득이 6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임금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은 겸업이나 전업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소득 감소 원인으로는 농업 소득이 10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쌀 값 폭락 등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8〉 5년 전 대비 소득 증가/감소 원인

소득 증가 원인		소득 감소 원인	
구분	빈도 수	구분	빈도 수
농업 소득(농업 생산 소득)	1	농업 소득(농업 생산 소득)	10
임금 소득	6	임금 소득	1
비농어업 사업소득(자영업, 기타 사업체 등)	0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1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7	없음	8
없음	6	합계	20
합계	20		

그렇다면 야화2리 주민은 향후 소득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조사 결과 전체 20가구 가운데 15가구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4명은 오히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1가구에 불과했다.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9〉 향후 5년 변화 예상 소득

구분	빈도 수
크게 감소할 것	0
소폭 감소할 것	4
큰 변화가 없을 것	15
소폭 증가할 것	1
합계	20

■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

야화2리 마을주민의 소비활동 조사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조사항목 가운데 야화2리 주민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하는 항목은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난방비에 대한 지출이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농촌마을은 주로 개별 난방을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예상보다 많이 지출된다.

두 번째 지출이 많은 항목은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비(진료, 약품구입 등)와 교통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와 교통비는 마을 주민이 점점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앞으로도 지출이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0〉 소비활동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6	10	4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11	6	3
의료비(진료, 약품구입 등)	3	3	7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0	0	0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0	1	2
교통/통신비	0	0	4
부채상환	0	0	0
합계	20	20	20

1.2. 마을의 경제현황

1.2.1. 농업활동의 실태

■ 주요 생산 작목의 현황과 특성

마을의 주요작목은 쌀이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가 3가구, 들깨잎을 재배하는 농가가 1가구가 있다. 쌀의 경작지 면적은 대략 12,000평(600마지기)이다. 딸기는 1가구당 6동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며, 대략 1,200평 정도의 면적이다. 들깨잎을 재배하는 농가는 대략 800평을 경작하고 있다.

〈표 3-11〉 주요 재배 작목

주요작목	총 경작면적 및 수확량	생산 및 가공 방식	유통 및 판매방식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경작면적: 약 12,000평 - 참여농가: 대수의 농가 - 연간 생산량(소득): 		
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경작면적: 약 1,200평 - 참여농가: 3가구 - 연간 생산량(소득): 	인근마을과 함께 작목반 구성	
들깨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경작면적: 약 800평 - 참여농가: 1가구 - 연간 생산량(소득): 		

■ 작목별 경작방식 및 생산조직

쌀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임대료(사용료)를 지불해서 이용하며, 주민들은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직불금으로 임대비용의 부담을 덜고 있다고 하였다. 쌀은 작물재배에 기계를 이용하므로 넓은 면적의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고령의 나이가 되어도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이었다. 딸기 재배 농가는 인근마을과 함께 운영되는 작목반에 참여한다.

■ 마을의 농가단위 농업활동의 실태와 변화

야화2리 마을 주민의 영농활동은 5년 전과 비교해도 크게 변화된 것이 없이 지속되어 왔다. 전체 15농가 중 15농가 모두가 영농 규모 면에서 과거 5년과 비교해 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표 3-12〉 농업활동의 과거(5년 전)와의 면적비교

구분	빈도 수
크게 감소하였다	0
소폭 감소하였다	0
큰 변화가 없다	15
소폭 증가하였다	0
크게 증가하였다	0
잘 모르겠다	0
합 계	15

영농 규모 면에서 변함이 없는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표 1-0>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15농가 가운데 14농가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고 응답했고 1농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평화지 농업이 그렇듯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3〉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구분	빈도 수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0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14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0
모두 그만두고 싶다	0
잘 모르겠다	1
합 계	15

1.2.2. 영농방식의 시도와 변화

■ 영농방식과 형태의 변화

평야지인 야화2리는 전통적으로 수도작을 위주로 농사를 지어왔다. 마을 주위로 제방을 막아 물의 범람을 막고 관개시설을 완비했지만 홍수 등 비가 많이 오면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벼재배 이외에는 가능한 작목이 없었다. 물론 마을 내 조그마한 밭에는 고추, 들깨, 콩 등을 재배하기도 하고 논두렁에도 각종 콩을 재배하기도 하지만 마을 농지의 대부분은 논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야화2리에도 시설하우스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정적 배경은 관배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마을 내 대형 양배수펌프가 설치되면서 비가 많이 오면 자동으로 배수를 할 수 있어 침수의 위험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을에서는 서서히 시설하우스가 들어서고 그 면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재배 품목도 논산의 특산물이 딸기부터 시작해 갯잎과 고수풀재배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현재 야화2리에도 귀농·귀촌인들이 점차 유입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마을인구의 고령화로 기존 농민들은 새로운 시도를 못했지만 향후 마을로 유입된 귀농·귀촌인이 영농에 종사할 경우 시설하우스를 활용한 다양한 작목전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마을농업의 최근 시도

야화2리에서는 70대 이상의 주민들이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고령의 나이에도 딸기재배가 가능한 것은 최근 입체식 양액재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지재배 때보다 향이나 병충해 저항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입체식

양액재배는 관리가 편하고 안전하게 생산을 할 수 있어 고령화된 농가에 적극 보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마을 내 한 농가는 고수재배를 시작했다. 앞서 설명했듯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고수재배는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입체식 딸기 양액재배와 마찬가지로 땅의 지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액비 등으로 영향을 보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2.3. 비농업활동의 특성 및 변화

비농업 경제활동은 크게 인근 건설현장근무와 요양보호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인근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가구 중 5가구는 원주민이고, 나머지 3가구는 마을 내로 이주한 귀농·귀촌가구이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대부분 70대 초반 여성으로 6명이 활동하고 있다.

1.3.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1.3.1.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야화2리는 전형적인 평야지대의 마을이다. 이 마을은 원래 현재의 위치에 서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원목다리 근처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데 비가 오면 침수가 잦아 조선시대 말엽부터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침수의 위험이 완전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식량수탈을 위해 이 마을 일대에 대해 대대적인 수리공사를 실시했다. 현재 마을 앞쪽에 위치한 채운천 제방이 그 당시 일제가 주민들을 동원해 만든 것이다.

그 결과 이 마을은 침수의 위협으로부터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었고 벼농사도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경리정리사업으로 인해 벼농사의 규모화와 기계화가 촉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화와 기계화는 오히려 평야지대 농민의 탈농을 촉진시켰다. 특히 이앙기와 콤바인 등 벼농사를 위한 기계화가 도입되어 농사짓기가 편리해지자 마을 내 자본력을 가진 농민들은 면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반면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오히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일찍 마을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00 마을 이장의 설명에 따르면 야화2리는 가장 빨리 산업화에 눈을 뜬 마을이라고 했다. 그 사례로 마을 주민 중에 한 주민은 어려서 매우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기회가 되어 서울로 올라가서 운이 좋게도 미장기술을 배워 성공했다고 한다. 서울에서 자리 잡게 되자 이 사람은 고향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해 서울로 올라간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 사람을 통해 미장일을 배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서울로 올라간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미장일에 종사하자 주변 사람들은 이 마을을 ‘미장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했다.(신00 이장의 설명)

야화2리는 또한 채운면소재지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와의 교류가 늘어나 마을사람들이 많이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을로 정착하게 되었다. 평야지대이다 보니 벼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반면 면적은 점점 규모화 되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탈농을 하거나 겸업을 하고 있다. 겸업을 하는 가구의 유형을 보면, 남성은 건설업을 하거나 인근 공단에 일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인근 요양원에서 일하는 가구가 증가했다.

야화2리의 최근 특징 중의 하나는 이 지역이 원래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시설원예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대형 양수펌프시설이 들어서면서 비가 많이 와도 자동으로 양수, 배수가 되는 여건이 갖춰지자 딸기시설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딸기시설하우스는 보통 1동이 200평 규모인데 농가에 따라 적게는 6동, 많게는 12동의 딸기를 재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2. 마을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야화2리는 전형적인 평야지역이지만 면소재지와 인접하고 교통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경제 활동은 다양하게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농업부분의 변화를 보면, 벼농사는 더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 내 한 농가는 현재 30만평의 벼농사를 짓고 있다. 다른 농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규모화는 더 진전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평야지대에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내 시설재배가 증가할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 이 마을은 침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설재배가 거의 없었으나 최근 들어 시설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째는 마을 내 수리시설이 대폭 개선이 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수리시설 개선은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와서 대형 양수펌프시설이 들어서면서 양수와 배수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시설재배 농가들은 침수의 위험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는 쌀값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득작물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동안 농가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왔던 벼농사가 과잉 생산이 되면서 벼농사만으로는 소득보장이 되지 않아 작목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 논산지역은 딸기가 특화되었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도 점차 딸기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귀농인의 증가 때문이다. 야화2리는 평야지대이고 면소재지와 강경읍이 가깝기 때문에 이 마을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귀농인구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들고오고 있다. 그 가운데 농업에 뜻을 두고 들어오는 귀농인은 시설재배에 관심이 많다. 이 때문에 야화2리는 향후

시설재배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겸업 혹은 비농업인구의 증가도 확대될 전망이다. 비농업인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원래 마을주민 가운데 겸업 혹은 비농업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겸업을 하거나 탈농을 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생계활동 유형을 보면 남성의 경우 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그 외 인근 농공단지에서 일하거나 하우스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주민도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많다. 논산지역에도 요양원이 많이 생겨나자 마을주민 가운데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의 나이도 60-70대로 적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 분야의 일들은 마을주민의 생계활동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향후에도 이 분야이 활동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3.3. 정부 정책의 방향

야화2리는 전형적인 평야마을이다. 평야마을의 긍정적 측면은 이른 시기 경지정리로 인해 농사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야화2리 마을주민들도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방쌓기와 경지정리사업, 그 후 관개시설의 개량 등으로 규모화와 기계화 농업을 실현했다.

반면, 평야지 농업의 부정적 측면은 소수의 농가에 의해 농지가 독점됨으로써 마을주민의 탈농을 가속화 했다는 점이다. 한정된 농지에서 기계를 가진 소수의 농가가 농사를 독점함으로써 나머지 농가는 전업을 하거나 농촌을 떠나야만 했다. 이 때문에 야화2리는 1985년에는 인구가 232명일 정도로 큰 마을이었으나 2017년 현재 85명으로 급속하게 감소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감소 속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인구 감소는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야화2리의 또 하나의 특징은 벼농사 이외 다른 농사는 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농지가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침수의 위험이 있어 벼 이외 다른 작물의 식재는 어려웠다. 다행히 최근 들어 양배수 시설이 대폭 개선이 되어 마을 내에서도 시설재배가 가능하게 되어 논산의 특산물인 딸기 재배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야화2리와 같은 평야마을의 활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평야지농업의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이 필요하다. 평야지는 그동안 정부의 경지정리사업 등을 통해 규모화를 이뤘지만 역설적으로 농민을 농업과 농촌에서 떠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규모화, 기계화 농업 등 정부의 정책도 농민의 탈농을 부추겼다. 그 결과 평야지역 농가의 영농규모는 증가되었을지 모르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벼농사 이외 다른 농사는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벼재배 농가의 소득도 감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벼재배 농가는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재배면적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마을 내 한정된 토지는 점점 소수 대농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져왔다. 야화2리도 이러한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쳤다. 다행히 최근 들어 마을 내 양배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시설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평야지역에서의 이러한 양배수시설의 획기적 개선은 농업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벼농사만으로는 소득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논산의 특산물이 딸기재배는 마을 내 새로운 소득창출 품목으로 도입되고 있다. 따라서 평야지역의 양배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평야지 농업의 다양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마을 토지의 공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야화2리는 채운면소재지와 인접할 뿐만 아니라 주위로 철도와 고속도로가 있어 교통여건이 좋은 편이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오는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마을에 적당 두고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문제는 귀농·귀촌인이 이 마을로

들어오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을 생산할 터전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마을 내 토지가 양극화된 상태에서 대농들로부터 토지의 일부를 임대 혹은 매입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마을 내 귀농·귀촌인이 마을 주민들과 동화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마을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에게 마을 내 자신의 토지를 일부 임차해 주기도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 야화2리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들이 토지를 임대 받기는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간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토지 공유는 향후 농촌마을 내 인구 유입과 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 장

금산군 남이면 대양2리

1.1. 마을경제의 일반현황

1.1.1. 대양2리의 경제적 특성

■ 인구 현황

2017년 7월 현재 대양2리의 실거주 인구는 46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 인구는 22명, 47.8%로 남성 인구 24명, 52.2%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은 일반적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많으나 대양2리의 경우는 반대로 남성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양2리에는 실제 거주는 안 하지만 이 마을의 빈집 등을 매입해 거처를 두고 대전시 등 인근 도시에서 가끔씩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략 6가구로 파악되는 이들은 주로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왕래하고 있으며 작은 텃밭을 경작하기도 한다. 또한 마을에는 마을 내 본인의 토지에 가건물을 설치해 주말에만 와서 농사를 지으며 거처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대양2리의 마을 인구는 더 증가할 것이다.

〈표 4-1〉 성별 인구현황(2017, 실거주자 기준)

구분		빈도수(%)
성별	여성	22(47.8)
	남성	24(52.2)
	합계	46(100.0)

대양2리의 연도별 연령 현황은 [표]와 같다. 먼저 1985년 연령 현황을 보면, 전체 182명 가운데 30대 미만, 즉 30세 미만 인구는 77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30대 인구가 15명으로 8.2%이기 때문에 30대 미만 인구는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그만큼 젊은층 인구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0대는 30명으로 16.5%, 50대는 19명으로 10.4%, 60대는 26명으로 13.7%를 차지했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16명으로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표 4-2〉 연도별 연령 현황 변화(실거주자 기준)

구분		빈도수(%)		
		1985	2003	2017
연령	30대 미만	77(42.3)	5(11.9)	0
	30대	15(8.2)	2(4.8)	0
	40대	30(16.5)	9(21.4)	0
	50대	19(10.4)	7(16.7)	16(34.8)
	60대	25(13.7)	10(23.8)	8(17.4)
	70대 이상	16(8.8)	9(21.4)	22(47.8)
	합계	182(100.0)	42(100.0)	46(100.0)

주: 1985년과 2003년 자료는 박대식·박경철(2003)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p.54을 참고했고 2017년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이후 2003년 연령 현황을 보면, 전체 42명 가운데 30대 미만 인구는 5명, 30대 인구는 2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했다. 1985년에는 30대 이하 인구가 마을 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했으나 18년 이후에는 그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40대 이상의 인구 비율은 증가했고 그 가운데에서도 마을 내 고령인구 비율은 더욱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40대는 전체 42명 가운데 9명으로 21.4%를 보였고, 50대는 7명으로 16.7%, 60대는 10명으로 23.8%를 보였다. 고령인구라고 할 수 있는 70대 이상의 인구는 9명으로 전체의 21.4%를 보였다. 이는 1985년 70대 이상 인구비율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2003년의 대양2리 인구의 특징은 1985년 인구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됐다는 점이다. 1985년 인구가 182명이었는데 불과 18년 이후인 2003년에는 42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산간마을인 대양2리 주민이 대거 마을을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17년 대양2리의 인구 현황으로 보면, 40대 인구는 한 명도 없을 만큼 젊은층 인구의 고사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50대 인구와 70대 인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인구는 16명으로 전체의 34.8%로 나타났고, 70대 이상은 2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운 약 47.8%를 차지했다. 이는 대양2리의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 형식으로 ‘인구 단절’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양2리 인구 구조의 특징은 아직 50대가 건재해 일 할 수 있는 인구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2003년도 마을 인구는 42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46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또한 실거주는 하지 않지만 이 마을에 거처를 두고 주말에 한번 씩 마을을 찾는 가구도 8가구나 돼 마을 인구는 전체적으로 2003년보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인구가 2003년 무렵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다 최근 들어 증가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유는 대양2리가

산간오지 마을이긴 하지만 자연경관이 좋고 전체적으로 마을 분위기와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귀향을 하거나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 내에 불출암이라는 암자가 있어 이곳을 찾는 신자 혹은 도시인이 증가해 자연스럽게 마을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도 있어 보이고 마을 내 무속인의 증가도 마을 인구가 증가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 가구 현황 및 가구 특성

대양2리 가구형태의 변화를 보면, 1985년의 경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전체 50가구 가운데 각각 3가구(6.0%), 10가구(20.0%)로 전체의 26.0%로 낮은 반면, 3~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각각 22가구(44.0%), 15가구(3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후 2003년의 경우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전체 26가구 가운데 각각 13가구(50.0%), 9가구(34.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3~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각각 3가구(11.5%), 1가구(3.8%)로 전체의 15.3%에 불과했다. 이러한 소가족화는 이후에도 계속 심화되어 2017년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전체 30가구 가운데 14가구(46.7%), 16가구(53.6%)로 전체 가구가 2인 이하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산간오지 마을인 대양2리 마을 주민은 후속세대가 없이 독거노인 혹은 노인 부부 가구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 대양2리의 가구형태 변화

구분		빈도수(%)		
		1985	2003	2017
가구 수	1인 가구	3(6.0)	13(50.0)	14(46.7)
	2인 가구	10(20.0)	9(34.6)	16(53.3)
	3~4인 가구	22(44.0)	3(11.5)	0
	5인 이상 가구	15(30.0)	1(3.8)	0
	합 계	50(100.0)	26(100.0)	30(100.0)
	평균 가구원수	3.6인	1.6인	1.5

주: 1985년과 2003년 자료는 박대식·박경철(2003)의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 p.57을 참고했고 2017년 자료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 경제활동 특성

대양2리는 주민등록상 39가구이나 실거주 가구는 30가구이고 상주인구는 약 40명이다. 하지만 70~80%가 65세 이상으로 고령농가이기 때문에 마을의 경제활동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산간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내 경제활동은 농업 이외에는 거의 없다. 농업활동은 주로 벼농사와 밭농사가 대부분이며 1농가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밭농사로는 인삼, 갯잎, 들깨, 콩, 오미자, 약초 등 그 종류는 많으나 재배면적은 많지 않다.

이 마을에서 15년 이상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지00 이장의 말에 따르면, 대양2리는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아 고랭지 배추재배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래서 한 때는 배추재배를 통해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온난화 현상 등으로 인해 고랭지 배추 재배가 어렵게 되자 점차 작목을 전환했다. 이때 지00 이장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표고버섯으로 작목을 전환해 20여 년 동안 줄 줄곧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다.

지00 이장은 그동안 표고버섯 재배를 위한 기술도 많이 익히고 판로도 개척해 통해 수익도 많이 올렸다. 하지만 표고버섯 또한 최근 들어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표고버섯은 원래 참나무 등 원목을 활용한 재배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기술이 발달되어 배지을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표고버섯이 과잉 생산이 되고 그러 인해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보통 건표고 1kg에 20만 원 정도 하던 가격이 2017년 들어 6만 원대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여기에는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고가의 표고버섯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지00 이장은 원목 표고재배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00 이장은 금산군 보조사업으로 냉장창고를 설치해 표고버섯의 안정적 보관을 도모하고 있고 최근에는 임업후계자육성사업 자금 1억 원(70% 보조)을 받아 표고버섯 시설하우스를 확충하고 있다.

최근 대양2리에서 재배가 늘어나는 품목은 깻잎이다. 깻잎은 금산의 특산 농산물이다. 금산군 깻잎 판매량은 한해 500억 원이 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단일 품목으로는 밭작물 중에서는 인삼을 제외하면 가장 큰 소득 작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마을 내 3농가가 깻잎 농사를 짓고 있다. 아시다시피 금산군은 부추면이 깻잎 특산지로 유명하다. 추부면에는 고속도로 IC가 있어 교통여건이 좋고 기타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재배환경 등이 좋기 때문에 이 지역의 깻잎 농사는 집단화, 체계화를 이루고 있다. 깻잎 생산 농가들도 농협을 중심으로 조직화를 통해 가격협상력을 높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추부면에서 시작된 깻잎농사는 점차 금산군 전역으로 확산되어 산간농촌지역인 남이면 대양2리까지 들어온 것이다.

〈그림 4-1〉 표고버섯과 깻잎 재배 시설



〈그림 4-2〉 표고버섯 냉장창고 및 표고버섯 하우스



1.1.2. 마을자산 및 경제인프라

■ 마을의 자연과 생태

대양2리는 금산군의 남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남이면에서 대양2리로 들어오는 길로 이 마을에서 끝이 난다. 마을 뒤로는 대둔산 자락으로 둘러싸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마을을 두문골이라고 불렀다. ‘두문불출’이라는 어원처럼,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어렵고 나갈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지금은 교통 여건이 나아져 많이 좋아졌지만 이전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올라치면 마을사람들은 꼼짝없이 마을에 갇히기도 했다. 그 만큼 이 마을은 산간오지이며 인적이 드문 마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자연과 경관, 그리고 생태환경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 역사 문화 자원

조선시대 말기에는 금산군 남이면의 지역으로서 양지바른 곳이라 해서 양

짓말, 양지촌 또는 대양이라고 부름.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에 명고리, 두문동, 역평리 일부를 병합하여 대양리라 부름, 자연부락 - 대양, 도룡동, 두문동, 명고동, 입석, 유곡, 백암(출처: 금산군청 홈페이지) (출처: 금산군청 홈페이지)

대양2리 마을 내에는 약 15년 전에 건립된 불출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다. 불출암의 한자표기는 佛出庵이다. 하지만 이 암자가 위치한 대양2리가 두문동(두문골)이라서 두문불출에서 불출을 따온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암자에는 수행을 하는 스님 두 분이 기거하고 있다. 작은 암자이고 산간오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암자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석가탄신일 때에는 대전 등지에서 제법 찾아오고 휴일에도 많지는 않지만 이 암자의 신자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그림 4-3〉 마을 내 역사 문화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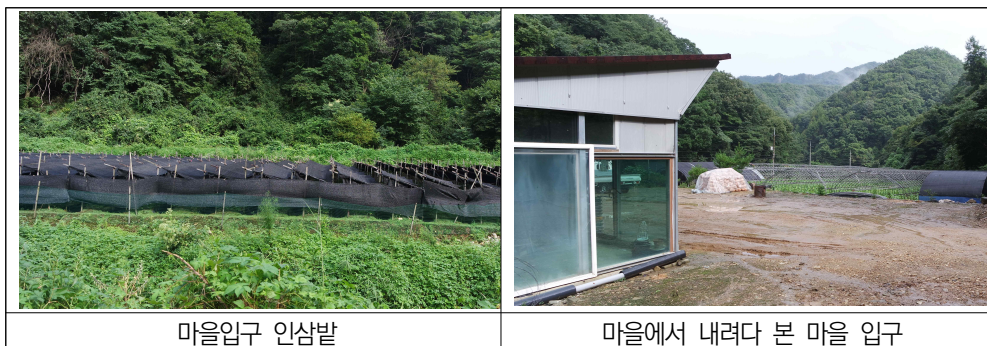


■ 마을 경관

대둔산 자락에 위치한 대양2리는 산간오지이기 때문에 주변이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있다. 또한 두문동(두문골)이라는 이름처럼 마을 앞이 작은 산으로 막혀있다. 그렇게 때문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도 있지만 조용하고 안온한 느낌도 있다. 마을에 처음 찾아가는 사람들은 마을 진입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을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일단 작은 길을 따라 계속 들어가다 보면 산비탈을 타고 농가의 모습이 보인다. 마을 앞쪽에는 작은 규모의 논과, 인삼밭, 들깨잎 하우스가 있고 중간에는 표고버섯 하우스가 있다. 농경지는 마을 앞쪽에 주로 있지만 마을 뒤쪽도 적지 않는 농경지가 있다.

대양2리는 전형적인 산간오지 마을의 경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마을과 다른 점은 마을 내 자리한 불출암의 스님이 가꾼 정원 경관이 있다. 이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들이 십 수 년 전부터 암자와 암자 주변을 틈틈이 가꾸어 지금은 아름다운 마을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와 화초 등을 수집해 암자와 그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고 있다.

〈그림 4-4〉 마을 경관



1.1.3. 마을 주민의 경제특성

■ 가구별 주요 경제 활동

대양2리 마을의 가구별 농업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6가구인 것으로 조사됐고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8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 유형을 보면, 쌀농업이 3가구, 밭농업(노지)가 5가구이었다. 3가구의 벼농사 규모를 보면, 두 가구는 각각 1,300평, 1,700평으로 크지는 않으나 나머지 1가구는 6,200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마을이 산간지역이다 보니 대체로 경지 면적은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은 주로 콩, 들깨, 오미자, 갯잎 농사를 짓는 것으로 조사됐다. 밭면적도 크지는 않아 적게는 730평, 많게는 3,490평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의 농업 유형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는 2가구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고령 혹은 기타 원인으로 비농가가 6가구나 있었으나 2인가구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고 있는 14가구의 영농형태를 보면, 쌀농업은 3가구에서 짓고 있고 밭농업은 11가구가 짓고 있다. 밭농업의 재배품목을 보면 매우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삼, 표고버섯, 들깨, 잎깻잎, 콩, 약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벼농사의 경우 적게는 420평, 많게는 3,400평이었다. 금산의 특산품인 인삼은 2가구가 각각 약 4,000평을 경작하고 있다. 또한 금산의 특산물인 깻잎농사도 3가구에서 짓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깻잎농사의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이곳 대양리에서도 깻잎농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표 4-4〉 가구별 농업 유형(중복 응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1	2	1	2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	6	0	2	0
쌀농업	3	0	3	0
밭농업(노지)	0	5	0	11
시설원예농업	0	0	0	0
축산업	0	0	0	0
임업	0	0	0	0
합계	9	5	3	11

금산군의 특산물은 아니지만 이곳 대양2리의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표고버섯은 길창배 이장이 유일하게 20년 가까이 재배해 오고 있다. 이전에 비해 규모는 적어졌지만 현재 2,600평 규모의 시설재배를 하고 있다. 최근 표고농사가 참나무가 아닌 배지로 재배되는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과잉으로 표고버섯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길창배 이장은 배지재배가 아닌 나무재배를 고수하고 있다.

대양2리 마을주민의 가구별 경제활동 유형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농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는 8가구 이고 나머지 6가구는 다른 부분에 종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스님 1가구, 수행(철학공부) 1가구, 작가 1가구, 무속인 1가구이고 나머지 2가구는 고령으로 인해 활동을 못하고 있다. 대양리가 금산군의 맨 끝 자락에 위치하고 산간지역으로 풍광이 뛰어나면서도 인적이 드물어 최근 이 마을로 무속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또한 이 마을에는 15년 전 무렵 불출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생기면서 스님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신자들과 수도승들이 끊임없이 이 마을을 찾아오고 있다.

2인 가구의 경우 11가구가 농업에만 종사하고 나머지 5가구는 겸업 또는 비농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혹은 겸업 농가들은 주로 벼, 인삼, 표고버섯, 들깨, 콩, 갯잎, 약초 농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 겸업 농가 중에는 미용실 운영 1가구, 무속인 1가구, 금산교육청 경비원 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벼농사를 지으면서 경비원을 하는 가구는 이전에 마을에서 느타리버섯 농사를 지었으나 결국 버섯농사를 포기하고 겸업을 하고 있다.

〈표 4-5〉 가구별 경제활동 유형(중복 응답)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합계
농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8	11	19
자영업	0	0	0
사무/경영/관리	0	0	0
생산/기능/노무직	0	1	1
판매/영업/서비스	2	2	4
주부/학생	2	1	3
퇴직/무직	2	1	3
합계	14	16	30

■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

대양2리의 가구 평균 총수입과 농업 소득 현황은 다음 <표 2-0>과 같다. 먼저 가구 총수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1천만원~2천만원이 전체 20가구 중 13가구로 가장 많았고 2천만원~3천만원은 4가구, 500만원~1천만원은 2가구로 나타났다. 500만원 이하도 1가구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천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수입 가운데 농업소득 분포를 보면, 비농가인 6가구를 제외한 14가구 가운데 1천만원~2천만원이 9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천만원~3천만원이 3가구, 500만원~1천만원이 2가구로 나타났다. 농업소득 분포는 가구 총수입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산간마을인 대양2리의 소득원이 농업소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6〉 가구 총수입 및 농업소득

가구 총수입		농업소득	
구분	빈도 수	구분	빈도 수
-	-	해당항목없음	6
0~500만원	1	0~500만원	0
500만원~1천만원	2	500만원~1천만원	2
1천만원~2천만원	13	1천만원~2천만원	9
2천만원~3천만원	4	2천만원~3천만원	3
3천만원~4천만원	0	3천만원~4천만원	0
4천만원~5천만원	0	4천만원~5천만원	0
5천만원~1억원	0	5천만원~1억원	0
합계	20	합계	20

농업소득 이외 대양2리 마을주민의 연금/정부지원금 및 이전소득 등 현황은 다음 <표 2-0>과 같다. 먼저 연금/정부지원금을 보면, 해당 항목 없음이 전체 20가구 가운데 19가구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0~500만원이 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기초연금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와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산간지역인 대양2리의 주민들은 연금/정부지원금 수혜가 낮다는 사실을 나타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전소득 등의 결과를 보면, 해당 항목 없음이 15가구로 가장 많았고 있다고 해도 0~500만원으로 매우 적었다. 농업소득은 물론 이전소득 등도 낮아 대양2리 주민의 생계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연금/정부지원금 및 이전소득 등

연금/정부지원금		이전소득 등	
구분	빈도 수	구분	빈도 수
해당 항목 없음	19	해당 항목 없음	15
0~500만원	1	0~500만원	5
500만원~1천만원	0	500만원~1천만원	0
1천만원~2천만원	0	1천만원~2천만원	0
2천만원~3천만원	0	2천만원~3천만원	0
3천만원~4천만원	0	3천만원~4천만원	0
4천만원~5천만원	0	4천만원~5천만원	0
5천만원~1억원	0	5천만원~1억원	0
합계	20	합계	20

■ 가구소득구조의 과거 대비 변화, 향후 전망

대양2리 마을주민의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양2리 마을주민의 소득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8〉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

구분	빈도 수
크게 감소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0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0
큰 변화가 없다	20
소폭 증가하였다(연 500만원 내외)	0
크게 증가하였다(연 천만원 이상)	0
잘 모르겠다	0
합계	20

대양2리 마을주민의 지난 5년 동안의 소득은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을주민은 향후 5년 소득 변화 전망에 대해서도 전체 20가구 가운데 18가구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2가구로 조사됐다. 앞으로도 마을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향후 소득 감소 원인으로 농업 소득을 꼽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설명했듯이 마을경제 특히, 농업여건의 악화로 인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표 4-9〉 향후 5년 소득 변화 전망 및 소득 감소 원인

향후 5년 소득 변화 전망		소득 감소 원인	
구분	빈도 수	구분	빈도 수
크게 감소할 것	0	농업 소득(농업 생산 소득)	2
소폭 감소할 것	2	임금 소득	0
큰 변화가 없을 것	18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0
소폭 증가할 것	0	없음	18
합계	20	합계	20

■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

대양2리 마을주민의 소비활동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조사 결과 소비 지출 1순위는 생활비(식료품, 의류, 이발 등)로 나타났다. 생활여건이 어렵다 보니 무엇보다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생활비 지출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로 나타났다. 주거비 중에서도 특히 난방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면 산간지역이 대양2리는 전체적으로 일반 마을과 기온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하는 기간도 다른 마을보다 길다. 그 결과 난방비도 당연히 다른 마을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겨울철에는 도회지의 자녀의 거주지로 거처를 옮긴다고 한다. 거처를 옮기는 여러 이유 중에는 난방비 부담도 한 이유가 될 것이다.

3순위 지출 항목은 의료비(진료, 약품구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가 대부분이다 보니 마을주민의 의료비 지출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일부 주민은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지출이 많다

는 응답을 했다. 의외로 교통/통신비 지출 부담은 1~3순위 포함되지 않는 것을 보면 교통/통신비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소비활동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항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20	0	0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0	10	8
의료비(진료, 약품구입등)	0	7	9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0	1	1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0	2	2
교통/통신비	0	0	0
부채상환	0	0	0
합계	20	20	20

1.2. 마을의 경제현황

1.2.1. 농업활동의 실태

대양2리의 주요 재배 작목은 쌀, 표고버섯, 갯잎 등이다. 이전에는 인삼과 느타리버섯도 제법 재배됐지만 지금은 거의 재배하지 않는다.

표고버섯은 20년 전부터 마을이장인 신00 씨가 처음 들어와 현재까지 재배하고 있다. 원목을 활용한 표고버섯재배는 신00 이장의 큰 수입원이었으나 최근 들어 배지를 활용한 표고버섯 재배의 증가로 인해 표고가격은 급속히 하락한 상태이다. 하지만 신00 이장은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활용한 표고버섯 재배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마을 뒤쪽의 임야 일부를 활용해 표고버섯 재배 막사를 증축하고 있다.

갯잎은 최근 들어 귀농한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 대양2리는 산간 지역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 갯잎 재배 여건이 좋은 지역은 아니지만 이를 기술로 극복해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이 마을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갯잎재배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갯잎재배와 아울러 최근 귀농·귀촌인과 주말에만 한 번씩 오가는 전원생활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약초재배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하수오, 생지황, 청솔, 씬바귀 등을 재배하고 있다. 약초재배 역시 이 마을 내로 귀농·귀촌인이 증가하고 있고 건강, 휴양, 치료 등의 목적으로 한 전원생활형 체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약초재배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표 4-11〉 주요 작목

주요작목	총 경작면적 및 수확량	생산 및 가공 방식	유통 및 판매방식
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경작면적: 약 10,000평 - 참여농가: - 연간 생산량(소득): 		
표고버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경작면적: 약 10,000평 - 참여농가: 1농가 - 연간 생산량(소득): 		건표고는 청양정산농협에서 수집 및 선별을 통해 공개입찰 방식 판매
갯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경작면적: 약 1,200평(20동) - 참여농가: 3가구 - 연간 생산량(소득): 	인근마을과 함께 작목반 구성	수송차량 통해 가락시장에서 판매
약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 종류: 하수오, 생지황, 청솔, 씬바귀 등 - 참여농가: 3~4가구 - 연간 생산량(소득): 		

1.2.2. 영농방식의 시도와 변화

앞서 설명했지만 산간지역인 대양2리에서 깻잎재배는 적합한 품목이 아니다. 옆채류인 깻잎은 일조량이 풍부해야 잘 자라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금산의 특산물인 깻잎은 금산에서도 동쪽인 추부면이 주산지이다.

하지만 최근 대양2리에서도 깻잎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3농가가 1,200평(비닐하우스 20동)의 깻잎농사를 짓고 있다. 이것은 깻잎재배지에 조광시설을 갖추 일조량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추세라면 대양2리에도 깻잎배배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농가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영농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이웃마을 영농조합을 활용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향후 깻잎농사가 확대된다면 마을 내에도 영농조합 조직을 통한 생산, 판매를 공동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 마을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1.3.1.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대양2리는 금산군의 최남단 산간지역에 위치한 오지마을이다. 대둔산의 아랫자락에서 중턱까지 마을이 걸쳐있기 때문에 경작지는 많지 않지만 비교적 다양한 작물이 식재된다. 이전에는 고랭지 배추가 가능할 정도로 산간오지였으나 지금은 기후변화와 재배환경의 변화로 작물식재는 많이 변화했다.

현재 마을의 소득 작목은 표고버섯, 인삼, 깻잎, 약초 등이다. 표고버섯은 현재 마을 이장인 신00씨가 20년 동안 재배해 오고 있는 품목이다. 이 마을이 산간지역이지만 주변에 표고버섯을 하는 농가가 적어 일일이 기술을 익혀가며

재배해 온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 이전에는 표고버섯 생산이 많지 않아 소득이 괜찮았다. 하지만 이후 표고버섯 재배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점차 하락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나무가 아닌 배지 재배가 증가하면서 표고버섯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나무재배를 고집하고 있는 신00 이장에게도 타격이 컸다. 그럼에도 신00 이장은 나무 재배를 고집하고 있고 오히려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산간오지인 이 지역에서 표고버섯은 그나마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마을의 한 농가는 느타리버섯을 많이 재배했으나 지금은 폐농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표고버섯 이외에 최근 이 지역에서 늘고 있는 품목은 갯잎과 약초이다. 원래 갯잎재배는 일조량이 많이 지역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산간지역인 대양2리는 적합하지 않으나 금산 추부지역 갯잎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재배기술도 발달하면서 금산지역 내 갯잎재배가 확산되고 있다. 그 영향이 이곳 대양2리까지 미쳐 현재 이 마을에서도 갯잎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갯잎재배와 함께 귀농인을 중심으로 약초재배도 늘어나고 있다. 약초재배는 주로 하수오, 생지황, 씬바귀가 많다. 약초재배 농가는 3가구 정도로 많지 않다. 이들 중에는 인근 대전시 등지에서 오가면서 취미농을 할 정도로 규모는 크지 않다.

1.3.2. 마을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대상2리는 산간오지마을로 농업여건과 생활여건은 그다지 좋지 않지만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안정적이어서 최근 도시민들이 이 마을을 많이 찾고 있다. 마을 전체적으로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증가해 인구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귀농보다는 귀촌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대도시를 오가며 전원생활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을의 경제활동도 다양화되고 있다. 마을에서 이전부터 해왔던 벼, 표고버섯, 인삼농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갯잎과 약초

재배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농사는 규모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근 시작된 깻잎농사는 이웃마을과 연계한 작목반 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깻잎 농사가 점차 확대가 된다면 마을 내 작목반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좀 더 젊은 세대의 귀농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근 대전시 등 대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전원생활형 귀촌인이 증가하면서 약초재배 등 특색 있는 농업이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의 대부분은 취미농이 많은 만큼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3.3. 정부 정책의 방향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과소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양2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이 마을이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마을 전체가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서 인근 도시민들이 이 마을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구성원도 기존에는 농민이 대부분이었지만 현재는 종교인, 무속인, 작가 등이 마을에 거주하고 보통 주말에만 이 마을을 찾는 도시민의 경우에는 도시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산간지역 마을일지라도 마을주민의 구성은 다양하고 여러 문화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산간지역 마을에 대한 정책 방향도 다소 변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인구적인 측면에서 산간마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산간지역은 보통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대양2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산간오지일지라도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도시지역과 인접한 농촌마을은 인구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양2리의 특징은 도시지역을 오가며 주말에 전원생활을 즐기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산간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구유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많은 도시인들이 건강, 휴양, 치료의 목적으로 농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생활환경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농업적인 측면에서 작목전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대양2리는 기존에 벼, 표고버섯, 인삼 등을 재배했으나 최근에는 갯잎과 약초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마을에 귀농·귀촌인들이 증가하면서 적은 면적에서도 기술을 투입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갯잎이나 취미농으로 약초재배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갯잎재배는 산간지역인 대양2리에는 적합 품목이 아니었지만 재배기술 등의 발전으로 이 지역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이처럼 산간지역에서도 품목전환을 잘 이룬다면 마을주민의 소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산간마을에 대한 작목전환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갯잎뿐만 아니라 현재 이 마을에서 재배되고 있는 다양한 약초 또한 향후 소득 작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농지가 부족한 마을에서 임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양2리에는 현재 세 부류의 주민이 살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주민이고, 두 번째는 귀농·귀촌인이고, 세 번째는 도시와 마을을 오가는 전원생활형 주민이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전원생활형 주민은 마을주민과 거의 접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마을에는 가끔씩 와서 텃밭도 가꾸고 생활도 하지만 마을주민으로서의 공동체성은 거의 갖지 못하는 부류가 이들 전원생활형 주민이다. 이들은 이 마을의 빈집을 구매한 다음 이를 수리해 잠깐씩 거주하거나 매입한 토지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주말에는 그곳에 와서 쉬었다 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분명히 마을과 연관을 갖고 있지만 마을에서 배제된 주민이다.

따라서 향후 행정기관과 마을에서는 이들에 대한 활동 파악이 필요하며 마

을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주민, 귀농·귀촌인, 전원생활형 주민 등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제 5 장

부여군 초촌면 추양1리9)

1. 추양1리의 일반현황

1.1. 마을의 인문·지리·사회적 특성(구명칭:경제적 특성)

1.1.1. 인구 특성(구명칭:신암1리의 주민 현황)

9) 주 : 1.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면담자)	조사일자	조사방법	조사진행자
이규필 이장	2017.08.08.화요일	면담	강마야, 정지인
이규필 이장	2017.08.24.목요일	면담	강마야
이규필 이장	2017.08.25.~08.30	마을조사 가구리스트(자체작성)	이규필, 강마야

2. 조사대상자인 이규필 이장의 이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장직을 수행했고 다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본인의 농사규모는 추양리 및 규암리 일대 약 50,000평 논·밭의 농작업 대행(위탁영농)을 하고 있다. 추가로 양송이버섯도 재배하고 있다. 모내기만 위탁영농할 경우, 최대 860,000평까지 경작가능하다.

추양1리의 2012년 기준¹⁰⁾ 총 인구수는 126명, 총 가구수는 54호이다. 이 중 농가는 43호, 비농가는 11호이다. 하지만 2017년 기준 현재 총 인구수는 80명, 총 가구수는 37호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80%이고, 총 가구수 중 농가비율은 약 75%이다. 2005년 이후 도시에서 이주해 온 귀농·귀촌·귀향 가구수¹¹⁾는 3가구로서 현재 1가구만 농사를 짓고 나머지 2가구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고령으로 농사짓지 않는 은퇴농가(대략 80세 이상)¹²⁾는 없고 텃밭 수준이라도 농사는 짓고 있다.

과거 10년 전 대비 총 인구수는 자연사망으로 인해서 20-30명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30-40대 젊은 층 인구유입이 있는 편이다. 거주지는 추양1리이나 실제 외지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 추양리 전체를 통틀어서 5-6명이 유입되었고 이 중 추양1리와 추양2리에 각 2-3명씩 유입되었다.

추양1리의 조사대상자 성별 현황은 총 23호 응답자 중 여성 10호, 남성 13호로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연령은 70대 이상이 11호로서 47.8%를 차지하고 있다(<표0-1> 참고).

〈표5-1〉 추양1리의 조사대상자 성별 및 연령 현황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성별	여성	10	43.5%
	남성	13	56.5%
	합계	23	100.0%
연령	30대	0	0.0%
	40대	3	13.0%
	50대	5	21.7%

10) 자료 : 추양1리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발전계획(2013).

11) 주 : 지금까지 추양1리에 들어온 귀농·귀촌 인구는 약 12-13명으로 추정함(이장 면담 조사결과).

12) 주 : 이 마을의 쌀 농사는 4명에게 위탁영농을 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농업인 비율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음(이장 면담 조사결과).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60대	4	17.4%
	70대 이상	11	47.8%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가구원수는 마을주민 설문조사의 경우 총 23호 응답자 중 1인 가구는 9호(39.1%), 2인 가구는 8호(34.8%)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을조사 가구리스트의 경우 총 28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인 가구는 11호(39.3%),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9호(32.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5-2> 참고).

<표5-2> 추양1리의 가구원수

조사항목	구분	설문조사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빈도수(호)	비중(%)	빈도수(호)	비중(%)
가구원수	1인 가구	9	39.1%	9	32.1%
	2인 가구	8	34.8%	11	39.3%
	3인 가구	0	0.0%	2	7.1%
	4인 가구	2	8.7%	1	3.6%
	5인 가구	2	8.7%	2	7.1%
	6인 가구	1	4.3%	2	7.1%
	7인 가구	1	4.3%	-	-
	8인 가구	-	-	1	3.6%
	합계	23	100.0%	28	100.0%

자료 : 1.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추양1리의 가구형태는 총 28호 중 1인 독신가구와 2인 부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부 가구는 11호(39.3%), 1인 독신가구는 9호(32.1%)를 차지하고 있다(<표5-3> 참고).

〈표5-3〉 추양1리의 가구형태

조사항목	구분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빈도수(호)	비중(%)
가구형태	1인(독신)	9	32.1%
	부부	11	39.3%
	부부+자녀	4	14.3%
	부부+부모	-	-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	-
	기타 핵가족	1	3.6%
	3세대 이상 가족	3	10.7%
	합계	28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추양1리의 총 28호 중 농가유형은 전업농가 21호(75.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비농가도 4호(14.3%)를 차지할 만큼 높은 편에 속한다 (<표5-4> 참고).

〈표5-4〉 추양1리의 농가유형

조사항목	구분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빈도수(호)	비중(%)
농가유형	겸업농가	2	7.1%
	기타(농지없음)	1	3.6%
	기타(농지있음)	-	-
	비농가	4	14.3%
	전업농가	21	75.0%
	합계	28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1.1.2. 지리적 특성¹³⁾(구명청:자연마을로서 신암1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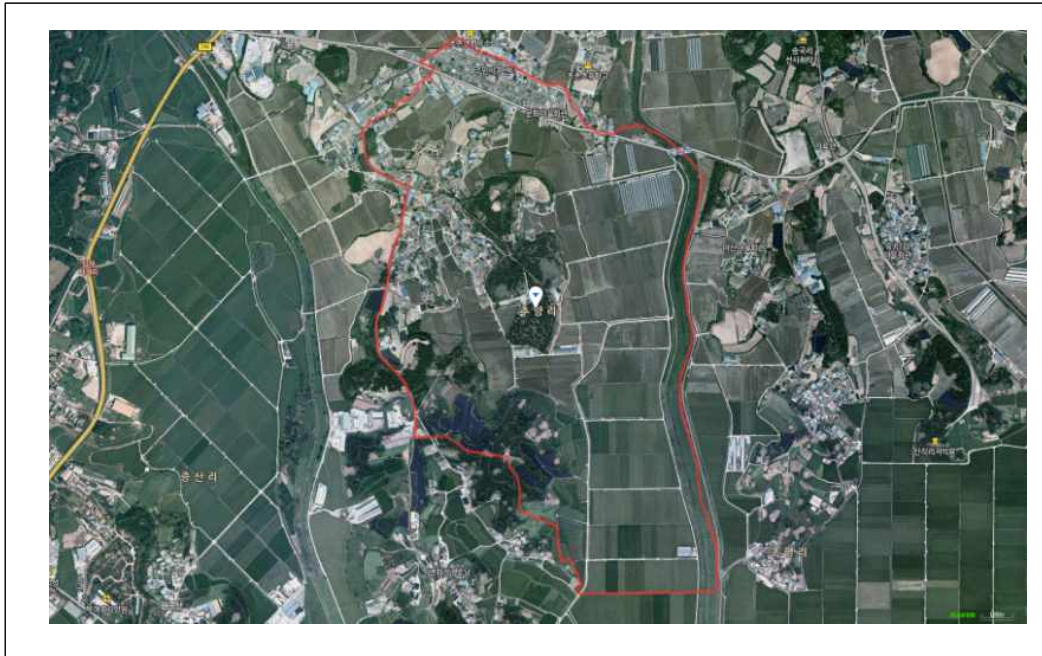
추양1리 마을지리는 초촌면의 서쪽에 위치해 석성면과 경계를 이룬 지역이다. 마을유래는 사비시대 교통의 요지였으며 백제멸망 후 잔여세력들이 끈질기게 저항한 지역으로 임진왜란 이후 전주이씨의 집성촌을 이루기 시작했다. 마을 앞에 오래된 떡나무(楸木)가 있어 고추동, 고추골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고추동, 응양리 일부를 병합하고 고추와 응양의 이름을 따서 추양리라 하였다.

<그림5-1>에서 보듯이, 추양1리는 정주공간과 평야지대가 구분되어 있고 평야지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산악지형이 없어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편이다. 대규모 쌀 단지 조성이 비교적 용이한 환경으로 보였다(저자 주).

마을 이름은 마을 앞에 오래된 떡나무[楸木]가 있어 고추동, 고추골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에 고추동, 응양리, 건평리, 내연리 일부를 병합하여 고추와 응양의 이름을 따서 추양리라 하였으며 부여군 초촌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황못들, 안말, 넘말, 양상 등이 있는데, 추양리 동쪽에 있는 큰 뜰을 황못들이라 부르고 황못들 안쪽에 있는 마을을 고추동 또는 안말이라 부른다. 즉 황못들 안쪽이 되므로 안말, 북쪽으로 등너머에 있는 마을을 넘말, 양지바른 쪽에 마을이 있으므로 양상(陽上)이라 불리는 마을들이 있다.

13) 자료 : 1) 부여군청 홈페이지
2) 부여군지

〈그림5-1〉 추양1리 위성사진



자료 : 네이버 맵(naver map) 위성지도

1.1.3. 사회적 특성(구명칭:지역사회의 변화)

추양1리는 80%가 전주이씨 문중가문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는 씨족마을이다. 씨족사회의 전통과 풍습이 강하게 남아있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근근히 이어져오고 있는 마을이다(<그림0-2> 참고). 그리고 추양1리 마을주민의 생활권은 부여군보다 인근 도시지역인 논산시와 대전시이다.

하지만 이 마을에도 점차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씨족마을이다보니 과거까지는 자연스럽게 신규 가구 유입을 꺼려하고 기존 원주민 인구 중심으로 마을을 운영했는데 현재는 신규 인구의 유입과 진출을 밀어주는 분위기이다. 젊은이들이 마을에 살게 해줘야 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내용에 의거하면, 추양1리 마을 주민이 스스로 평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추양1리의 강점은 주민들의 높은 공동체 의식을 보유한 점,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통한 마을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점, 깨끗한 농촌 경관을 보유하고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점, 마을 내 인적자원 및 문화자원이 풍부한 점, 녹색농촌체험마을 유치로 사업기반이 조성된 점을 들었다.

둘째, 추양1리의 약점은 마을 내 문화자원이 풍부하나 농특산물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마을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좋지 못한 점, 초고령화 사회에도 불구하고 노인 및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취약한 점을 들었다.

셋째, 추양1리의 기회요인은 부여군의 다양한 지역개발 의지가 강한 점, 전통문화를 연계한 3차산업의 발전잠재력을 보유한 점, 문화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천안-논산 간 고속국도의 개통으로 광역접근성이 향상된 점을 들었다.

넷째, 추양1리의 위협요인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소비자 접근성이 열악한 점, 각종 농산물 개방 정책 가속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 초고령화 사회의 지속으로 운영 인력이 감소하는 점을 들었다.

〈그림5-2〉 추양1리의 전체 경관 사진



1.2. 마을자산 및 경제인프라

1.2.1. 마을의 주요 자산


주양1리의 주요 자산은 <표0-5>와 같다. 구체적으로 자연·생태·경관 자원은 소나무숲(지역에서는 ‘솔밭’이라고 명칭)과 영천군농원이 대표적이다. 소나무숲은 마을 주변 소나무숲이 넓게 자리잡고 있는데 마을숲이기도 하다. 주변으로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다. 이 곳은 문중이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약 200-300년이 된 곳이다. 그리고 영천군농원은 소나무 숲 내에 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경관리를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지만 체험사업을 하면서 청소 정도만 하는 수준이다.

역사문화 자원은 두레풍물과 당산제가 대표적이다. 두레풍물은 마을전통 문화자원으로서 매우 오래전부터 전승, 보존해오고 있다. 관리주체는 마을 내 두레풍장보존회가 담당하고 있다. 봄에는 초촌면에서 열리는 고인돌축제에 참가, 가을에는 부여군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 등 각종 지역축제에 출전하고 있다. 참가를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의 공동사업에 활용한다. 당산제는 마을에 오래된 팽나무에 고추골 당산지신들이 있다고 믿고 마을의 무사안녕, 행운, 번영을 지성으로 보내고 연초 정월대보름에 축원하는 제사이다. 그 외에도 무령사 및 문중사당이 있다.

기타 자원은 무형 자원으로서 마을축제인 초촌면의 고인돌 축제와 같은 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표5-5〉 추양1리의 주요 자산

자산 유형	주요 자산
자연생태경관 자원	소나무숲(솔밭, 마을숲, 둘레길), 영천군농원
역사문화 자원	두레풍물, 두레풍장보존회, 당산제(팽나무), 무령사 및 문중사당
기타 자원(무형 자원)	고인돌축제(초촌면)



자료 : 고추솔바람체험관 전시사진

참고로 성주인외(2016)에서는 추양1리의 두레풍장보존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추양1리의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문화유산
- 1970년대 말 추양리농악보존회 모태
- 2000년 재결성된 마을조직
- 마을에서 최소 250년 간 전승되어온 두레농악 전승 목적으로 운영
- 전주 이씨 종족마을 특성이 공동체활동의 기반이 되는 전통 맥을 유지.계승에 기여

자료 : 성주인외(2016),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37-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16.

1.2.2. 마을의 경제인프라

첫째, 마을의 경제인프라 현황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지원된 고추솔바람체험관이 있다(<그림0-3> 참고). 체험관 내부시설로는 1층에는 체험실,

회의실, 부엌 등이 있고, 2층에는 두레풍장보존회 사무실(이규채 위원장)이 있다. 음력 7월7일에 마을주민 전체가 모여서 대청소를 하고 국수도 대접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가끔 외부인이 체험을 오면 숙박시설로도 이용한다.

〈그림5-3〉 추양1리 소부리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및 시설



둘째, 마을의 공유자원(공동경작지, 공동어장 등) 현황은 공동농기계 창고가 있지만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사유화되어 있다. 트랙터, 콤팩트 등 4대 기계가 보관되어 있다. 그 외 공유자원은 마을회관(노인회관)이 있으나 너무 노후화되어서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고 폐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 대 만들어진 팔각정은 고추솔바람체험관 앞마당에 위치하고 있는데 옆에 팽나무가 있다. 팔각정은 마을기금을 조성하여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지은 것이다.

셋째, 마을의 상업시설(음식점, 소매점, 민박, 펜션, 커뮤니티 시설, 의료교육복지 시설) 및 공공시설 현황은 추양1리에는 없고 면소재지인 추양3리에 집중되어 있어서 마을주민은 면소재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1.3. 마을주민의 경제특성

1.3.1.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

추양1리의 농어업 유형은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가구원1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쌀농업(14명)과 밭농업(노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5-6> 참고). 마을의 농어업 유형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몇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쌀과 일부 노지 밭작물로 편중화, 단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6〉 추양1리의 농어업 유형

단위:명

구분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6	0	8	0	6	-	5	0	3	0	2	-
쌀농업	14	0	5	0	0	-	1	0	1	0	0	-
밭농업(노지)	1	12	0	4	0	-	0	1	0	1	0	-
시설원예농업	0	0	0	0	0	-	0	0	0	0	0	-
축산업	1	0	1	0	0	-	0	0	0	0	0	-
임업	1	0	0	0	0	-	0	0	0	0	0	-
합계	23	12	14	4	6	-	6	1	4	1	2	-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경제활동 유형은 가구원1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14명, 생산/기능/노무직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5-7> 참

고). 마을의 경제활동 유형도 단순한 편으로서 약 40%는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주부/학생, 퇴직/무직자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5-7〉 추양1리의 경제활동 유형

단위:명

구분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합계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14	6	0	1	1	0	22
자영업	0	0	0	0	0	0	0
사무/경영/관리	1	1	0	0	0	0	2
생산/기능/노무직	6	0	0	0	0	0	6
판매/영업/서비스	0	1	0	0	0	0	1
주부/학생	0	6	3	2	1	1	13
퇴직/무직	2	0	2	1	2	1	8
미취학	0	0	1	2	0	0	3
합계	23	14	6	6	4	2	55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주요 경제활동은 대부분 농림어업으로서 15호(65.2%)를 차지하고 나머지 생산/기능/노무직이 5호(21.7%)를 차지하였다(<표5-8> 참고).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 65%이상을 차지할 만큼 농림어업의 의존도가 높고, 단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5-8〉 추양1리의 주요 경제활동

구분	빈도수(호)	비중(%)
농림어업	15	65.2%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0	0.0%
사무/경영/관리	1	4.3%
생산/기능/노무직	5	21.7%
판매/영업/서비스	0	0.0%
주부/학생/무직	2	8.7%
합계	23	100.0%

주: 가구에서 70%이상의 시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응답임.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주요 작목 현황은 대부분 쌀 작목으로서 20호(71.4%)를 차지하고 나머지 밭작물, 양송이 순으로 나타났다(<표5-9> 참고). 마을의 주요 작목은 3/2가 쌀 작목 재배, 3/1이 각종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배하는 작목 구조가 매우 단순한 편이고 다양화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5-9〉 추양1리의 주요 작목 현황

구분	빈도수(호)	비중(%)
쌀	20	71.4%
쌀/밭	3	10.7%
양송이	1	3.6%
무응답	4	14.3%
총합계	28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추양1리의 경작규모별 현황은 10,000평 이상 규모에 7호 분포(25.0%)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3,000평~6,000평 규모에 6호 분포(21.4%), 1,000평~3,000평 규모에 5호 분포(17.9%) 순으로 나타났다(<표5-10> 참고). 마을의 경작규모는 농사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추양1리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규모화 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에 기인한다.

〈표5-10〉 추양1리의 경작규모별 현황

구분	빈도수(호)	비중(%)
1,000평 이하	3	10.7%
1,000평~3,000평	5	17.9%
3,000평~6,000평	6	21.4%
6,000평~10,000평	3	10.7%
10,000평 이상	7	25.0%
무응답	4	14.3%
총합계	28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1.3.2.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

추양1리의 가구총수입은 500만 원~1천만 원인 가구가 9호로서 가장 높은 비중인 39.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천만 원~2천만 원/2천만 원~3천만 원인 가구는 각 4호(1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어업소득은 500만 원~1천만 원인 가구가 7호(30.4%), 1천만 원~2천만 원인 가구가 5호(21.7%)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소득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5-11> 참고). 마을의 소득구조 특징은 연간 가구 총수입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임금 소득보다 농어업 소득이 가구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어업 소득 의존도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5-11〉 추양1리의 소득구조(가구 총수입, 농어업 소득, 임금 소득)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가구 총수입	0~500만 원	0	0.0%
	500만 원~1천만 원	9	39.1%
	1천만 원~2천만 원	4	17.4%
	2천만 원~3천만 원	4	17.4%
	3천만 원~4천만 원	1	4.3%
	4천만 원~5천만 원	2	8.7%
	5천만 원~1억 원	3	13.0%
	합계	23	100.0%
농어업 소득	해당항목없음	6	26.1%
	0~500만 원	1	4.3%
	500만 원~1천만 원	7	30.4%
	1천만 원~2천만 원	5	21.7%
	2천만 원~3천만 원	2	8.7%
	3천만 원~4천만 원	0	0.0%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1억 원	2	8.7%
	합계	23	100.0%
임금 소득	해당항목없음	14	60.9%
	0~500만 원	0	0.0%
	500만 원~1천만 원	0	0.0%
	1천만 원~2천만 원	4	17.4%
	2천만 원~3천만 원	2	8.7%
	3천만 원~4천만 원	1	4.3%
	4천만 원~5천만 원	1	4.3%
	5천만 원~1억 원	1	4.3%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비농업 사업소득, 연금 및 정부지원금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일부 500만 원 이하라고 응답한 가구가 8호(34.8%)를 차지하는 정도이다(<표5-12> 참고). 마을의 농업 이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은 전무한 편이지만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을 통해서 가구소득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5-12〉 추양1리의 소득구조(비농업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비농업 사업 소득	해당항목없음	23	100.0%
	0~500만 원	0	0.0%
	500만 원~1천만 원	0	0.0%
	1천만 원~2천만 원	0	0.0%
	2천만 원~3천만 원	0	0.0%
	3천만 원~4천만 원	0	0.0%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1억 원	0	0.0%
	합계	23	100.0%
연금 및 정부지원금	해당항목없음	23	100.0%
	0~500만 원	0	0.0%
	500만 원~1천만 원	0	0.0%
	1천만 원~2천만 원	0	0.0%
	2천만 원~3천만 원	0	0.0%
	3천만 원~4천만 원	0	0.0%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1억 원	0	0.0%
	합계	23	100.0%
이전 소득 및 기타	해당항목없음	13	56.5%
	0~500만 원	8	34.8%
	500만 원~1천만 원	2	8.7%
	1천만 원~2천만 원	0	0.0%
	2천만 원~3천만 원	0	0.0%
	3천만 원~4천만 원	0	0.0%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1억 원	0	0.0%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과거 5년 전 대비 소득수준 의식을 조사한 결과, 총 소득 변화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7호(73.9%)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년 전 대비 소득 증가 소득원에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21호(91.3%), 5년 전 대비 소득 감소 소득원에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19호(82.6%)를 차지하고 있다(<표5-13> 참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 의식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뚜렷한 증가 소득원도, 감소 소득원도 없었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13〉 추양1리의 과거 5년 전 대비 소득수준 의식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	크게 감소하였다(연 천만 원 이상).	0	0.0%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 원 내외).	4	17.4%
	큰 변화가 없다.	17	73.9%
	소폭 증가하였다(연 500만 원 내외).	2	8.7%
	크게 증가하였다(연 천만 원 이상).	0	0.0%
	잘 모르겠다.	0	0.0%
	합계	23	100.0%
5년 전 대비 소득 증가 소득원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0	0.0%
	임금 소득	2	8.7%
	비농어업 사업소득(자영업, 기타 사업체 등)	0	0.0%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0	0.0%
	없음.	21	91.3%
	합계	23	100.0%
5년 전 대비 소득 감소 소득원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3	13.0%
	임금 소득	1	4.3%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0	0.0%
	없음.	19	82.6%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향후 5년 소득수준 의식을 조사한 결과, 향후 5년 간 변화할 것

으로 예상되는 소득수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15호(65.2%)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5년 예상소득 증가 소득원에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21호(91.3%), 향후 5년 예상소득 감소 소득원에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17호(73.9%), 그 다음으로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4호(17.4%)를 차지하고 있다(<표5-14> 참고). 미래의 소득수준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증가 소득원도, 감소 소득원도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5-14〉 추양1리의 향후 5년 소득수준 의식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향후 5년 변화 예상 소득	크게 감소할 것	0	0.0%
	소폭 감소할 것	6	26.1%
	큰 변화가 없을 것	15	65.2%
	소폭 증가할 것	2	8.7%
	합계	23	100.0%
향후 5년 예상 소득 증가 소득원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0	0.0%
	임금 소득	2	8.7%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0	0.0%
	없음.	21	91.3%
	합계	23	100.0%
향후 5년 예상 소득 감소 소득원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4	17.4%
	임금 소득	2	8.7%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0	0.0%
	없음.	17	73.9%
	합계	23	100.0%

추양1리의 농어업 이외 경제활동 의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25호 중 20호는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2호는 “생산/기능/노무업”, 1호는 “판매/영업/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정도이다(<표5-15> 참고). 농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 의향에 대해서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거나 미래에 대한

심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5-15〉 추양1리의 농어업 이외 경제활동 의향

구분	빈도수(호)	비중(%)
없음	20	87.0%
생산/기능/노무업	2	8.7%
판매/영업/서비스업	1	4.3%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1.3.3.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

추양1리의 작년 소비지출 규모 대비 현재 소비구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가구 총지출이 1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9호(39.1%)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어업 경영비가 1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12호(70.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년 전과 현재의 소비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1호(47.8%)를 차지하고 있다(<표0-16> 참고). 마을의 소비지출 구조 특징은 가구 총수입이 500만 원~1,000만 원인 가구가 대부분이고 소비지출도 그와 비슷한 상태에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 시 소비지출 규모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소득수준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5-16〉 추양1리의 소비지출 구조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가구 총지출(작년 소비지출 규모)	1천만 원 이하	9	39.1%
	1천만 원~2천만 원	5	21.7%
	2천만 원~3천만 원	4	17.4%
	3천만 원~4천만 원	1	4.3%
	4천만 원~5천만 원	1	4.3%
	5천만 원 이상	3	13.0%
	합계	23	100.0%
농어업 경영비(작년 소비지출 규모)	1천만 원 이하	12	70.6%
	1천만 원~2천만 원	3	17.6%
	2천만 원~3천만 원	0	0.0%
	3천만 원~4천만 원	0	0.0%
	4천만 원~5천만 원	1	5.9%
	5천만 원 이상	1	5.9%
	합계	17	100.0%
5년 전과 현재의 소비지출 규모	크게 감소하였다.	0	0.0%
	소폭 감소하였다.	5	21.7%
	큰 변화가 없다.	11	47.8%
	소폭 증가하였다.	4	17.4%
	크게 증가하였다.	3	13.0%
	잘 모르겠다.	0	0.0%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소비지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순위는 식료품·의류구입·이발 등 생활비, 2순위는 진료 및 약품구입 등 의료비, 3순위는 월세·전기세·난방비 등 주거비 순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0-17> 참고). 마을의 소비지출 세부항목 특징은 문화 및 여가, 교통 및 통신 등과 같은 부가적 비용보다 의식주와 관련된 기초적 비용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17〉 추양1리의 소비지출 세부항목

단위:호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12	6	4	22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2	8	8	18
의료비(진료, 약품구입등)	5	7	7	19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0	0	1	1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4	1	0	5
교통/통신비	0	1	3	4
부채상환	0	0	0	0
합계	23	23	23	69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 추양1리의 경제현황

2.1. 농업활동의 실태

2.1.1. 농업활동과 관련된 과거의 변화

추양1리의 농업활동 구조 및 특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쌀 농사를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는 점이다. 평야지대라는 지리적 여건이 주로 작용한 점도 있지만 최근에는 마을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해서 쌀 농사 이외에 새로운 농업활동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마을 전체의 쌀 농사를 4명의 위탁영농업자가 모두 도맡아서 하는 형국이다.

2.1.2. 주요 생산 작목의 현황과 특성

추양1리 마을의 주요 작목은 쌀이고, 쌀 외에는 대규모로 특화된 작목은 없는 실정이다(<표0-18> 참고). 밭작물의 경우 주로 영세소농이 소소한 규모로 경작하고 있고 이들은 쌀 이외에 품목으로서 주로 콩, 고추, 옥수수 정도를 심고 있다. 자급자족용이 대부분이고 남는 것만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목 반도 없고 현재는 친목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쌀은 37농가, 총 200,000평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이나 이 규모는 4명이 위탁영농 형태로 모두 생산하고 있고, 직불금은 4명이 수령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생산량은 1마지기 당 4가마 수준이다. 위탁영농의 경우 200평 당 125,000

원 수익을 낸다.

〈표5-18〉 추양1리의 주요 작목 현황

주요 작목	총 경작면적 및 수확량	생산 및 가공방식	유통 및 판매방식
벼	200,000평, 90톤, 37농가 이 중 100,000평은 고령농	4명 위탁영농 형태로 생산가능한 수준 1차생산 방식	정부(추속수매) 농협RPC 개인RPC(논산시, 부여군 석송면 일대)
콩	3톤	작목반은 없음. 1차생산 방식	직거래
양송이버섯	64톤	1차생산 방식	농협
표고버섯	1톤	1차생산 방식	직거래, 농협
고추	20,000평	작목반은 없음. 1차생산 방식	
옥수수		작목반은 없음. 1차생산 방식	
땅콩	3-4가구	작목반은 없음. 1차생산 방식	유통상인
소	2가구, 가구당 70-80두 사육	작목반은 없음.	

2.1.3. 마을의 농지 현황

추양1리의 과거 5년 전 농업활동을 위한 농지면적을 비교해보면,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00%이다(<표0-19> 참고). 하지만 인터뷰 조사결과, 고령농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작지의 임대차가 청년농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5-19〉 추양1리의 과거(5년 전) 농업활동 면적 비교

구분	빈도수(호)	비중(%)
크게 감소하였다.	0	0.0%
소폭 감소하였다.	0	0.0%
큰 변화가 없다.	17	100.0%
소폭 증가하였다.	0	0.0%
크게 증가하였다.	0	0.0%
잘 모르겠다.	0	0.0%
합계	17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1.4. 마을농업의 대응 실태

추양1리의 향후 농어업 활동에 있어서 규모 확대 의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17호로서 76.5%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유지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모두 그만두고 싶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구도 각 2호로서 11.8%를 차지하고 있다(<표0-20> 참고).

〈표5-20〉 추양1리의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구분	빈도수(호)	비중(%)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0	0.0%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13	76.5%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0	0.0%
모두 그만두고 싶다.	2	11.8%
잘 모르겠다.	2	11.8%
합계	17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농어업 후계자 유무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15

호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래 후계영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농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표0-21> 참고).

〈표5-21〉 추양1리의 농어업 후계자 유무

단위:호

후계자 유무	있다	없다	합계
	2	15	17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은퇴 시 농지계획은 “자식에게 상속하겠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8호(47.1%)로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농업 종사 이후의 미래 영농기반으로서의 농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재산상속 수단으로서 농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표0-22> 참고).

〈표5-22〉 추양1리의 은퇴 시 농지 계획

구분	빈도수(호)	비중(%)
자식에게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게 하겠다.	1	5.9%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8	47.1%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	1	5.9%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0	0.0%
구체적 계획이 없다.	6	35.3%
현재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1	5.9%
합계	17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를 조사한 결과, “없다(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16호(94.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까닭에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질 수 없는 구조

임을 알 수 있다(<표5-23> 참고).

〈표5-23〉 추양1리의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

구분	빈도수(호)	비중(%)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1	5.9%
직거래 및 직판장 운영	0	0.0%
농어가 민박 및 음식점 운영	0	0.0%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0	0.0%
없다(하고 싶지 않다).	16	94.1%
합계	17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2. 영농방식의 시도와 변화

2.2.1. 영농방식의 변화

추양1리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1리당 4개반 두레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기계화, 산업화로 인해서 공동영농작업은 전부 사라진 상태이다. 쌀 소비가 예전처럼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산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 위탁영농하는 사람은 고가의 수입산 농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계속 쌀 농사에 매진할 수밖에 없고 타작목으로 전환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쌀 농사에 맞춰진 기계자본의 대규모 투자는 타작목 전환에 대한 위협요인을 기피하게 만들고 결국 신규 작목으로의 유연한 전환보다는 쌀 농사의 대규모화를 계속 추구함으로써 소득유지를 할 수 밖에 구조인 것이다. 즉, 추양1리의 영농방식 변화는 작목전환 혹은 기술적 변화보다는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부 전업농 및 대농 중심의 생산방식으로 경작규모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2.2.2. 농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추양1리는 쌀 농사가 주를 이루는 특성으로 인해서 생산물의 판로 개척 활동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주로 농협 RPC를 통해서 전량 판매(수매)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새로운 판로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7-8년 전 마을 내 유일하게 있는 법인경영체인 고추골영농조합법인(이규필 대표, 현재 마을 이장)을 만들어서 쌀 가공사업을 한 적이 있었다. 쌀 가공품을 만들어도 판매할 수 있는 마땅한 소비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접은 상태이다. 이규필 이장은 현재 봄과 가을에 농작업 인력수급을 담당하는 부업을 하고 있다.

2.2.3. 마을농업의 최근 시도

추양1리 마을에서 10년 전 6명이 양송이 버섯 재배를 시작했고 현재 2명이 재배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 특수한 경우이다. 그 이유는 마을 전체가 쌀 농사를 주로 하는 분위기이고 농가가 고령화가 되어 있는 관계로 새로운 투자를 기피하고 별다른 작목전환을 시도하고 있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3. 비농업활동의 특성 및 변화

2.3.1. 비농업 경제활동의 특성

추양1리는 대부분 고령농으로서 주로 소량다품목을 생산하는 구조이다. 이들은 대부분 텃밭수준의 경작규모를 재배하고 있다. 농사활동을 하기보다는

주로 병원왕래가 잦으며 노인회관에서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있는 편인데 거주지는 추양1리이나 외지에서 직업을 가져서 활동하고 있다. 위탁농가의 경우도 농사작업을 대행하는 시기인 농번기(4월, 10월)를 제외하면 비농업활동을 한다. 대표적인 농외활동으로 건축업 등에 종사한다.

추양1리의 비농업활동 현황을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면 피고용 상시와 피고용 임시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표5-24> 참고).

〈표5-24〉 추양1리의 비농업활동 현황

구분	취업형태	취업처	빈도수(호)	비중(%)
취업형태 및 취업처	개인운영	-	1	3.6%
	피고용 상시	-	2	7.1%
	피고용 임시	-	2	7.1%
	무응답	-	23	82.1%
	총합계	-	28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2.3.2. 마을의 다면적 경제 활동

추양1리는 고추술바람체험관을 지은 후 현재 숙박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마을의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타 지역사례를 현장 견학하면서 사업구상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체험관 앞 뜰에 수영장을 설치하여 운영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운영 및 관리 문제가 예상되어서 실천하지 못하였다.

추양1리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조사 결과,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어촌 관광(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 농수특산물 직접판매(직거래, 직판장, 로컬푸드 등) 모두 수행하지 않고 있다(<표5-25> 참고).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산업 경제활동 수행실적은 전무함을 알 수 있다.

〈표5-25〉 추양1리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단위:호

구분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직거래, 직판장, 로컬푸드 등)	농어촌 관광(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	기타
수행하지 않는다.	17	17	17	17
개별적 수행	0	0	0	0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	0	0	0	0
합계	17	17	17	17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다면적 경제활동 의식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증진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13호(81.3%)이다. 향후 참여 및 운영의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표0-26> 참고). 다면적 경제활동이 가구의 소득증진에 약간의 도움은 되었으나 향후 참여할 의사는 없음을 알 수 있다.

〈표5-26〉 추양1리의 다면적 경제활동 의식 현황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소득 증진 도움 정도	큰 도움이 된다.	0	0.0%
	약간 도움이 된다.	13	81.3%
	보통이다.	2	12.5%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1	6.3%
	합계	16	100.0%
참여 및 운영 의사	매우 그렇다.(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0	0.0%
	그렇다.	0	0.0%
	보통이다.	0	0.0%
	아니다.	9	52.9%
	전혀 아니다.(참여할 생각이 없다.)	5	29.4%
	잘 모르겠다.	3	17.6%
	합계	17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4.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역

2.4.1. 마을의 공동체 활동

추양1리는 4-5년까지만 해도 마을에 공동상여문화인 ‘생애계’가 있어서 운영이 되었으나 현재 관 운구만 마을에서 해주고 있는 정도이다. 생애계는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운영하였고 상여대가 1대-7대이다. 그 외에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은 전무하다.

2.4.2. 마을의 공동체 기반 경제조직의 실태와 변화

추양1리는 각종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마을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용도는 다양하게 쓰인다. 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종잣돈이다. 사업수익은 외지타향인의 기부금, 체험사업 수익, 노래방 기계장비 대여비, 두레풍장 기금(각종 대회나 축제에 가서 벌어들인 포상금)으로 구성된다. 약 7,000만 원~8,000만 원 가량이 적립된다. 다시 이 기금은 주로 청년회, 부인회, 노인회, 여자노인회 등으로 배분되어서 활동비 지급을 하게 되고 일부(2,000만 원~3,000만 원)는 중산천환경보전기금으로 모여서 추양리와 연화리에 지급하기도 한다.

추양1리의 가구별 참여하고 있는 경제조직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0-27>참고). 마을 내 공동체 기반의 경제조직이 없는 이유는 추양1리 마을은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농업을 통한 경제활동 동력이 부족하고, 쌀로 단작화되어 있으면서 대규모화가 진전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경제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표5-27〉 추양1리의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구분	빈도수(호)	비중(%)
작목반	0	0.0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0	0.0
없음/무응답	23	100.0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의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을 조사한 결과, 두레 및 품앗이 등과 같이 공동생산활동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마을공동시설 운영, 마을 공동의 6차산업,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등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5-28> 참고). 마을 내 역사문화 자원을 이용한 공동체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응답자들은 공동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표5-28〉 추양1리의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구분	활동여부(호)		평균값	표준편차
마을공동시설 운영: 육묘장, 농기계, 창고, 마을어장, 양식장 등	있다	0	-	-
	없다	23		
공동생산활동: 두레, 품앗이 등	있다	15	2.33	1.718
	없다	8		
공동어업활동	있다	0	-	-
	없다	23		
마을 공동 6차산업: 식품가공, 판매, 체험.관광 등	있다	0	-	-
	없다	23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마을복지, 문화향유, 주택개선사업 등	있다	0	-	-
	없다	23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4.3. 마을/지역단위 경제활동에 대한 주민 인식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조사 결과,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5호(21.7%), “약간 도움이 된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각 4호(17.4%)를 차지하였다(<표5-29>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표5-29〉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구분	빈도수(호)	비중(%)
큰 도움이 된다.	1	4.3%
약간 도움이 된다.	4	17.4%
보통이다.	4	17.4%
도움이 별로 안 된다.	3	13.0%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	0.0%
잘 모르겠다.	5	21.7%
모름 / 무응답	6	26.1%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과거 5년 전 대비 활성화 정도를 묻는 조사 결과,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6호(26.1%),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5호(21.7%)로서 높은 비중을 보인다(<표0-30>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과거와 비교했을 시 활발했다고 보는 긍정 의견이 높음은 주목할 만하다.

〈표5-30〉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활성화 정도

구분	빈도수(호)	비중(%)
5년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	0	0.0%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	5	21.7%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	3	13.0%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	3	13.0%
잘 모르겠다.	6	26.1%
모름/무응답	6	26.1%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조사 결과,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1호(47.8%)를 차지하고 있다 (<표5-31>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 의견이 우세하다.

〈표5-31〉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마을발전 도움 정도

구분	빈도수(호)	비중(%)
큰 도움이 된다.	1	4.3%
약간 도움이 된다.	11	47.8%
보통이다.	3	13.0%
도움이 별로 안 된다.	2	8.7%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	0.0%
잘 모르겠다.	0	0.0%
모름 / 무응답	6	26.1%
합계	23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장 높은 긍정적 영향으로서 “마을의 생활 환경 개선”을 들었고, 가장 낮은 긍정적 영향으로서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표5-32>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은 본연의 목적인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보다는 오히려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표5-32〉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3.24	0.831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회복	2.71	0.920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	3.18	0.951
마을에 살려 온 귀농어귀촌인 증가	3.06	0.827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2.53	0.624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3.06	0.556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	2.94	0.827

주 :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1점), 보통이다(3점), 매우 아니다(5점)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장 높은 부정적 영향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할 주민이 부족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역량 미달”, 가장 낮은 부정적 영향으로서 “마을 주민 간 수익이 불공정하게 분배”, “매출과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 발생”, “판매하려는 품목이나 종목 선정 잘못”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5-33>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은 본연의 목적인 경제적 증진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표5-33〉 추양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부정적 영향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 간 합의가 쉽지 않아 갈등 증폭	3.59	0.712
마을 주민 간 수익이 불공정하게 분배	3.71	0.772
매출과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 발생	3.71	0.849
판매하려는 품목이나 종목 선정 잘못	3.71	0.470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할 주민이 부족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역량 미달	3.53	0.717
정부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사업 유지 어려움	3.65	0.996
판로 확대나 고객 확보 어려움	3.59	1.176

주 :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1점), 보통이다(3점), 매우 아니다(5점)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2.5.1. 마을 행정지원사업의 내역 및 성과

추양1리와 추양2리를 포함하여서 행정지원받은 마을사업은 희망마을 마을 학교가 추양1리에서 2012년에 진행, 2013년은 추양2리에서 진행,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2014년 추양1리에서 진행,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2015년에 추양1리에서 고추골솔바람마을(녹색농촌)로 진행, 인근 마을인 추양2리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대상마을¹⁴⁾, 창조적 문화사업이 추양1리에서 2016년 진행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충청남도에서 지원하는 부여군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계획을 통해서 마을경관 개선 분야

14) 자료 :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본격 시동”. 2017년 1월 19일. 중부매일. 김덕환기자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782>

사업으로 소나무 숲길 정비, 숲산책로 조성, 숲공원 조성을, 생활환경 정비 분야 사업으로 두레풍물전시관, 회관 옆 정자주변 정비, 놀이터 옆 정자 정비를, 지역역량 강화 분야 사업으로 주민교육과 견학, 소식지제작 및 축제지원 등 홍보마케팅, 두레풍물 보전 및 당산제복원 컨설팅을 수립했다.

2014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타지역 마을이 사업신청을 포기하면서 어부지리격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다. 마을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서 두레풍장 전시관, 농촌체험관인 고추솔바람체험관을 건립하였다. 1층 100평, 2층 60평 규모의 건물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로서 재도약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 이후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도 실시하였다. 충청남도 지원사업으로는 2016년 마을공동 문화조성사업(두레풍물 보전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2015년 창조적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바 있다.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2016년-2018년)으로 3개년 동안 5억 원(도비 30%, 군비 70%)을 지원받아 술밭정비사업, 마을회관 리모델링, 팔각정 개보수, 체험과나 옆 야외식당, 5개 가량의 술밭 캠핑데크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7-8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장, 풍물회장, 청년회장, 도청공무원 퇴직자 등)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관급공사가 쉼새없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마을주민에게 소득사업으로서 와 닿고 느낄만한 수준이 아니다.

2.5.2. 행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추양1리는 2014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행정지원사업 추진되면서 마을의 경제조직 참여율이 86.7%에 달하는 등 여타 마을보다 현저하게 높은 특성을 보였다. 마을 내 문중조직과 추양리 두레풍장보존회 등 마을사회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90%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성주인외, 2016).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두레풍장보존회 역할이 컸다. 2000년 두레풍장보존회가 대회에 입상하면서 종잣돈이 생기게 되었다. 마을주민이 전부 인력을 계승하면서 각종 대회와 축제에 참가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포상금이 마을기금으로 적립되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겨울철이 농한기이므로 마을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소일거리가 없으니 무슨 일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의지로 시작하게 되었다.

고추솔바람체험관 건물을 지을 때 관리문제로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 현재 고추솔바람체험관의 운영비 조달은 출향인 기부, 외부손님의 숙박비, 체험비, 각종 사업수익금 조달을 통해서 연간 1,000만 원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숙박이용객은 주로 종중에서 건축물 증축시 인부들로서 종중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한다. 보통 1주일에 1팀은 숙박하고 있다. 체험관 부지는 종중 부지로서 무상임대해 주고 있다. 대신 종중회의 시 회의실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체험관 운영수익은 2년간 운영했으나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수익사업이 없으니 사무장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마을주민끼리 수익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이렇듯 추양1리가 지속적인 정부지원사업을 받은 이유(성주인외, 2015)는 전통적인 마을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들만의 문화 콘텐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을주민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본격적인 마을사업을 벌이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서 마을의 변화 양상은 동족마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민 참여 전통과 기존 마을 조직의 활성화 자체만으로 실질적인 마을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성주인외, 2015).

추후 과제(성주인외, 2015)로서 마을 내 주민들이 사업추진 역량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두레풍장과 수백 년 된 소나무 숲 등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체험관 시설을 정부지원으로 조성했지만 운영책임자, 도농연계 프로그램 등 마련되지 않아서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농교류와 시설의 효과적 활용 문제가 결국 역량으로 귀결되고 있는 양상이다.

3. 추양1리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3.1.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추양1리는 전주 이씨의 집성촌으로서 문중조직이 근간이 되어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조직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에 속하고, 두레풍장보존회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보다는 마을풍속과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등 전통적 마을 공동체 특성을 유지하는 사례지역이다. 전통문화 계승활동을 기반으로 마을전통의 맥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기여하고 있다.

추양1리의 핵심 특징은 37호로 이뤄진 전주 이씨 동족마을 집성촌(문중가문으로 구성된 씨족마을), 전통적인 두레문화가 유지되는 마을,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이 있는 마을, 신규로 유입되는 가구가 최근 10년 이내 귀농 및 귀촌 3호 이상이 증가해서 인구변동 상황은 감소 추세에 있는 마을, 마을 내 경제다각화 활동은 거의 없고 논농사에 의존하는 농업구조, 마을 내 전통문화 계승과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편인데 반해 경제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마을이다. 즉, 마을의 전통문화는 공동 주제와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공동체 활동을 하는 점이 주목할 만하고 이러한 마을 변화의 동인은 문화활동 조직체인 두레풍장보존회 역할이 컸다.

추양1리의 농업활동 실태 및 영농방식은 마을 소득기반은 쌀 농사를 제외

하고는 특징이 뚜렷하지 않다. 쌀 외에는 대규모로 특화된 작목은 없는 실정이고, 밭작물의 경우 주로 영세소농이 소소한 규모로 경작하고 있고 이들은 쌀 이외에 품목으로서 주로 콩, 고추, 옥수수 정도이다. 다수의 영세소농, 고령농이 살아가는 평범한 지역으로서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없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리당 4개반 두레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기계화, 산업화로 인해서 공동영농작업은 전부 사라진 상태이다. 쌀 농사에 맞춰진 기계 자본의 대규모 투자는 타작목 전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기피하게 만들고 결국 신규 작목으로의 유연한 전환보다는 쌀 농사의 대규모화를 계속 추구함으로써 소득유지를 할 수 밖에 구조인 것이다. 추양1리의 영농방식 변화는 작목전환 혹은 기술적 변화보다는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부 전업농 및 대농 중심의 생산방식으로 경작규모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수도작 중심의 마을로서 예전에는 초촌면 내에서 상당히 큰 마을에 속하였고 소득수준도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교육열도 높아서 인재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였다(성주인외, 2015). 하지만 현재는 변화를 시도하거나 변화를 수용하는데 소극적이다. 단적인 예로서 논농사를 지금도 90% 이상 유지하고 있는 점, 소득수준이 하위권인 마을(수도작 부문의 소득 정체한 결과)에 속하는 점이다. 추양1리는 초촌면 내의 다른 마을(신암1리)은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등 변화시도와 대비되어 보인다.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경제활동 조직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향후 구성계획도 부재하다. 귀촌 가구가 있지만 마을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소극적이고 마을변화 또한 동족마을이라는 특수성(보수성)이 반영되어서 경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 수도작 중심의 활동을 고수함으로써 소득 수준도 높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추양1리의 경제활동 조직 특이사항 및 비농업활동의 특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쌀 농사를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관계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추양1리의 공동체 활동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계기는 전통문화의 복원과 전승 정신이다. 경제적 목표를 한 공동체라기보다는 마을 전통문화 계승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 두레풍장 전승과 문중조직이 유지되고 있고, 사업의 추진조직은 마을노인회 주도의 두레풍장보존회이며,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공동체 의식이 높고 마을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도나 상호협력 수준이 높으며 전통문화 전승으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와 마을조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성주인외(2016)는 추양1리 공동체활동 추진조직 유형으로 “주민조직 주도형(전통 문중집단이 노인회를 중심으로 마을조직의 구성과 운영 주도)”을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종친단체, 두레풍장보존회, 소규모 친목계 조직 등으로 구성된 동족마을의 특수성은 마을의 경제활동에 동인을 주지 못하고 공동체 활동 범위도 마을 단위 내에서만 이뤄지고 있어서 오히려 외부 지역과의 상호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변화 추구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소득창출 모색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몇 명의 논농사 위탁영농으로만으로도 마을 전체 쌀 농사가 완성되는 농업구조 속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새로운 변화요인을 모색할 수 있는 인구학적 요인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농업 경제활동의 다각화 및 비농업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도 미약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추양1리에 지원된 그간의 정부 정책은 추양1리와 추양2리를 포함하여서 행정지원받은 마을사업은 희망마을 마을학교가 추양1리에서 2012년에 진행, 2013년은 추양2리에서 진행,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2014년 추양1리에서 진행,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2015년에 추양1리에서 고추골솔바람마을(녹색농촌)로 진행, 인근 마을인 추양2리는 창조적 마을 만들기 대상마을, 창조적 문화사업이 추양1리에서 2016년 진행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다른 마을과 달리 마을 내 위계를 갖춘 문중조직과 추양리 두레풍장보존

회 등 마을사회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면서 90%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2. 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소득과 관련한 의식수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암1리 마을 주민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 의식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뚜렷한 증가 소득원도, 감소 소득원도 없었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미래의 소득수준 의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증가 소득원도, 감소 소득원도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농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 의향에 대해서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거나 미래에 대한 심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와 관련한 의식수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과거와 비교 시 소비지출 규모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소득수준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곧 경제적 상황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듯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의견이 공존하였고, 과거와 비교했을 시 활발했다고 보는 긍정 의견이 높았으며,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긍정 의견이 우세하였다.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은 본연의 목적인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보다는 오히려 생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본연의 목적인 경제적 증진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과 소비 의식수준을 토대로 향후 농업 경제활동에 있어서 규모 확대 의사는 현 상태 유지, 농어업 후계자는 없고, 은퇴 시 구체적인 농지활용 계획

도 자식에게 상속하겠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미래 후계영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농업 종사 이후의 미래 영농기반으로서의 농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재산상속 수단으로서 농지를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면적 경제활동이 가구의 소득증진에 약간의 도움은 되었으나 향후 참여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고,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는 없다(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농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까닭에 다른 경제활동에 대한 도전의식을 가질 수 없는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현재 마을주민의 전반적인 심적 상태가 마을 경제활동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3. 정부 정책의 방향

마을의 전통문화 전승과 복원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추양1리가 좀 더 활력을 찾고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 영역의 정책 방향과 마을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쌀 농사가 중심이 되는 지역은 작목전환 혹은 기술적 변화보다는 개별 농가 중심의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부 전업농 및 대농 중심의 생산방식으로 경작규모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영세소농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고민이 정책에 담겨있어야 한다. 특히 쌀 농사가 중심인 지역은 소득자체가 저조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심적상태에서 미래의 밝은 전망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마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작목의 재배여건 마련, 경영 다각화 기반조성, 다양한 경제활동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 혹은 경제적 보전 형태의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면담 조사결과에서 이규필 이장이 밝혔듯이, 마을주체의 경제활동은 결국 정치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쌀’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이다. 쌀을 주요 소득원, 주요 작목으로 살아가던 지역은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 이르렀고 각종 투자를 기피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지역의 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쌀 이외에 대안이 없고 투자할 기회가 마땅치 않는 게 문제이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20-30년 내 쌀이 다시 귀해질 날이 오리라고 믿고 있다.

둘째, 정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농업인’이 누구인지, ‘농가’가 누구인지 정책대상의 개념·범위·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좀 더 솔직하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추양1리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①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모든 작업을 위탁영농에게 맡기는 경우, 농가 혹은 농업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¹⁵⁾, ② 농업에 은퇴라는 개념이 없으니 80세 이상이 되어서 텃밭을 경작하는 경우, 농가 혹은 농업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③ 본인은 비농가로 생각하는데 주요 소득원은 농번기 영농작업을 하는 경우, 농가 혹은 농업인이 아닌가? 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의(1천제곱 미터 이상 경작지 보유자,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등)가 과연 타당한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정책대상으로서 유효한 대상인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개념과 정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마을주민 현황 단계에서부터 질문하는 사람도, 답변하는 사람도 두루뭇술하고,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농가 및 농업인 집계 수치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기초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농촌마을의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화는 이미 상수가 된 현실임에

15) 주 : 참고로 현재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에서 쌀 농사는 3-4명이면 모두 재배가능한 수준임(1명 당 35,000평, 12ha).

따라서 더 이상 농촌의 활력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후계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방향 구상이 절실해 보인다. 특히 쌀 농사만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해오던, 고령화된 경제주체에게 새로운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으로 마을에 유입되는 새로운 후계인력에서 어떠한 새로운 투자(작목전환)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면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과학적인 답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적자본 기틀을 마련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정책에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정책구상에 있어서 수정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은 공동체가 존재하는가, 진정으로 그 실체가 있었던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과 같이 더 이상 마을 공동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진 현실에서 오히려 개별단위 경영체 혹은 농가 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17. 『부여군지』 중 “제1권 부여의 지리”. 부여군.
- 성주인 · 송미령 · 정문수 · 민경찬. 2016a.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37-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송미령 · 정문수 · 민경찬. 2016b. “일반 · 원격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R792 연구자료-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37-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박대식 · 정은미 · 민경찬. 2015a. “한국 농촌 마을 심층조사 결과”. R767 연구자료-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박대식 · 정은미 · 민경찬. 2015b. “농촌 사례 지역 정주 여건 및 주민 의식 조사 결과”. R767 연구자료-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중부매일(<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782>)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html/kr/>)

제 6 장

부여군 초촌면 신암1리¹⁶⁾

1. 신암1리의 일반현황

1.1. 마을의 인문·지리·사회적 특성(구명칭:경제적 특성)

16) 주 : 1. 조사개요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면담자)	조사일자	조사방법	조사진행자
강경선 전 한살림공동체대표	2017.08.08.화요일	면담	강마야, 정지인
김재범 전 이장	2017.08.24.목요일	면담	강마야
이보학 생산관리 팀장(한살림부여생산자연협회, 소부리영농조합법인)	2017.08.24.목요일	면담	강마야
김재범 전 이장	2017.08.25.~08.30.	마을조사 가구리스트(자체작성)	김재범, 강마야

2. 조사대상자인 김재범 전 이장의 이력은 신암1리 마을이장(80년대~90년대 초반),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전신인 청마공동체 대표(2000년-2005년),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대표(2006년-2015년), 청마 산소리 권역개발사업 추진위원장(2011년-2015년) 등과 같다. 본인의 농사규모는 쌀(2,000평), 딸기(6개동, 1,200평), 한우(100마리) 이다.

1.1.1. 인구학적 특성(구명청:신암1리의 주민 현황)

신암1리의 현재 총 인구수는 약 150명이고 총 가구수는 60호이다. 이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약 70%이고, 총 가구수 중 농가비율은 약 50%이다. 2005년 이후 도시에서 이주해 온 귀농·귀촌·귀향 가구수는 약 10호(귀농가구 6호, 귀촌가구 4호)로서 16.6%를 차지하고, 고령으로 농사짓지 않는 은퇴농가(대략 80세 이상)는 약 20호로서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10년 전 대비 총 인구수는 자연사망율과 인구유입율이 비슷해서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총 가구수는 매년 꾸준히 1-2호 가구가 유입되는 추세로서 일반적인 농촌마을과 달리 마을의 활력이 있다. 이유는 도시로 나갔던 자식이 다시 마을(귀향 가구)로 유입되거나 귀농·귀촌 가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성주인외(2015)에 따르면, 1970년 대 초 120호에서 이후 이농이 지속되어서 1980년대 후반 60호로 절반 이상 감소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한살림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업을 시작으로 도농교류 활동도 추진하면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여 최근 80호 이상 가구수까지 증가하였고, 현재 81가구 중 40가구 이상이 한살림과 연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한살림과 연계한 경제활동조직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도 44%에 달해서 마을 내 친환경농업활동이 마을 전반으로 확산된 상황은 아니다.

신암1리의 조사대상자 성별 현황은 총 45호 응답자 중 여성 21호, 남성 24호로 비슷한 비중을 보인다. 연령은 70대 이상이 30호로서 66.7%를 차지하고 있다(<표6-1> 참고).

〈표6-1〉 신암1리의 조사대상자 성별 및 연령 현황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성별	여성	21	46.7%
	남성	24	53.3%
	합계	45	100.0%
연령	30대	0	0.0%
	40대	1	2.2%
	50대	9	20.0%
	60대	5	11.1%
	70대 이상	30	66.7%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가구원수는 마을주민 설문조사의 경우 총 45호 응답자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각 18호, 각 40.0%). 마을조사 가구리스트의 경우 총 52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2인 가구는 25호(48.1%),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21호(40.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6-2> 참고).

〈표6-2〉 신암1리의 가구원수

조사항목	구분	설문조사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빈도수(호)	비중(%)	빈도수(호)	비중(%)
가구원수	1인 가구	18	40.0%	21	40.4%
	2인 가구	18	40.0%	25	48.1%
	3인 가구	5	11.1%	3	5.8%
	4인 가구	2	4.4%	1	1.9%
	5인 가구	0	0.0%	1	1.9%
	6인 가구	1	2.2%	-	-
	7인 가구	1	2.2%	-	-
	8인 가구	-	-	1	1.9%
	합계	45	100.0%	52	100.0%

자료 : 1.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신암1리의 가구형태는 총 52호 중 1인 독신가구와 2인 부부 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부 가구는 24호(46.2%), 1인 독신가구는 21호(40.4%)를 차지하고 있다(<표6-3> 참고).

〈표6-3〉 신암1리의 가구형태

조사항목	구분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빈도수(호)	비중(%)
가구형태	1인(독신)	21	40.4%
	부부	24	46.2%
	부부+자녀	4	7.7%
	부부+부모	1	1.9%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	-
	기타 핵가족	-	-
	3세대 이상 가족	2	3.8%
	합계	52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신암1리의 총 52호 중 농가유형은 전업농가 26호(50.0%), 겸업농가 4호(7.7%)로서 이들 농가는 약 58%를 차지하고 있고, 비농가도 10호(19.2%)를 차지할 만큼 높은 편에 속한다(<표6-4> 참고).

〈표6-4〉 신암1리의 농가유형

조사항목	구분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빈도수(호)	비중(%)
농가유형	겸업농가	4	7.7%
	기타(농지없음)	7	13.5%
	기타(농지있음)	5	9.6%
	비농가	10	19.2%
	전업농가	26	50.0%

조사항목	구분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빈도수(호)	비중(%)
	합계	52	100.0%

주 : 비농가가구는 산업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막노동업자 등을 포함함.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1.1.2. 지리적 특성¹⁷⁾(구명칭:자연마을로서 신암1리의 특성)

신암1리 마을지리는 초촌면의 서북쪽에 위치해 부여와 경계를 나누고 남으로는 석성면과 접하며 감투봉을 중심으로 산악지대가 많이 자리하고 그 중앙에 들이 펼쳐져 있다(<그림6-1> 참고). 산악지대는 이곳에 자리한 감투봉을 중심으로 동쪽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신암리 신뎡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는 증산천이 들을 조성하여 그 중앙지대에는 들이 펼쳐지고 남쪽에는 다시 낮은 산악지대가 자리해서 쉽게 산간벽지임을 한눈에 느끼게 하는, 지리적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추양리에 비해서 정주여건은 불리한 지역(성주인외, 2015)이기도 하고, 산속에 둘러쌓여 있는 지형으로서 농사짓기에 척박한 환경으로 보였다(저자 주).

신암1리 마을유래는 조선시대 초기에 바위가 많이 있으므로 신암이라 불렸으며 반남박씨, 신천강씨가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중리와 보각리 일부, 그리고 석성군 증산면 건평리 일부를 병합하여 신암리라 하고 초촌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바위가 많은 지역에 마을이 있으므로 신암, 신뎡이라 하고, 마을이 평정에 있으므로 평정말, 신뎡과 평정말 중간에 있으므로 중뎡, 중말, 가운데뎡, 또는 중리라 부르며 새로된 마을을 새터, 보가 있는데 그 가에 마을이 있다 하여 보각골 또는 마을에 보검장갑형(寶檢藏匣形)의 명당이 있다는 마을이라 보각골이라 부르고 마을지형이 구명처럼

17) 자료 : 1) 부여군청 홈페이지

2) 부여군지

되어 있다 해서 구멍굴이라고 부르는 마을들이 있다. 또한 백제 때로 추정되는 100여기의 고분이 있어 신암리 고분군(莘岩里 古墳群)이라 부른다.

<그림6-1> 신암1리 위성사진



자료 : 네이버 맵(naver map) 위성지도

1.1.3. 사회적 특성(구멍칭:지역사회의 변화)

신암1리는 1989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한 마을이다. 부여군 내에서 한살림 친환경농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지역이자 참여 농가수도 가장 많은 점으로 인해서 부여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불리는 지역이기도 하다. 현재 마을주민들이 환경오염 시설유입을 강력하게 반대할 정도로 친환경마을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그림6-2> 참고).

신암1리는 부여군 내에서도 유일하게 신규로 진입하는, 이주하는 농가가 있는 지역이고 꾸준히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수치 상 가장 많은 귀농·귀촌 가구가 살고 있다. 하지만 지역외부의 수요에 비해서 지역내부의 공급인 거주지 공간과 농사지을 토지가 부족해서 신규 유입을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 원주민이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한국 특유의 정서 상 자식에게 상속할 유일한 수단이 토지이므로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1명이 신규로 유입된 정도이다. 신규 청년농 등과 같이 인구유입이 필요하고 실제 수요도 있으나 정주기반과 생산기반이 부족해서 거의 유입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림6-2〉 신암1리의 전체 경관 사진



1.2. 마을자산 및 경제인프라

1.2.1. 마을의 주요 자산

신암1리의 주요 자산은 <표6-5>와 같다. 구체적으로 자연·생태·경관 자원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2006년 선정)으로 인해서 신암1리 마을일대가 친환경농업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역사문화 자원은 소부리 마을 뒷산에 백제시대 사비인 청마산성이 있다. 이곳은 부여읍내 나성으로 불리고 현재는 마을주민들이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다.

기타 자원은 청마산소리복합문화센터, 소부리 영농조합법인과 그 법인소유의 (친환경)식품가공공장이 있다.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은 신암1리 친환경농업의 모태가 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표6-5〉 신암1리의 주요 자산

자산 유형	주요 자산
자연생태·경관 자원	전형적인 농촌마을 경관, 친환경농업지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
역사문화 자원	소부리 마을 뒷산의 백제시대 사비(청마산성)
기타 자원	청마산소리복합문화센터,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친환경)식품가공공장

1.2.2. 마을의 경제인프라

첫째, 마을의 경제인프라 현황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 및 시설이 있고, 최근에 일반농산어촌권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내 친환경 식품가공공장이 있다(<그림6-3>, <그림6-4> 참고).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및 시설 개요는 다음과 같다(<그림6-3> 참고).

- 지구명 : 부여 초촌 신암지구(소부리 영농조합법인)
- 참여농가수 : 25명(김재범 대표)
 - 100명 중 30% 신암1리 마을주민
- 사업년도 : 2006년도
- 사업비 : 455백만 원(보조 360백만 원, 자부담 95백만 원)
- 시설 및 장비현황 : 부지 4,274㎡, 건축 4동 978㎡, 장비 10종 11대
 - 자재보관창고, 건조기, 퇴비장, 사무실, 저온저장고, 전처리실 등
- 인력 : 상근 인력 5명(대표 1명 제외한 수치, 대표는 비상근 인력, 박봉규 대표)
- 매출액 : 연간 60-70억 원 규모

<그림6-3> 신암1리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 및 시설



이후 2011년-2015년 일반농산어촌권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식품가공공장이 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다(<그림 6-4> 참고). 이 시설을 통해서 판매되는 제품은 콩나물, 아이스딸기, 아이스메

론, 아이스산딸기 등으로서 중하위 품위의 1차농산물을 제조·가공하여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청마 산소리 권역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식품가공공장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청마 산소리 권역개발사업
- 참여농가수 : 친환경농가 약 50여명(김재범 추진위원장)
 - 신암리 30명, 송국리 및 응평리 10명, 기타 지역 10명 이내
- 사업년도 : 2011년~2015년
- 사업비 : 70억 원
- 시설 현황 : 콩나물 가공공장(100평), 급속냉동창고
- 주요 제품 : 콩나물, 농산물 아이스 제품 등
- 사업현황 : 출자한 사람 위주로 친환경 농산물 납품하되 마을주민이 원하면 누구나 참가 가능, 시중 시세보다 약 50% 높게 구매, 수익금은 출자자에게 다시 배당
- 판매처 : 콩나물의 경우 급식에 소량 납품, 전국 생협(한살림) 등 주요 판매처
- 시설가동률 : 현재 80% 수준, 향후 확대할 계획이나 지원투자가 필요한 상황
- 구매현황 : 연간 30톤의 콩나물콩 납품 및 구매
- 만족도 : 매출순이익이 연간 1억 원에 달하여 다시 출자자에게 배당, 배당하고 남은 수익금인 5천만 원은 매년 적립, 농업인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해주니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고 출하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참여의지가 높음.

〈그림6-4〉 신암1리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식품가공공장



- 생협 등과 연계하여 마을 차원의 직거래, 도농교류활동 이뤄짐.
- 별도 영농조합이나 작목반 구성, 일부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공동체활동 이끌어남(참여주체의 한정과 저변확산에 한계, 분배과정에서 마을 내 갈등 소지)
- 한살림 생협이 마을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에 대한 장기간 설득과 교육 수행
- 친환경 작물의 판로 확보 담당
- 마을 내부에 친환경농업 조직의 자율적 정착과 성장 지원
- 초촌면을 비롯한 부여군 주변 마을에 친환경농업 전파
- 마을 간 협력 수행 거점 마을의 역할 수행

자료 : 성주인외(2016),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37-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19.

참고로 성주인외(2016)에서는 신암1리의 신암공동체 및 소부리 영농조합법을 목적지향조직 주도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둘째, 마을의 공유자원(공동경작지, 공동어장 등) 현황은 실제 없다. 하지만 2006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지원받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신암친환경마을 정보화마을사업을 지원받은 바 있다. 마을 전체가 친환경 농업생산기반이기 때문에 신암1리 마을의 공유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을의 상업시설(음식점, 소매점, 민박, 펜션, 커뮤니티 시설, 의료교육복지 시설) 및 공공시설 현황은 일반농산어촌권역개발사업으로 지원받은 문화교류센터이자 도농교류센터인 “청마산소리복합문화센터”가 있다. 여기에 식당, 숙박, 커뮤니티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부손님으로서 주로 방학 기간 동안 교회수련생 및 캠프생이 찾고 있다. 주민들은 먼 소재지에 있는 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1.3. 마을주민의 경제특성

1.3.1.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

신암1리의 농어업 유형은 중복응답을 포함하여 가구원1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쌀농업(26명)과 밭농업(노지,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1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0-6> 참고). 마을의 농어업 유형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3/2의 인구가 쌀과 일부 밭작물로 편중화, 단작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6〉 신암1리의 농어업 유형

단위:명

구분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중복 응답 1	중복 응답 2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15	0	0	4	0	0	6	0	0	3	0	1
쌀농업	25	1	0	19	1	0	0	0	0	1	0	1
밭농업(노지)	1	19	1	0	16	1	0	1	0	0	1	0
시설원예농업	2	1	2	2	1	2	0	0	0	0	0	0
축산업	1	2	2	1	2	2	0	0	1	0	0	0
임업	1	0	0	1	0	0	0	0	0	0	0	0
합계	45	23	5	27	20	5	6	1	1	4	1	2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경제활동 유형은 가구원1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 30명, 퇴직/무직자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0-7> 참고). 마을의 경제활동 유형도 단순한 편으로서 3/1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인구로 구성된 반면, 3/2는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다.

〈표6-7〉 신암1리의 경제활동 유형

단위:명

구분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합계
농어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30	23	1	1	1	0	56
자영업	0	0	2	0	0	0	2
사무/경영/관리	0	2	2	0	0	0	4
생산/기능/노무직	1	0	0	0	0	0	1
판매/영업/서비스	1	0	0	0	0	0	1
주부/학생	0	2	1	1	1	1	6
퇴직/무직	13	0	3	1	0	1	18
미취학	0	0	0	1	0	0	1

구분	가구원1	가구원2	가구원3	가구원4	가구원5	가구원6	합계
합계	45	27	9	4	2	2	89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주요 경제활동은 대부분 농림어업으로서 29호(64.4%)를 차지하고 나머지 주부/학생/무직이 13호(28.9%)를 차지하였다(<표0-8> 참고). 마을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림어업이 64%이상을 차지할 만큼 농림어업의 의존도가 높고, 단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6-8〉 신암1리의 주요 경제활동

구분	빈도수(호)	비중(%)
농림어업	29	64.4%
자영업(소도매, 요식업 등)	1	2.2%
사무/경영/관리	1	2.2%
생산/기능/노무직	1	2.2%
판매/영업/서비스	0	0.0%
주부/학생/무직	13	28.9%
합계	45	100.0%

주: 가구에서 70%이상의 시간을 차지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응답임.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주요 작목 현황은 대부분 쌀 작목으로서 19호(36.5%)를 차지하고 나머지 축산(한우), 딸기(시설), 임산(밤) 순으로 나타났다(<표0-9> 참고). 즉, 마을의 주요 작목은 3/1이 쌀 작목 재배, 3/1이 각종 밭작물 재배, 나머지 3/1은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배하는 작목 구조가 매우 단순한 편이고 다양화되어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6-9〉 신암1리의 주요 작목 현황

구분	빈도수(호)	비중(%)
고구마	1	1.9%
딸기(시설)	2	3.8%
임산(밤)	2	3.8%
쌀	19	36.5%
축산(한우)	2	3.8%
콩	1	1.9%
특작 노지(고추)	1	1.9%
특작 시설(딸기)	1	1.9%
표고버섯	1	1.9%
무응답	22	42.3%
합계	52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신암1리의 경작규모별 현황은 1,000평~3,000평 규모에 11호 분포(22.4%)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1,000평 이하 규모에 6호 분포(12.2%), 3,000평~6,000 평 규모에 5호 분포(10.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0-10> 참고). 마을의 경작규모는 대부분 1ha미만으로서 전국 평균 규모와 비슷하고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신암1리 지리적 특성은 깊게 패인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규모화할 수 있는 지형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표6-10〉 신암1리의 경작규모별 현황

구분	빈도수(호)	비중(%)
1,000평 이하	6	12.2%
1,000평~3,000평	11	22.4%
3,000평~6,000평	5	10.2%
6,000평~10,000평	1	2.0%
10,000평 이상	4	8.2%
무응답	22	44.9%

구분	빈도수(호)	비중(%)
총합계	49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1.3.2. 마을 주민의 소득 구조 및 특성

신암1리의 가구총수입은 5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15호로서 가장 높은 비중인 33.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00만 원~1천만 원인 가구는 7호(15.6%), 1천만 원~2천만 원인 가구는 6호(13.3%), 3천만 원~4천만 원/4천만 원~5천만 원/5천만 원~1억 원 가구는 각 5호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농어업소득은 500만 원~2천만 원인 가구가 대부분으로서 약 15호(33.4%)를 차지하고 있고, 임금소득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11> 참고). 마을의 소득구조 특징은 연간 가구 총수입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임금 소득보다 농어업 소득이 가구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농어업 소득의 존도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6-11〉 신암1리의 소득구조(가구 총수입, 농어업 소득, 임금 소득)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가구 총수입	0~500만 원	15	33.3%
	500만 원~1천만 원	7	15.6%
	1천만 원~2천만 원	6	13.3%
	2천만 원~3천만 원	2	4.4%
	3천만 원~4천만 원	5	11.1%
	4천만 원~5천만 원	5	11.1%
	5천만 원~1억 원	5	11.1%
	합계	45	100.0%
농어업 소득	해당항목없음	15	33.3%
	0~500만 원	2	4.4%
	500만 원~1천만 원	8	17.8%
	1천만 원~2천만 원	7	15.6%
	2천만 원~3천만 원	4	8.9%
	3천만 원~4천만 원	3	6.7%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4천만 원~5천만 원	1	2.2%
	5천만 원~1억 원	5	11.1%
	합계	45	100.0%
임금 소득	해당항목없음	40	88.9%
	0~500만 원	0	0.0%
	500만 원~1천만 원	0	0.0%
	1천만 원~2천만 원	2	4.4%
	2천만 원~3천만 원	1	2.2%
	3천만 원~4천만 원	2	4.4%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1억 원	0	0.0%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비농업 사업소득은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금 및 정부지원금은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29호로서 6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도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30호로서 66.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6-12> 참고). 마을의 농업 이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은 전무한 편이지만 연금, 정부지원금, 이전소득 등을 통해서 가구소득을 보완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표6-12〉 신암1리의 소득구조(비농업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비농업 사업소득	해당항목없음	43	95.6%
	0~500만 원	0	0.0%
	500만 원~1천만 원	0	0.0%
	1천만 원~2천만 원	1	2.2%
	2천만 원~3천만 원	1	2.2%
	3천만 원~4천만 원	0	0.0%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1억 원	0	0.0%
	합계	45	100.0%
연금 및 정부지원금	해당항목없음	16	35.6%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0~500만 원	29	64.4%
	500만 원~1천만 원	0	0.0%
	1천만 원~2천만 원	0	0.0%
	2천만 원~3천만 원	0	0.0%
	3천만 원~4천만 원	0	0.0%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1억 원	0	0.0%
	합계	45	100.0%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해당항목없음	14	31.1%
	0~500만 원	30	66.7%
	500만 원~1천만 원	1	2.2%
	1천만 원~2천만 원	0	0.0%
	2천만 원~3천만 원	0	0.0%
	3천만 원~4천만 원	0	0.0%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1억 원	0	0.0%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과거 5년 전 대비 소득수준 의식을 조사한 결과, 총 소득 변화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37호(82.2%)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년 전 대비 소득 증가 소득원에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41호(91.1%), 5년 전 대비 소득 감소 소득원에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33호(73.3%), 그 다음으로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10호(22.2%)를 차지하고 있다(<표6-13> 참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 의식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뚜렷한 증가 소득원도, 감소 소득원도 없었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13〉 신암1리의 과거 5년 전 대비 소득수준 의식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5년 전 대비 총 소득 변화	크게 감소하였다(연 천만 원 이상).	1	2.2%
	소폭 감소하였다(연 500만 원 내외).	6	13.3%
	큰 변화가 없다.	37	82.2%
	소폭 증가하였다(연 500만 원 내외).	1	2.2%
	크게 증가하였다(연 천만 원 이상).	0	0.0%
	잘 모르겠다.	0	0.0%
	합계	45	100.0%
5년 전 대비 소득 증가 소득원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2	4.4%
	임금 소득	1	2.2%
	비농어업 사업소득(자영업, 기타 사업체 등)	1	2.2%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0	0.0%
	없음.	41	91.1%
	합계	45	100.0%
5년 전 대비 소득 감소 소득원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10	22.2%
	임금 소득	1	2.2%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1	2.2%
	없음.	33	73.3%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향후 5년 소득수준 의식을 조사한 결과, 향후 5년 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수준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35호(77.8%)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5년 예상소득 증가 소득원에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42호(93.3%), 향후 5년 예상소득 감소 소득원에도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37호(82.2%), 그 다음으로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7호(15.6%)를 차지하고 있다(<표0-14>참고). 미래의 소득수준 의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증가 소득원도, 감소 소득원도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표6-14〉 신암1리의 향후 5년 소득수준 의식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향후 5년 변화 예상 소득	크게 감소할 것	3	6.7%
	소폭 감소할 것	5	11.1%
	큰 변화가 없을 것	35	77.8%
	소폭 증가할 것	2	4.4%
	합계	45	100.0%
향후 5년 예상 소득 증가 소득원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2	4.4%
	임금 소득	0	0.0%
	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1	2.2%
	없음.	42	93.3%
	합계	45	100.0%
향후 5년 예상 소득 감소 소득원	농어업 소득(농어업 생산 소득)	7	15.6%
	임금 소득	1	2.2%
	이전 소득 및 기타(용돈, 증여, 금융 소득 등)	0	0.0%
	없음.	37	82.2%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농어업 이외 경제활동 의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45호 모두 “없음”이라고 응답하였다(<표6-15> 참고). 농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 활동 의향에 대해서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거나 미래에 대한 심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6-15〉 신암1리의 농어업 이외 경제활동 의향

구분	빈도수(호)	비중(%)
없음	45	100.0
생산/기능/노무업	0	0.0
판매/영업/서비스업	0	0.0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1.3.3. 마을 주민의 소비 구조 및 특성

신암1리의 작년 소비지출 규모 대비 현재 소비구조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가구 총지출이 1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25호(55.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농어업 경영비가 1천만 원 이하인 가구는 17호(56.7%)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년 전과 현재의 소비지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36호(80.0%)를 차지하고 있다(<표0-16> 참고). 마을의 소비지출 구조 특징은 가구 총수입이 5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부분이지만 소비지출은 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 시 소비지출 규모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소득수준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상황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표6-16〉 신암1리의 소비지출 구조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가구 총지출(작년 소비지출 규모)	1천만 원 이하	25	55.6%
	1천만 원~2천만 원	6	13.3%
	2천만 원~3천만 원	9	20.0%
	3천만 원~4천만 원	4	8.9%
	4천만 원~5천만 원	1	2.2%
	5천만 원 이상	0	0.0%
	합계	45	100.0%
농어업 경영비(작년 소비지출 규모)	1천만 원 이하	17	56.7%
	1천만 원~2천만 원	9	30.0%
	2천만 원~3천만 원	2	6.7%
	3천만 원~4천만 원	2	6.7%
	4천만 원~5천만 원	0	0.0%
	5천만 원 이상	0	0.0%
	합계	30	100.0%
5년 전과 현재의 소비지출 규모	크게 감소하였다.	1	2.2%
	소폭 감소하였다.	3	6.7%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큰 변화가 없다.	36	80.0%
	소폭 증가하였다.	2	4.4%
	크게 증가하였다.	2	4.4%
	잘 모르겠다.	1	2.2%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소비지출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1순위는 식료품·의류구입·이발 등 생활비, 2순위는 월세·전기세·난방비 등 주거비, 3순위는 진료 및 약품구입 등 의료비 순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0-17> 참고). 마을의 소비지출 세부항목 특징은 문화 및 여가, 교통 및 통신 등과 같은 부가적 비용보다 의식주와 관련된 기초적 비용 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17〉 신암1리의 소비지출 세부항목

단위:호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생활비(식료품, 의류 구입, 이발 등)	23	18	3	44
주거비(월세, 전기세, 난방비 등)	4	10	28	42
의료비(진료, 약품구입등)	15	15	7	37
문화/여가(여행, 취미, 영화관람 등)	0	0	0	0
교육비(자녀 학자금, 학원비, 직업훈련 등)	2	1	0	3
교통/통신비	0	1	6	7
부채상환	1	0	1	2
합계	45	45	45	135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 신암1리의 경제현황

2.1. 농업활동의 실태

2.1.1. 농업활동과 관련된 과거의 변화

신암1리가 친환경농업의 메카가 된 이유는 대구 한살림 주창자인 천규석 씨와 객지에서 온 양봉인인 강수옥씨가 만나고 결혼해서 친환경(무농약) 딸기 농사를 조그만 땅에서 심심풀이 삼아서 재배하기 시작한 때인 1980년 후반부터이다. 1991년 신암리 7호 농가가 무농약딸기를 서울 한살림에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1/2가격으로 공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후 1993년 친환경딸기 공급이 절실하게 되었고 산지가 이에 대응해서 움직여야 했고 이를 계기로 신암1리에 친환경농업공동체가 본격적으로 결성된 것이다. 소비자는 친환경딸기와 포도를 선호하는데 공급물량이 턱없이 모자랐고 확대하기에는 한살림 초기 투자금이 부족했다. 그 이후 오리농법쌀이 유행했고 이후 우렁이농법쌀이 유행하면서 친환경농업 저변이 확대되었다.

신암1리가 친환경농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산간 지대에 입지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대규모 쌀 단지 조성이 열악한 조건이고, 새로운 친환경 소득작목을 시도하면서 농업활동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대 친환경농업을 할 때 어려웠던 점은 소비자로부터의 농산물 리콜 문제였고 생산자들은 매우 당혹스러워하였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

는다고 하면 다수확 및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미쳤다고 비웃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농업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소비성향의 변화로 인해서 다시 친환경농업인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전환되어서 다행이라고 느낀다.

1990년대 친환경농업을 할 때 좋았던 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친환경농업을 한껏 성장했다는 것이다. 농산물의 상/중/하 품질등급에 관계없이 유통 및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

1990년대 법인 창립당시에는 ‘청마영농조합법인’으로 출발, 초대대표는 강경선, 참여인원은 전원 신암1리 8명으로 출자액은 1인당 논면적 4마지기(800평) 규모, 총 4,000만 원을 모았다. 현재 시세로는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중간에 우여곡절과 갈등으로 인해서 2000년도에 참여인원 구성의 변화가 있었는데 한살림 참여농가가 늘어나기 시작하여서 마을주민 10명과 마을 외 주민 5명 등 총 15명이 참여해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으로 다시 출발하였다. 2006년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였고 한살림 생산자연합회 부여연합회¹⁸⁾ 중 하나인 신암공동체와 5개 품목별 친환경작목반 활동 중이다(성주인외, 2016). ‘소부리’라는 이름의 연원은 백제시대 옛마을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즉, 신암1리 친환경농업의 모태가 되는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 100여명까지 참여인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신암1리 마을주민은 30여명(30%)이 참가하고 있다. 점차 마을 외의 외부지역 사람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주로 부여군 타읍면(규암면은 별도 분리해나감), 논산시 일대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암1리 마을주민이 참여인원 중 제일 고령화된 상태이다. 총 5억 원을 출자해서 만들었다.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의 현재 실적은 연간 60~7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18) 주 : 부여연합회는 인근 행정리까지 포함한 7개 공동체가 소속되어 있고 주로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성주인외, 2016).

하지만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기 보다는 3년 쯤 매출이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한다. 영농법인 내 시설은 회의실, 일반 물류창고, 퇴비사, 전처리실, 저온저장고, 건조기, 냉동차량 2대 등이 있다. 2006년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것이다. 주요 판매처는 한살림이고, 농산물 중 쌀, 딸기, 메론, 수박, 양송이버섯, 산딸기, 콩나물, 각종 채소류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농가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출하한다. 1농가 당 재배면적은 하우스 4동~5동 규모이다(1동 당 200평이므로 800평~1,000평).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이 신암리 주민 외에도 다른 마을 주민까지 회원으로 포함한 사업조직체라면 다시 내부적으로 신암리 내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30호 농가 내외)만을 포함한 신암공동체가 존재한다. 신암공동체는 한살림생산자연협회 충남지부 부여연합회 소속 일원이다. 2016년 조사 당시에는 신암공동체의 회원수는 약 34농가였다(성주인외, 2016).

2.1.2. 주요 생산 작목의 현황과 특성

신암1리 마을의 주요 작목은 쌀과 친환경 딸기이다(<표0-18> 참고).

쌀은 총 30농가, 총 140,000평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일반관행 쌀과 친환경 쌀은 각 50% 비중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 쌀은 70,000평 면적에 해당한다. 일반관행과 친환경쌀은 포함한 규모는 4명이 위탁영농 형태로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반관행 쌀은 별도의 작목반 조직은 없고 신암1리 일반농가가 거의 대부분 농사짓고 있다. 초촌농협 RPC로 전량 판매(수매)한다. 반면, 친환경 쌀은 전량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유통되고 전량 한살림에 판매되고 있다.

친환경 딸기는 6농가, 6,000평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대부분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1농가 당 평균 1,000평 규모인데 시설하우스 5동에 해당한다.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유통되고 전량 한살림에 판매되고 있다.

즉, 신암1리의 주요 생산 작목은 쌀 농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친환경 딸기, 메론, 양송이버섯, 수박, 생강 등 근채류, 모시 등의 신규 작목재배를 일부 시도하고 있다. 한살림 생협을 활용한 판로확보에 나서면서 마을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표6-18〉 신암1리의 주요 작목 현황

주요 작목	총 경작면적 및 수확량	생산 및 가공방식	유통 및 판매방식
쌀(전체)	30농가, 총 140,000 평	4명 위탁영농 형태로 생산가능한 수준 1차생산 방식	
_쌀(일반관행)	일반관행(50%) : 70,000 평	신암1리 일반농가 별도의 작목반 없음 1차생산 방식	초촌농협 RPC 전량판매(수매)
_쌀(친환경)	친환경(50%) : 70,000 평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소속(출자) 조합원 1차생산 방식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전량 한살림 판매
딸기(친환경)	6농가, 6,000평, 유기농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소속(출자) 조합원 1차생산 방식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전량 한살림 판매

2.1.3. 마을의 농지 현황

신암1리는 경작지 임대차 활용 부분은 대부분 자가소유이고 자가경작을 하는 편이다. 외부인이 소유한 경우는 약 10% 미만에 불과하다. 즉, 2명만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 농가는 죽을 때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 임대 규모는 총 4,000평(1명 당 2,000평)에 해당한다.

신암1리의 과거 5년 전 농업활동을 위한 농지면적을 비교해보면, “큰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27호로서 90.0%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표 0-19> 참고).

〈표6-19〉 신암1리의 과거(5년 전) 농업활동 면적 비교

구분	빈도수(호)	비중(%)
크게 감소하였다.	2	6.7%
소폭 감소하였다.	0	0.0%
큰 변화가 없다.	27	90.0%
소폭 증가하였다.	0	0.0%
크게 증가하였다.	0	0.0%
잘 모르겠다.	1	3.3%
합계	30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1.4. 마을농업의 대응 실태

신암1리 마을 전체적으로 농사활동 현황을 보면,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은 채소류 등 다양한 품목의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외에는 모두 쌀 농사를 짓고 있다. 현재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량(특히 쌀)이 초과되어서 신규 조합원 가입은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고, 조합원의 고령화로 인해서 타작목으로 전환 유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암1리 마을의 경제활동조직으로는 공동체경제조직인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살림 생산자연합회(신암공동체)와 품목별 친환경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조직이 활성화된 편이다(성주인외, 2016). 이들은 2개월에 1회 가량 회의를 하고 생산과 출하 등 전반적인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안을 협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암1리의 향후 농어업 활동에 있어서 규모 확대 의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24호로서 80.0%를 차지할 정도로 현재 유지에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구도 각 2호로서 6.7%를 차지하고 있다(<표6-20> 참고).

〈표6-20〉 신암1리의 향후 농어업 활동 규모 확대 의사

구분	빈도수(호)	비중(%)
확대/발전시키고 싶다.	1	3.3%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24	80.0%
현재보다 축소할 것이다.	2	6.7%
모두 그만두고 싶다.	1	3.3%
잘 모르겠다.	2	6.7%
합계	30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농어업 후계자 유무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27호로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미래 후계영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는 농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표6-21> 참고).

〈표6-21〉 신암1리의 농어업 후계자 유무

단위:호

후계자 유무	있다	없다	합계
	3	27	3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은퇴 시 농지계획은 “구체적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가 19호(63.3%)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농업 종사 이후의 미래 영농 기반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표6-22> 참고).

〈표6-22〉 신암1리의 은퇴 시 농지 계획

구분	빈도수(호)	비중(%)
자식에게 맡겨 계속 농사를 짓게 하겠다.	2	6.7%
자식에게 상속하겠다.	6	20.0%
다른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영농을 대행하겠다.	0	0.0%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겠다.	3	10.0%
구체적 계획이 없다.	19	63.3%
현재 농지를 임차하고 있다.	0	0.0%
합계	30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를 조사한 결과, “직거래 및 직판장 운영”이라고 응답한 가구가 17호(56.7%)로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없다(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가구도 9호(30.0%)를 차지하고 있다. 농산물물의 직거래와 직접판매 활동에 대한 의사표시는 결국 현재 농업소득 문제를 유통문제의 해결로서 풀고자 하는 열망을 읽을 수 있다(<표6-23> 참고).

〈표6-23〉 신암1리의 농업 관련 다른 경제활동 수행 의사

구분	빈도수(호)	비중(%)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3	10.0%
직거래 및 직판장 운영	17	56.7%
농어가 민박 및 음식점 운영	0	0.0%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1	3.3%
없다(하고 싶지 않다).	9	30.0%
합계	30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2. 영농방식의 시도와 변화

2.2.1. 영농방식의 변화

신암1리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모내기할 때 마을 내 공동영농작업 방식을 수행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동영농작업은 거의 하지 않고 도농교류사업으로서 모내기 체험, 딸기 수확 체험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정도이다.

신암1리는 쌀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은 140,000평인데 4명에게 대부분 모심기부터 수확단계까지 위탁영농을 하고 있다. 장비는 대형장비를 구비하고 있고 신암1리 내 경지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경영체당 더 이상 규모를 확대하지는 못하고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들에게 영농을 위탁하게 되는 것이다.

신암1리는 딸기의 경우, 현재 6가구가 모두 자가경작으로 농사짓고 있는데 더 이상 확대할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1가구 당 시설하우스 평균 5개동(총 1,00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2명(부부)이 최대한 경작가능한 규모라고 보는 것이다.

신암1리는 고령화 및 노동력 감소에 따라서 고령농의 경작면적은 유지 혹은 감소 추세이고, 청년농은 확대 추세이다. 고령농은 평균 2,000평~3,000평 규모에서 일반관행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 신규로 진입한 취농인·청년농업인·귀농인은 20,000평 규모에서 대부분 친환경방식으로 농사를 하고 있다. 고령농과 신규 취농인 간 경지규모는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셈이다.

2.2.2. 농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신암1리는 쌀의 경우 농협 RPC를 통해 전량 판매(수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채소류 등의 작목은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에 의존하여 유통과 판매를 하고 있다.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은 한살림에 전량 납품하고 있는 구조로서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부여군 지역 뿐만 아니라 점차 타 지역의 농가 참여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생협 이외에 학교급식 납품 등으로 새로운 판로 개척을 시도하고 있으나 물량은 그리 많지 않다.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산지의 품위 및 품질 기준 등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맞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을 부여군 학교급식 공급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광역단위 공급까지 구상하면서 향후 학교급식으로의 공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2.2.3. 마을농업의 최근 시도

신암1리는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이 1차 농산물 생산을 뛰어넘어 최근 (친환경)식품가공공장을 통해서 2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소비패턴의 변화로 농산물 원물보다 농산물 가공상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도 상품의 다양화 및 시설 가동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 산지 입장에서는 중하위 품위의 상품을 가공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도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스딸기는 생과의 70-80% 가격 수준이지만 농가에게는 10-15% 농업소득을 향상시켜주고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마을 내 농업인은 대략 50명이지만 이 중 30명이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 딸기, 메론, 양송이버섯, 수박, 생강 등 근채류, 모시 등을 신규작목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의 전 대표가 보기에 1단계에서 2단계로 도약하기 위

해서는 혁신적인 리더가 필요한데 현 대표의 역량과 리더십에 변화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1단계에서의 연간 70억 원 매출액은 2단계에서 100억 원 매출액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3년 째 제자리 걸음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마을 내에서 리더로서 책임자를 발굴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활동조직을 통해서 마을 농업생산 활동의 변화를 가져온 점은 분명해 보인다. 마을 내 경제활동조직이 활기를 띄면서 마을에 귀농인구가 점차 유입되면서 마을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된 점, 마을을 넘어서서 지역 내외부 적절한 연계 관계가 형성되어 신암리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안정적으로 확대 및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이 그것이다(성주인외, 2016).

2.3. 비농업활동의 특성 및 변화

2.3.1. 비농업 경제활동의 특성

신암1리 마을 내 비농가로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소농들이고 이들은 주로 텃밭 수준을 재배하는 정도이다. 마을 내 비농가는 외부지역으로 농작업 활동을 나간다. 활동범위는 부여는 물론이고 인근 논산까지 진출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농작업은 메론 및 딸기 수확, 수박 줄기 따기 등이다. 1일 60,000원 임금(2끼니 식사, 간식 포함)을 받고 있고 용역업체 차량으로 작업장까지 이동한다.

신암1리의 비농업활동 현황을 보면 무응답을 제외하면 피고용 상시가 대부분이고 자가임시, 자가상시, 피고용 임시 등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표 6-24> 참고).

〈표6-24〉 신암1리의 비농업활동 현황

구분	취업형태	취업처	빈도수(호)	비중(%)
취업형태 및 취업처	개인운영	-	-	-
	자가임시	마을(행정리)	1	1.9%
	자가상시	-	1	1.9%
	피고용 상시	시군밖	3	5.8%
	피고용 임시	시군내	1	1.9%
	무응답	-	46	88.5%
	총합계	-	52	100.0%

자료 : 마을조사 가구리스트 결과(2017)

2.3.2. 마을의 다면적 경제 활동

신암 1리의 다면적 경제활동으로는 신암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한살림 소비지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과 하는 도농교류사업이 있다. 대표적으로 모내기 체험, 딸기 수확 체험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권역개발사업의 일환인 도농교류센터인 “청마산소리복합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연간 약 2,000명이 방문하는데 1,600만 원 지원금으로 운영비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명 : 청마 산소리 권역개발사업
- 시설명 : 청마산소리복합문화센터
- 업종 : 숙박업
- 운영 현황 : 상근직 사무장 없음, 이장이 운영위원장 겸직 중
- 이용객 현황 : 연간 약 2,000여명+α 이용
 - 성경학교 운영 시 20일 간 100여명 방문(최소 2,000명)
- 매출 현황 : 연간 1,600만 원 지원금으로 운영비 겨우 맞추는 수준
 - 권역사업 지원 8억 원+ 마을/법인 지원 2억 원 = 약 10억 원 마을로 환원/지원
 -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이 마을에 연간 8천만 원 지원(소득사업 수익창출금)
 - 10억 원 지원금 중 연간 1,6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이를 운영비로 사용 중

○ 성과 : 마을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 평가 :

-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 부족
- 도농교류센터의 홍보 관리 미흡한 편
- 이장(운영위원장)의 노력 부족
-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이장에게 맡기고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
- 마을주민의 보수적 성향으로 인해서 귀농 및 귀촌인에게 쉽게 위임하지도 않음.
- 인적자원을 제대로 발굴하는 노력 부족, 운영주체 발굴 쉽지 않음.

현재 신암1리 마을에서 이뤄지는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은 거의 없다. 농사규모가 자체가 작아지고 있고 각자 개인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공동으로 작업할 상황은 아니고, 공동체 의식수준이 없다. 고령인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민은 늘 바쁘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행정에서 많은 것을 처리해주었지만 현재는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고 그만큼 할 일이 증가해서 항상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신암1리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조사 결과,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및 농어촌 관광(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은 수행하지 않았고,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직거래, 직판장, 로컬푸드 등)는 개별적으로 수행한다는 가구가 12호를 차지하고 있고,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한다는 가구도 4호를 차지하고 있다(<표6-25> 참고). 6차산업 수행실적은 미비하긴 하지만 직거래 판매에 대한 수행은 있는 편으로서 농업생산 활동 이후에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25〉 신암1리의 6차산업 항목별 수행 여부

단위:호

구분	농수특산물 가공품 생산	농수특산물 직접 판매(직거래, 직판장, 로컬푸드 등)	농어촌 관광(숙박, 음식, 체험활동 등)	기타
수행하지 않는다.	30	14	30	30
개별적 수행	0	12	0	0
영농회사법인 등 조직으로 수행	0	4	0	0
합계	30	30	30	3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다면적 경제활동 의식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증진에 약간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가구는 13호(81.3%)이다. 향후 참여 및 운영의사가 “없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5호,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구도 5호인 것으로 파악된다(<표6-26> 참고). 다면적 경제활동이 가구의 소득증진에 약간의 도움은 되었으나 향후 참여할 의사는 다소 머뭇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26〉 신암1리의 다면적 경제활동 의식 현황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소득 증진 도움 정도	큰 도움이 된다.	0	0.0%
	약간 도움이 된다.	13	81.3%
	보통이다.	2	12.5%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1	6.3%
	합계	16	100.0%
참여 및 운영 의사	매우 그렇다.(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0	0.0%
	그렇다.	0	0.0%
	보통이다.	1	7.1%
	아니다.	5	35.7%
	전혀 아니다.(참여할 생각이 없다.)	3	21.4%
	잘 모르겠다.	5	35.7%

조사항목	구분	빈도수(호)	비중(%)
	합계	14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4. 공동체 기반의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

2.4.1. 마을의 공동체 활동

신암1의 공동체 활동은 신암공동체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마을 전체 60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이므로 대표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홈페이지에 소개된 2016년 10월 현재의 신암공동체 현황이다.

○ 신암공동체 기본사항

- 주소지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일대
- 소속 :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충남지부 부여연합회 7개 공동체 중 하나

○ 신암공동체 소개

- 한살림 부여생산자연합회의 전신인 소부리(청마) 공동체로 처음 시작한 마을입니다.
- 1994년 강수옥 생산자를 비롯한 다섯 농가가 친환경 딸기 재배를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 신암리는 1995년 한살림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 지난 2008년 행자부로부터 친환경 생태마을로 지정받은 신암공동체는 현재 28농가가 서로 도우며 농업살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주 작목은 벼와 딸기이며, 여름생명학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행사를 소비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3년 3월에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와 자매결연을 하였으며 신암리와 인근 4개리가 연합하여 청마산소리 권역 마을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신암리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첨단 숙박설비와 연수시설을 갖췄습니다.
- 지역한살림의 다양한 연수 및 생산지 체험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암공동체 역사

- 1994년 : 친환경 딸기 농사 시작
- 1995년 : 한살림 최초로 오리농법 도입
- 2008년 : 행자부로부터 친환경 생태마을 지정
- 2013년 :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와 자매결연
○ 신암공동체 회원 및 필지현황
- 회원수 : 28농가
- 필지현황 : 논 53,000평, 밭 5,000평, 하우스 15,000평
○ 월례회의 : 한달에 1번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요 시 수시 진행
○ 주요 물품 : 쌀, 딸기, 표고버섯
○ 자매결연 소비지 : 한살림경기남부 군포지부
※ 참고 :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여연합회 공동체는 7개(딸기와 메론 재배하는 참벗공동체, 수박 재배하는 진호공동체, 오리농법 쌀과 딸기를 재배하는 신암공동체, 채소류 재배하는 소사공동체, 양송이버섯을 재배하는 선사공동체, 산딸기 등 재배하는 산벌공동체, 쌀과 땅두를 재배하는 만지울공동체)

자료 : 한살림생산자연합회홈페이지(<http://farm.hansalim.or.kr/wp/?p=1416>)

2.4.2. 마을의 공동체 기반 경제조직의 실태와 변화

신암1리의 가구별 참여하고 있는 경제조직은 중복응답을 고려해서 작목반이 대다수이고, 그 다음으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순으로 나타났다(<표6-27> 참고). 하지만 면담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을 내 공동체 기반의 경제조직으로 보고 있는 현재의 작목반 조직은 강한 경제적 결속력을 갖기 보다는 친목 수준의 모임수준으로만 작용하고 있어서 경제 조직의 결사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표6-27〉 신암1리의 가구별 참여 경제조직

구분	빈도수(호)		
	중복응답1	중복응답2	중복응답3
작목반	7	0	0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3	2	0
없음/무응답	0	0	1

구분	빈도수(호)		
	중복응답1	중복응답2	중복응답3
합계	35	0	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의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을 조사한 결과, 마을공동시설 운영 및 공동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마을 공동의 6차산업,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등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6-28> 참고). 마을 내 유형 자원이자 기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6-28〉 신암1리의 마을활동 항목별 참여 수준

구분	활동여부(호)		평균값	표준편차
마을공동시설 운영: 육묘장, 농기계, 창고, 마을어장, 양식장 등	있다	28	1.43	1.069
	없다	17		
공동생산활동: 두레, 품앗이 등	있다	45	1.78	1.204
	없다	0		
공동어업활동	있다	0	-	-
	없다	45		
마을 공동 6차산업: 식품가공, 판매, 체험.관광 등	있다	0	-	-
	없다	45		
기타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 마을복지, 문화향유, 주택개선사업 등	있다	0	-	-
	없다	45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4.3. 마을/지역단위 경제활동에 대한 주민 인식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조사 결과,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6호(35.6%),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4호(31.1%)를 차지하였다(<표6-29>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 활동이 가정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29〉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구분	빈도수(호)	비중(%)
큰 도움이 된다.	0	0.0%
약간 도움이 된다.	16	35.6%
보통이다.	14	31.1%
도움이 별로 안 된다.	11	24.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	2.2%
잘 모르겠다.	3	6.7%
모름 / 무응답	0	0.0%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과거 5년 전 대비 활성화 정도를 묻는 조사 결과,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23호(51.1%)로서 높은 비중을 보인다(<표6-30>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과거와 비교했을 시 약간 후퇴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30〉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과거(5년 전) 대비 활성화 정도

구분	빈도수(호)	비중(%)
5년 전에 비해 활발해졌다.	7	15.6%
5년 전과 변함없이 활발하다.	5	11.1%
5년 전과 변함없이 저조하다.	23	51.1%
5년 전에 비해 침체되었다.	3	6.7%
잘 모르겠다.	7	15.6%
모름/무응답	0	0.0%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묻는 조사 결과,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7호(37.8%), “보통이다”라고 응

답한 가구는 11호(24.4%),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고 응답한 가구는 12호(26.7%)를 차지하고 있다(<표6-31>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긍정과 부정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표6-31〉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마을발전 도움 정도

구분	빈도수(호)	비중(%)
큰 도움이 된다.	1	2.2%
약간 도움이 된다.	17	37.8%
보통이다.	11	24.4%
도움이 별로 안 된다.	12	26.7%
전혀 도움이 안 된다.	0	0.0%
잘 모르겠다.	4	8.9%
모름 / 무응답	0	0.0%
합계	45	100.0%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장 높은 긍정적 영향으로서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회복”를 들었고, 가장 낮은 긍정적 영향으로서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를 들었다(<표6-32>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은 마을 주민 간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표6-32〉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긍정적 영향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마을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3.33	0.798
마을 주민 사이의 교류 증대와 관계회복	2.71	0.944
마을 노인과 저소득가구 등의 복지 혜택 증가	3.49	0.661
마을에 살려 온 귀농어귀촌인 증가	3.53	0.694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3.20	0.842
마을 농수산물의 판로 개척	3.33	0.707
마을 브랜드 가치 향상 혹은 홍보 효과	3.67	0.477

주 : 5점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1점), 보통이다(3점), 매우 아니다(5점)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가장 높은 부정적 영향으로서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 간 합의가 쉽지 않아서 갈등 증폭, “매출과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 발생”으로 보고 있었다. 가장 낮은 부정적 영향으로서 “판매하려는 품목이나 종목 선정 잘못”, “판로 확대나 고객 확보 어려움”을 들었다(<표6-33> 참고).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은 주민 간 갈등문제, 경제적 피해를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표6-33〉 신암1리 마을 공동경제활동의 부정적 영향

구분	평균값	표준편차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 간 합의가 쉽지 않아 갈등 증폭	3.64	0.529
마을 주민 간 수익이 불공정하게 분배	3.76	0.484
매출과 수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 발생	3.64	0.609
판매하려는 품목이나 종목 선정 잘못	3.80	0.588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할 주민이 부족하거나 경험 부족으로 역량 미달	3.69	0.514
정부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 사업 유지 어려움	3.71	0.506
판로 확대나 고객 확보 어려움	3.80	0.457

주 : 5점 척도로써 매우 그렇다(1점), 보통이다(3점), 매우 아니다(5점)

자료 : 마을주민 설문조사 결과(2017)

2.5. 정부 정책과 경제활동과의 관계

2.5.1. 마을 행정지원사업의 내역 및 성과

신암1리에 그동안 지원되었던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첫 번째로 2006년 신암1리에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과 정보화마을 사업, 두 번

째로, 2011년-2014년 신암1리와 신암2리에 지원된 일반농산어촌개발권역사업(소부리권역사업)¹⁹⁾, 세 번째로, 2011년 신암1리에 지원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신앙전통테마마을)을 진행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2015년 청마 산소리 권역사업²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재 마을이장이 권역개발사업 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구조이고, 김재범 전 대표는 권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였다. 3개 마을이 모여서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당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신암리, 응평리, 송국리가 참여하였다. 약 70억 원 규모인데, 신암1리는 친환경과 관련된 소득사업(시설지원), 응평리와 송국리는 복지 및 편의사업(시설지원)으로 주제를 설정하였다. 주로 신암리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였고 문화교류센터이자 도농교류센터인 “청마산소리복합문화센터”도 신암1리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신암1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친환경)식품가공공장 설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당초 사업신청 시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추진위원 간에도 반대의견이 많았고, 당초 계획은 친환경타운조성이었지만 여러 가지 소득사업 추진으로 변경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 다음으로는 2011년 농촌진흥청의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지원받은 경험 이 있다. 부여군 내에서 제일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한 지역이기도 하다. 약 2억 원 규모인데 체험관, 노인정 옆에 위치한 초가집, 주막집 등 건물을 지었다. 사

19) 자료 : “부여 가림·소부리권역 살기좋은 농촌마을 된다”. 2010년 11월 18일. 충청일보. 김남현기자(<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155>)

20) 주 : 당초 사업신청 시 권역사업명은 “소부리 권역사업”이었다. 마을 내 역사와 친환경농업 등 지역자원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 추진을 주요 테마로 시작하였다. 신암1리를 포함한 6개 행정리가 참여하였고, 이후 부여청마산소리권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성주인외, 2016).

무장 지원은 현재 없다. 이 당시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노인정 및 마을회관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던 상황이라서 반겨하는 분위기였고 다들 만족해하였다고 한다.

2.5.2. 행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신암1리의 그동안 행정지원사업으로 인해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은 마을 주민 간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주민 간 갈등 문제, 경제적 피해를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청마 산소리 권역(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였고 의지도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처음 접해보는 사업이라서 마을주민의 운영경험 부족으로 대응이 미숙했던 점, 마을 주민의 보수적 성향과 의견에 부딪혔던 점, “우리 것, 나의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부족했던 게 한계점이다.

반면, 성과로는 부여군 내에서 최초의 친환경농업 메카지역이라는 수식어답게 신암1리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한살림이라는 외부지원조직이 든든하게 뒷받침될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다. 이는 곧 마을의 활력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추후 과제(성주인외, 2015)로서 한살림과 연계 추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과제, 권역사업으로 조성한 마을 권역센터, 정보화마을 및 전통테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복합문화센터, 딸기가공시설 등의 효과적인 활용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외부 네트워크의 활용이 중요한데 마을에서 주민 주도와 역량 하에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외부 주체와의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민 역량에 바탕

을 두지 않고 외부 주체의 주도로 진행되는 마을 내 경제활동 및 도농교류 활동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신암1리의 경제활동 전망과 시사점

3.1. 마을 경제활동의 특성 요약

신암1리는 친환경농업작목반,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 참여농가 주축이 되어서 결성한 “신암공동체” 등 마을 경제조직이 활성화되었고, 친환경 농업을 근간으로 마을 경제활동이 유지되고 있는 사례 지역이다.

신암1리의 핵심 특징은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업부문의 경제적 활동과 다각화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마을,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부여연합회 중 최초로 오리농법 쌀을 재배하는 신암공동체와 그를 계기로 생겨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 등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마을, 귀농인·귀촌인·귀향인이 꾸준히 증가 추세(10호 이상 증가)여서 농촌마을 인구 변동이 감소 추세에 있는 마을, 공동체 기반의 공동영농활동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마을, 대부분 쌀과 일부 시설 밭작물로 편중화 및 단작화되어 있는 농업구조, 마을의 종사인구, 경제활동 유형, 가구의 주요 소득원 역시 농림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동인은 경제활동 조직체인 신암공동체와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이다. 이들이 경제적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한 결과가 지역 내 경제적인 선순환을 발휘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암1리 마을은 신규유입 농가의 수요가 있어도 정주기반과 생산기반이 부족해서 진입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암1리의 경제활동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계기는 1990년대 초에 시작한 친환경농업(벼, 딸기, 메론, 수박, 양송이버섯 등)이다. 친환경농업 사업의 추진조직으로는 한살림과 연계된 신암공동체 및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이며, 이것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통한 식품가공 활성화, 생협 등 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사회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귀농인·귀촌인·귀향인 증가에 기여, 귀농인들이 도농교류 및 직거래 사업 등 조직적으로 수행하면서 마을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중심 역할을 발휘한 한 점이다. 성주인 외(2016)는 신암1리 공동체활동 추진조직 유형으로 “목적지향조직 주도형(한살림 생협 등과 연계된 생태농업인 공동체 주도)”을 설정한 바 있다.

신암1리의 농업활동 실태 및 영농방식은 초기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친환경농업을 시도하고 확산하였지만, 현재 마을이외의 주민이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외연적 확산 변화를 겪고 있었다. 대부분 쌀과 일부 시설밭작물로 편중화 및 단작화되어 있다. 마을의 종사인구, 경제활동 유형, 가구의 주요 소득원 역시 농림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중산간 지대에 입지하여 대규모 쌀 단지 조성이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서 1ha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자가경작 비율이 높다. 열악한 조건이 오히려 마을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친환경 딸기, 메론, 양송이버섯, 수박, 생강 등 근채류, 모시)이나 친환경농업을 시도하는 등 농업활동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마을 내 고령농은 평균 2,000평~3,000평 규모에서 일반관행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 신규로 진입한 취농인·청년농업인·귀농인은 20,000평 규모에서 대부분 친환경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고령농과 신규 취농인 간 경지규모는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었다.

신암1리의 경제활동 조직 특이사항은 공동체경제조직인 “소부리 영농조합

법인”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한살림 생산자연합회(신암공동체)와 품목별 친환경 작목반이 활성화되어 있고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조직이 활성화된 점이다. 신암공동체를 시작으로 외연확장을 한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이 한살림 등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면서 마을농업의 돌파구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마을 주민의 농업소득 창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주변지역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아졌다. 쌀은 농협 RPC를 통해서 출하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채소류 작목은 소부리 영농조합법인에 의존하여 유통하고 있고 한살림에 판매의 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신암1리의 비농업활동의 특성은 주로 1차 농업과 2차 농산물을 이용한 제조공업 등이 활성화된 정도이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업, 6차산업 등으로 다면적 경제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살림을 통한 소비자와의 도농교류사업으로서 모내기 및 딸기 수확 체험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권역개발사업의 일환인 도농교류센터인 “청마산소리복합문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적자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마을 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기이다.

신암1리의 공동체 변화는 신암공동체 및 소부리영농조합법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을 이외의 주민참여가 확대되어 가면서 당초 결속력있던 공동체가 약간 느슨해진 면이 있다. 신암공동체는 친목 수준의 모임으로만 작용하고 있어서 경제조직의 결사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다양한 가공상품을 제조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여서 마을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조, 가공하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몇 년째 성장세가 둔화된 점 등은 과연 신암1리가 변화에 대하여 제2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신암1리에 지원된 그간의 정부 정책은 2006년 신암1리에 지원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과 정보화마을 사업, 2011년 신암1리와 신암2리에 지원된 일반농산어촌개발권역사업(소부리권역사업), 2011년 신암1리에 지원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신앙전통테마마을) 등이 있다. 운영 경험의 부족, 마을 주민 간의견 대립, 주인의식의 부족 등이 한계점으로 작용했지만, 반면, 성과로서는 부여군 내에서 최초의 친환경농업 메카지역답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통해서 한살림이라는 외부지원조직이 든든하게 뒷받침될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마을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었고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다. 이는 곧 마을의 활력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3.2. 마을 경제활동의 전망과 계획

소득과 관련한 의식수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암1리 마을 주민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소득수준 의식은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고 있고, 뚜렷한 증가 소득원도, 감소 소득원도 없었다고 체감하고 있었다. 미래의 소득수준 의식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증가 소득원도, 감소 소득원도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농어업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 의향에 대해서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거나 미래에 대한 심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와 관련한 의식수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과거와 비교 시 소비지출 규모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은 소득수준 변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는 곧 경제적 상황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렇듯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가정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 있고, 과거와 비교했을 시 약간 후퇴하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으며,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이 마을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긍정과 부정 의견이 공존하고 있음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마을 내 공동의 경제활동은 마을 주민 간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주민 간 갈등문제, 경제적 피해를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득과 소비 의식수준을 토대로 향후 농업 경제활동에 있어서 규모 확대의사는 현 상태 유지, 농어업 후계자는 없고, 은퇴 시 구체적인 농지활용 계획도 없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는 미래 후계영농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농업 종사 이후의 미래 영농기반 계획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부족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면적 경제활동이 가구의 소득증진에 약간의 도움은 되었으나 향후 참여할 의사는 다소 머뭇거리고 있었다. 다만, 농산물의 직거래와 직접판매 활동을 통해서 유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함도 읽을 수 있었다.

현재 마을주민의 전반적인 심적 상태가 마을 경제활동 전망과 계획에 대해서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다.

3.3. 정부 정책의 방향

친환경농업 중심 지역으로 성장한 신암1리는 다시금 제2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적 영역의 정책 방향과 마을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인위적인 외부지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 마을과 이웃 마을 간 연계와 협력,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우선 마을 주민 스스로 내발적 발전을 도모하되 이후 외부지원이 필요할 시 행

정의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으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부여군 차원만이 아닌 충청남도 광역 차원에서 수급조절과 물류기능을 조절해주는 정책과 같은 것이다.

둘째, 마을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마을 주민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외부지역도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가 살아있어야 하기에 이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조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중심적인 구조이고 철저하게 지역을 배제하는 구조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했다. 면담 조사결과에서 김재범 전 대표가 밝혔듯이, 선진국의 농업과 농촌 현장사례를 전학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혹은 우리 마을의 발전은 이미 한계점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선진국은 지역주민과 농업인 간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상호 발전해나가고 있게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정책은 모두 중앙 집중적인 구조이고 권력지향적인 구조를 보이면서 지역 간 관계성과 자생적 발전의 토양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의 성장동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발굴하고 키워내는 일이다. 정부 정책이 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좀더 협심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마을 내 소득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마을주민 간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순조롭게 진행함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열정이 있고, 마을사업의 가치를 읽을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 뿐만 아니라 리더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협조하는 후계인력 양성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규 유입인구에 대해서 마을 주민이 포용력을 가지고 이들이 마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마을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생산자와 소

비자가 공생하고 연대하는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한살림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충청남도, 세종시, 대전광역시 등 인근 대도시 소비자와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산자 교육은 물론이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다. 학교급식은 물론 공공급식 등 먹거리 공공조달까지 고려한다면 소비자의 식생활교육은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마을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가구(취농, 창농, 귀농 등)를 위한 정주기반과 생산기반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장기간 빈집 무상임대, 공동농지이용기반 조성 등과 같은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을 내부의 여건이 안 된다면 인접한 마을, 혹은 더 나아가서 부여군 전체적으로 공동경작지, 공유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7 장

종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 일반농촌지역 마을의 종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1.1. 일반농촌지역 마을의 종합 분석

■ 농촌마을 인구 이동의 둔화, 인구 감소 지속

그 동안 지속돼오던 농촌마을 젊은 층 인구의 타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전출 현상은 조사대상 마을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앞으로 그런 현상을 찾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마을 내 젊은 층 인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중장년 층 이상에서 외부지역으로 전출하게끔 하는 요인도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향후, 귀농·귀촌인 등 외부로부터 젊은 층의 유입이 없다고 가정 할 경우, 일반 농촌마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더불어 과소화,

고령화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벼농사 중심의 전업화, 규모화 진행

농업 노동력의 한계에 다다른 고령 농가는 더 이상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작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거나 매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은 벼농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고령 은퇴농가는 벼농사를 그만두고 자가 소비를 위해 소규모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의 작업이 기계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치 않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크지 않으면 수지가 맞지 않기에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 농업중심의 단순한 경제활동

조사 대상지역 마을의 대부분은 경종농업 중심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부여군 신암1리 마을을 제외하고는 1차 농업생산외의 2, 3차산업의 경제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반 농촌마을의 경제 활동은 매우 단조롭다. 또한 1차 농업도 벼농사 중심의 일부 밭작물을 경작하는 형태로 작물의 다양성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 귀농, 귀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최근 농촌마을로 거주지를 옮겨 새로운 삶을 영위하려는 귀농, 귀촌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귀농, 귀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도시인도 적지 않다. 농촌마을에 들어 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주택과 농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귀농, 귀촌에 대한 수요에 비해 현재의 농촌마을은 그러한 수요에 쉽게 대응할 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 농촌마을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빈집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빈집이 생기는 것은 고령의 독거가구 또는 부부가구가 자연死 후 다른 사람에

게 팔지 않고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도 같은 맥락에 외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마을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마을 내 공동영농 활동 찾아보기 어려움

한국 농촌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두레, 품앗이 등 농업노동력의 교환이나 공동영농작업은 농기계의 보급과 젊은 층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대부분의 조사 마을의 영농활동은 개별 농가 중심 또는 일부 대농 중심으로 마을 주민들 간에 공동영농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1.2. 일반농촌지역 마을의 정책 수요와 방향

■ 농촌마을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 필요 (농촌재생 측면)

농촌마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마을주민들에 의해 유지, 보전되어 왔던 마을의 고유 기능들이 쇠퇴하거나 소멸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을 자치 활동 기능, 마을 내 농지, 산림, 하천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관리 기능, 마을 안길, 용수로 등 생활환경 유지 기능, 공동체 유지 기능, 전통문화 계승 기능 등 농촌마을이 갖고 있던 고유의 기능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농촌마을의 인구의 空同化, 공동체의 空同化, 토지의 空同化에 따라 향후 농촌마을의 존속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다양한 공익적, 다면적 기능을 갖고 있는 농촌마을 소멸되지 않게 하고 諸기능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

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농촌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촌재생’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주로 추진하는 기본 생활 인프라 구축이나 농촌산업 다각화 등과는 차별화 된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즉 ‘농촌재생’은 농촌마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또한 ‘농촌재생’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개별 마을단위의 정책 투입이 아닌 주변 마을과 연계,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부족한 내부 인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외부의 다양한 주체(도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재생’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농업, 농촌자원의 D/B 빅데이터 구축, 후세에 계승되어야 할 농업, 농촌자원의 발굴과 복원, 도 단위의 지역 농업유산제도, 한국형 마을영농 시스템 등이 있다.

■ 한국형 마을영농 시스템 도입

일반 농촌마을의 농업 경영 형태는 연령대에 따라 전업농(60대 이하) → 소규모 영농, 자가소비형 영농(70대) → 고령 은퇴농(80대 이상) 순으로 변화가고 있다. 별다른 정책 투입 없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머지않아 대부분의 농촌마을은 고령 은퇴농으로 구성될 것이며 휴경지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우를 대비해서 마을 단위(경우에 따라서는 이웃 마을과 공동)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노동력의 투입이 계획적이고 이루어 질 수 있는 ‘마을영농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을영농 시스템’이 소수의 대농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고령농가와 귀농자의 소규모 경작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농업(농작물)의 다양화를 유도하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는 점이다. 즉 경작 규모가 큰 벼농사만을 위함이 아닌 대다수의 영세소농을 위한 다양한 작물재배를 위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마을영농 시스템을 도입할 시에는 前述했던 ‘농촌재생’ 정책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재생’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마을영농 시스템을 접근할 필요도 있다.

■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 환경 개선 필요

일반 농촌마을 주민들의 소득원의 대부분은 농업이며, 농업을 통해 얻는 소득도 많지 않다. 조사 대상마을 대부분이 농업이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기반이 거의 없으며 매우 취약하다. 고령 은퇴농에게 고정된 수입을 얻게 해 줄 수 있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마을단위별로 마을 내에 소득시설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다.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면소재지나 읍중심지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6차 산업화의 강화와 읍면단위의 ‘작은 6차산업 단지 조성(가칭)’을 들 수 있다.

2. 20년 史 대상 사례마을의 종합 검토 및 정책 시사점

2.1. 마을 인구와 연령층의 변화

■ 인구의 자연적 감소 지속

조사 대상 마을 대부분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5년에 비해 적게는 약 1/3, 많게는 약 1/4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최근의 인구 감소 이유는 농촌마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회적 감소가 아닌 출생인구는 줄어들고 사망인구가 늘어나는 자연적 감소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20~39세의 가임 여성인구는 거의 없고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세대와 세대당 평균 가족수 감소

농촌마을의 인구가 줄어들에 따라 세대수와 세대당 평균 가족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세대수는 인구처럼 급감하는 수준은 아니고 1985년에 비해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세대당 평균 가족수도 조사대상 마을 평균을 보면 1985년 세대당 평균 가족수가 4.02에서 2017년에는 1.93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 젊은층 인구 줄어들고 고령층 인구 증가

일반 농촌마을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를 보면, 젊은층 인구와 고령층 인구에

서 매우 큰 변화를 보인다. 특히 20대 이하의 유아, 청소년층의 인구는 매우 크게 급감하였다. 조사 대상마을의 1985년 기준 20대 이하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9.4%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6.0%에 그치고 있다. 부여군 송국2리의 경우는 20대 이하의 인구가 1명도 없다. 반면 60대 이상의 비율을 살펴보면, 1985년에 24.6%에서 2017년에는 68.1%를 증가했다.

2.2. 가족유형의 변화

■ 독신세대 비율의 급증

혼자 사는 독신세대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1985년에는 5.6%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으나, 2017년에는 31.7%로 약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산군 대양2리의 경우는 독신세대 비율이 46.7%로 전체 세대의 절반에 가깝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층의 독신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거의 대부분이 핵가족화

최근의 가족유형은 직계가족이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이 독신, 부부, 부부+자녀의 핵가족화의 형태이다. 핵가족화 형태에서도 부부+자녀가 함께 하는 세대 비율은 그리 높지 않고 대다수가 독신 또는 부부로 구성된 세대이다.

조사 대상 마을의 경우 직계가족이 3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 비율을 보면 1985~1991년에는 약 35.8%였으나, 2017년에는 3.4%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장남세대도 부모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드문데 그 이유는 자녀(손자)들의 교육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마을의 취업 구조와 영농 형태의 변화

■ 농업중심의 취업 구조 유지

조사 대상마을 내의 취업 구조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농업이 중심이며 별 다른 취업 형태를 찾기 어렵다. 오늘날 우리 농촌마을의 가장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단, 최근 들어 농촌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 밖으로 출퇴근 형태는 늘어나고 있으나 단순 일용직 형태가 많다.

■ 전업농의 감소와 비농업인의 증가

조사 대상 마을들은 대부분이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전업농의 비율은 줄어들고 비농업인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업농의 비율을 살펴보면 1985년 78.4%에서 2017년에는 45.5%로 줄었다. 비농업인의 비율은 1985년 10.3%에서 2017년에는 36.6%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농업 이외 다른 일자리가 생긴 것 때문이 아니라 고령 은퇴농가가 증가하여 농업을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촌마을 내 또는 농촌마을 주변지역에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문제는 시급히 풀어야 할 정책과제임이 틀림없다.

2.4. 농업 경영 형태의 변화

■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반 농촌마을은 인구의 고령화가 농업 경영주의 고령화로 직결된다. 대전 증촌마을의 경우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1985년에 53.6세에서 2017년에는 73.1세로 급격히 높아졌다. 2017년 기준 조사 대상마을의 60대 이상 농업 경영주 비율은 무려 84.8%이다. 대전 증촌마을과 논산 야화2리의 경우는 농업 경영주 전원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 농가수는 급감, 호당 경작 면적은 증가

조사 대상 마을들은 대부분이 1985년과 비교해서 농가수는 절반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마을 내의 농경지 면적은 거의 변함없어 농가당 경작 면적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전 증촌마을과 부여 송국2리의 경우 농가당 경작 면적이 1985년에 약 1,900평에서 2017년에는 약 4,600평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이것은 고령 은퇴농의 증가와 벼농사 중심으로 규모화가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부여군지편찬위원회. 2017. 『부여군지』 중 “제1권 부여의 지리”. 부여군.
- 성주인 · 송미령 · 정문수 · 민경찬. 2016a. “한국 농어촌 마을의 변화 실태와 중장기 발전 방향(2/5차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37-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송미령 · 정문수 · 민경찬. 2016b. “일반 · 원격 농촌 마을의 변화 실태 조사”. R792 연구자료-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6-37-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박대식 · 정은미 · 민경찬. 2015a. “한국 농촌 마을 심층조사 결과”. R767 연구자료-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 · 박대식 · 정은미 · 민경찬. 2015b. “농촌 사례 지역 정주 여건 및 주민 의식 조사 결과”. R767 연구자료-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대전일보(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63033)

부여군청 홈페이지(<http://www.buyeo.go.kr/html/kr/>)

충청일보(<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155>)